달마 for Windows 95
사찰 종무 관리 프로그램
사찰 전산화의 선두 기업 아린타 (02)3142-0108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9월 23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91 호

"차소령님을 만나고 보니 비승사 법당불사가 반드시 원망회향 될 것이란 확신이 서네요."

한정광행 보살은 성실해 보이는 인상의 차소령을 만나자마자 비승사 법당불사의 원만회향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함께 절에 다니는 신도들 15명이 모은 1백만원의 불사금을 전해주는 마음이 기쁘기 그지 없었다.

한보살이 비행접시 모양으로 지어지는 육군항공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사령부 비승사 불사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발심한 것은 이달 초 현대불교신문의 기사(187호 22면)를 읽고 나서다. 군법당이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 기공식을 했다는 기사를 읽으며 공군에 복무중인 둘째 아들 먹규가 생각났던 것이다.

"어머니 군대에 와 보니까 교회나 성당에는 법사들이 많이 나가는데 법당은 초라해요."

얼마전 면회 갔을때 들은 얘기도 함께 떠 올랐다. 한보살은 마침 백중 기도를 시작하려는 참



불사금 1백만원

이었다.

'올지, 올 해 백중에는 우리나라의 군법당이 많이 지어져어 군포교가 잘 되길 발원하는 7일 기도를 올려야겠다.'

능인선원을 다니는 한보살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상님들의 천도를 위해 백중 기도를 올렸었다. 올해는 조상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군법당을 위한 기도를 입재한 것이다. 기도를 하면서 한보살은 비승사를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약간의 시주금을 온라인으로 보낼 작정을 했다.

그런데 불현듯 혼자 시주금을 보낼 것이 아니라 여러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이 일었다. 경제난 가운데 돈 얘기를 꺼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도움을 줄 만한 주변의 신도들에게 군법당을 위해 조금씩 마음을 모으자고 말을 건넸다. 하루에 2명씩 7일간 14명의 동참을 받고 자신의 정성을 합했다.

"앞으로도 군법당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겁니다" 한보살은 비승사가 다 지어지면 꼭 구경을 갈 생각이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선거바람 부는 조계종

총무원장 출마선언 잇달아…종회의원 선거도 '물밑 움직임'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일(11월12일)과 중앙종회의원 선거일(10월29일)이 정해진 가운데 벌써부터 본격적인 '선거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선거 공고일은 50여일이 남았으나 대부분의 후보스님들은 선거대책위를 구성하며 종책 다듬기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9월중에는 출마 공식선언과 상대후보 견제 양상을 보이고 선거공고일인 10월14일을 기점으로 보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식 선거기간이자 후보등록일인 11월2일 이후에는 공식적인 종책 발표와 '표관리'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초부터 자천타천으로 총무원장 선거의 후보 물망에 오른 스님은 현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월탄, 전불국사주지 설조, 백양사주지 지선, 전통도사주지 지은스님등.

월주스님은 '현직 프리미엄'을 의식, 출마의사를 공식화 하지 않은채 "공고일에 직면하면 의사를 밝힌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설조스님의 경우 16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간 침묵을 지켜 온 월탄스님도 같은날 아시아불교평화회의 참석보고 기자회견을 주선, 자연스럽게 출마의지를 내비쳤다.

지선스님은 공식적인 출마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2일 교계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출마의사와 함께 구체적인 종책도 밝혔다. 통도사 지은스님도 '출마의 변'을 담은 문건을 언론사에 꾸준히 공개하고 있다.

총무원장 선거에 못지않게 중앙종회의원 선거전도 물밑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앙종회의원의 선거공고 시기는 9월30일 이전이며 후보자등록은 10일간의 공식선거일이 시작되는 10월19일부터 21일까지. 간선으로 뽑는 직능직 중앙종회의원 추천은 10월26일로 마무리 된다.

선출직과 직능직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뜻을 둔 스님들도 각 교구별로 물밑작업을 분주하게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구에서 선출하는 중앙종회의원에 못지 않게 교구별로 10명씩 선임되는 총무원장 선거인단에 대한 관심도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선거인단은 10월28일부터 11월1일까지 3일간 각 교구별로 선임된다. <관련기사 3면>

임연태 기자



일본 다도 불국사서 헌다식 일본 다도를 대표하는 두 종가중 하나인 우라센케의 종장 이에센소시츠 일행 1백여명이 15일 오전10시 경주 불국사에서 헌다식을 올렸다. 4백년전부터 일본 다도계를 이끌어온 우라센케의 헌다식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맞아 이원식 경주시장의 초청으로 개최됐다. 한국차인협회와 경주다도협회 관계자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헌다식은 불교의식으로 치뤄졌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중앙종회법 일부 개정

조계종 134회 종회… '승가대 문제' 추궁

조계종 제134회 임시중앙종회가 17일 개회돼 중앙종회법 개정안 일부를 통과 시킨 가운데 중앙승가대학 사태 보고의 건등을 다루다 18일 성원미달로 또다시 유회됐다.

사실상 마지막 종회 성격을 띤 이번 임시종회는 지난 9일 성원미달로 유회된 것과 관련 30여명의 종회의원 스님들의 발의로 개회됐다. 종회는 지난 회기에서 결론을 얻지 못한 중앙종회법 중 제18조 '정기회'와 제5조 '기구' 제6조 '의장의 직무'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 제18조의 '정기회' 부분의 개정은 "정기회는 매년 11월 첫째주중에 의장이 소집한다"는 대목에 "다만 중앙종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정기회는 총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중앙종회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무원장이 소집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 이는 총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중앙종회 전임과 신임의원의 임기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정기회를 진행토록 하기 위한 장치다.

중앙종회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중앙승가대 학생들이 총무원을 점거 농성한 것과 관련, 봉은사 주지 발령, 김포학사 이전 공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총무원 총무부장과 중앙승가대 학생회장이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추궁과 질의가 오고갔다. <관련기사 3면>

임연태 기자

경부고속철 경주외곽 통과

김대통령 "조속한 시일내 정부방침 결정"

경부고속철도가 경주 외곽구간을 통과한다. 김대중대통령은 11일 "경부고속철도의 경주통과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속한 시일 안에 그런 방향으로 정부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98경주문화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한 뒤 이 지역 인사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는 7월31일 서울-경주-대구-부산 구간의 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은 변함없다며 경주노선은 경주외곽인 화천-건천 노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천-건천 노선은 96년 12월 건교부가 발표한 안으로, 경주와 포항 시민들은 물론 불교계 고고학회 등에서도 지지한 노선이다.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은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전 이남 전철화, 대전-대구 직선화안이 논의되었으나, 김대중대통령의 경주동과 발언으로 서울-대전-경주-대구-부산 노선으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불교문화 체험기행

10월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강화 보문사, 선원사지, 무애원 등을 찾아갑니다.

마애관음보살상(인천시 유형문화재 제29호)과 천연동굴 법당(인천시 유형문화재 제27호) 등으로 널리 알려진 관음기도도량 보문사, 팔만대장경 판각 성지인 선원사지 등을 답사합니다. 특히 무애원에서 설봉스님과 함께 흙을 빚으면서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체험은 올가을 소중한 추억만들기가 될 것입니다.

10월 "설봉스님과 함께 빚는 도자기"

'강화 보문사 · 선원사지 · 무애원'

◇출 발: 10월18일(일) 아침6시30분 조계사 앞
◇회 비: 3만5천원(점심 제공, 도선료 포함)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현대불교신문사 주관:혜초여행사
협찬:일양약품

제4회 신행수기 공모

교계에서 정평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제4회째를 맞게 됐습니다. 가슴에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뜻깊은 신행의 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감동적인 신행이야기는 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게재됩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원고지 30매…마감 12월15일

△주 제: 생활 속 수행 신행이야기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분 량: 2백자 원고지 30매 안팎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담당자, (02)722-4162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99년 신년호
△시상내용
■유마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본사 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특별상
· 중단협의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천태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현대불교신문사

'火葬선언' 폭넓게 확산 18면
서울서 2000년 ABCP총회 2면
교계 한가위 자비손길 '훈훈' 23면

어디가 좋을까?

사찰, 전원주택, 교육관, 수련장, 복지회관…
청산컨설팅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고민끝~!

삼보에 귀의하옵고, 삼가 우리 불자님들께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I.M.F. 한파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저는 10년 전부터 수도권 일원의 전원주택부지 안내와 개발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청산컨설팅 대표 안 태진입니다.
이번 국내에 닥친 I.M.F 한파는 부동산 업계에도 예외는 아니였습니다. 불황속에서 매우 우수한 상품들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50%이상 싼 가격의 매물이 쏟아져
우리 불자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만한 땅이 있어서 소개하고저 합니다.





부지 1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총평수 : 3,000평
■지 목 : 준농림(임야)
■특 징 : 정남향 주변에 별장 및 전원주택이 있음(전용허가를 득해줌). 계곡물이 흐르고 시야가 탁 트인 곳
■용 도 : 교육관부지, 청소년 수련장부지, 노인복지회관부지 전원주택을 짓고 농장하시며 500평, 1,000평 단위로 매수하고 공부하실 분.
■시 세 : I.M.F 전 → 주변시세 30만원 ~ 60만원선 분양
I.M.F 후 → 주변시세 20만원 ~ 30만원선 분양
희망가격 → 평당 10만원

부지 2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당산리
■총평수 : 507평
■지 목 : 준농림(답)
■특 징 : 현재 양평↔여주간 4차선 공사중 현재 포장공사만 남아있음. 토목공사 및 평탄작업 해드림
■용 도 : 휴게소 및 가든자리, 상가 건물 지을 수 있는 자리, 개통후 3~4배 투자성
■시 세 : 평당 15만원

부지 3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149번지 산 149-1번지 2필지 ⊙ 보존임지
■총평수 : 4,170평(필요시 준농림 득해서 드림)
■용 도 : 과수원, 펜, 사슴 목장, 농업용도의 개발가능 4m 진입로 확보. → 급한 매물 평당 3만원

CHUNG SAN 컨설팅 02)420-5474~5/011)213-4594

▶기타 문의전화 ☎ 02)420-5474-5, 011)213-4594번으로 연락주십시오. 전국에 계신 불자님 가정에 행복된 나날을 기원 드립니다.

사 설

비구니회관 건립 의미

전국 비구니스님들뿐만이 아니라 불교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비구니회관의 건립이 실현된다. 9월 10일 회관 기공법회를 갖고 3년후에 완공될 예정이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이 비구니회관의 건립은 큰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불법홍포와 수행정진에 새로운 희망의 싹을 심는 일이기 때문이다. 비구니스님들의 포교, 교육, 수행, 복지활동 등의 중심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중심이 없어 공동체적 결집력이 약했던 전국비구니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새로운 한국불교의 장을 열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대불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부대중은 힘을 합쳐야 한다. 벽돌 한장을 쌓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자. 이러한 인연 공덕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이번 비구니회관 건립불사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비구니스님들의 힘을 결집시켜 화합공동체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불교의 최대종단인 조계종 소속 스님들의 절반이나 되는 6천여 비구니스님들의 자비와 지혜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는 대중사회이다. 고도의 산업화과정을 거쳐서 정보화, 세계화된 지식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있는 현실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개인이나 사찰단위의 수행과 교육 및 대중교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 회관건립의 대작불사가 원만히 회향되어 비구니스님들의 포교와 교육의 종합도량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기원한다. 오늘날 포교의 대상도 다양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청소년과 여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자비의 손으로 어루만져주길 기다리고 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포교나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환자, 노약자, 장애인들에 대한 포교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분야에는 비구니스님들이 한층더 전법교화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 분야의 종합적이고 조직적인 비구니스님들의 포교방법과 교육체계가 이 회관에서 개발되고 실천되길 바란다.

또한 회관이 비구니스님들과 여성불교의 수행과 화합의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 수행공동체로서의 전통사찰의 기능과 화합공동체로서의 현대도시형 사찰의 '기능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 이미 체육시설, 도서관, 교육장, 연회장 등 지역주민들에게 자비와 지혜와 복덕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계획되어 있다. 문화예술공연도 할 수 있고, 예식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인간미가 넘치는 사랑방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끝으로 이번 불사를 계기로 불교계 각계각층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위상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남녀불평등과 갈등이 해소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추세에 비해 우리 불교계가 너무 뒤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종헌종법에는 사부대중으로 종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만물이 평등하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비구니 스님들이 종단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많이 제한되어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종무행정과 종회 등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러한 불교계의 차별과 갈등이 해소되고 본래 부처님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부대중이 함께 화합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우리가 남인가'
이웃을 돕는사람들 '실직가정어린이 열린학교'
송광사회복지관 '무자격실직자 자활지원'

실업극복 프로 선정

실업극복국민운동, 1차 지원 23건 확정 … 2차 공모마감 10월 10일

불교계 3개 단체의 실업극복 프로그램이 실업극복국민운동(공동위원장 송월주·김수환·강원용)의 1차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웃을돕는사람들(이사장 김동흔)의 '실직가정 어린이 희망만들기 열린학교'와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현고스님)의 '반농반도시의 지역사회 특성을 이용한 무자격 실직자 자활지원 프로그램'이 실업극복 제안 사업 제1차 공모에 각각 선정됐다. 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의 '우리가 남인가' 프로그램은 내주 실업극복국민운동 운영위원회에서 추가로 사업예산을 부분 삭감(2억8천만원에서 50% 삭감 예정)으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실직가정 어린이…'는 실직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대졸 미취업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숙제 지도 및 특별학습(가족신문·동네지도 만들기, 문화유적 답사, 과학관 탐방 등) △영어 미술 음악 과학 등 취미생활 프로그램 △결식아동을 위한 저녁 급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금 5천3백8만원, 자부담 9백7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된다.

'반농반도시…프로그램'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실직자중 한시적 또는 실직한 생활보호대상자 5백여명을 대상으로 인근 영세농촌가구와 실직자와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직한 유휴 노동력을 광산구내 인근농가로 연계해 일자리 창출 △소촌공단과 하남공단을 대상으로 생산직위주의 취업 알선 △방과후 공부방 운영 등이 주요 내용. 총소요예산은 3천6백여만원, 국민운동기금은 2천1백여만원 지원 된다.

사회복지재단의 '우리가 남인가' 프로그램은 가정해체 위기를 맞고 있는 실업가정 지원을 주요사업으로 한다.

특히 '가족 사랑' 수당(가구당 2만원)을 지급하고 자조클럽 '두레'를 발족시키며 가족관계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도록 '부부사랑 가꾸기' 프로그램(부부간 감정표현·의사소통 기술 훈련 및 역할극, 1박2일 산사 가족캠프 등)을 실시하는 것이 눈길을 끈다. 주요 수행장소는 서울 옥수·구로·본동종합사회복지관 및 자양사회복지관이다.

실업극복제안사업의 제2차 공모 마감은 오는 10월10일. 정부의 실업대책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실업가정의 겨울나기돕기 지원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제안사업기간은 1년이내. (02)6700-500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방한 중국불교대표단 초청만찬

한국을 방문중인 중국불교우호단(단장 성휘스님) 23명 초청 월주스님 환영만찬이 12일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인곡(태고종 총무원장) 정산(천태종 감사원장) 성초(진각종 통리원장) 홍파(관음종 총무원장) 총지화(총지종 통리원장) 효강(총지종 법장원장) 송정(조동종 총무원장)스님과 각 종단 총무부장스님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월주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양국의 선조들이 꽃피운 불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우호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자"고 말했다. 한편 중국불교우호단은 12일부터 8박 9일간 조계사, 봉원사, 법주사, 해인사 등 한주요사찰을 방문하고 20일 중국으로 돌아갔다. 김원우 기자

"포교사 의식집전 금지해야"

조계종 본사 포교국장회의, 포교원에 건의

조계종포교원은 15일 종단협회의실에서 교구본사 포교국장회의를 열어 포교사 배출 및 불교교양대학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교국장들은 부산 유마힐포교원 치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포교사 배출과정부터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포교사고시 응시자의 교구본사 주지 추천서 첨부 △포교사의 의식집전 금지와 종령화 등을 포교원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포교원은 종단 등록 51개 불교교양대학과 재가포교사가 설립해 운영하는 포교당 실태를 조사한 후 관리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2월중 공청회를 열어 포교사 배출 및 불교교양대학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19개 교구본사 포교국장과 포교원 포교국장 성수스님, 연수국장 법경스님 등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7일부터 12일까지 몽골에서 열린 아시아불교평화회의 제9차 총회에서 제10차대회를 2년후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의결했다.

ABCP 10차 총회 2000년 서울서

몽골총회서 만장일치

아시아불교평화회의(ABCP)는 7일부터 12일까지 몽골리아 울란바토르 강단 사원에서 개최된 제9차 총회에서 한국을 정식국가본부로 승인하고 제10차 총회를 2000년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신개발로 세계를 지탱하자'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세계 23개국의 300여 대표가 참석했으며 한국에서는 월탄스님(한국국가본부장)과 송묵스님(한국국가본부이사) 법기스님(〃), 사무총장 이치란씨 등이 참가했다.

한국국가본부장 월탄스님은 16일 서울 법련사에서 제9차 총회 보고회를 갖고 "2000년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키로 함에 따라 21세기를 향한 불교역할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또 달라이라마를 제주도로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북한불교대표자도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본말사 주지연수 평가

조계종 본사 교무국장 회의

조계종 교육원은 16일 오후 3시 본사 교무국장회의를 열고, 98년 본말사 주지연수회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광역별로 실시된 98년 본말사 주지 연수회는 예년에 비해 수준높은 강의와 높은 참석률, 치밀한 준비 등으로 성공적인 연수가 실시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스님들의 정서에 맞는 전문연수원의 부재와 자발적인 연수회 참여유도, 종무행정과 포교방법에 대한 강의 등은 향후 연수회에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월산스님 1주기 추모 25일 불국사 대웅전

성림당 월산대종사 1주기 추모 대법회가 25일 오전 10시 불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이번 월산스님 추모법회는 98 경주문화엑스포 토함산 불국사 특별행사의 일환으로 봉행돼 전국의 불자와 스님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은자 기자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10월 창립

진각·지은스님 임시 공동회장에

태고종 전국비구니회가 10월 15일 창립된다. 태고종 소속 비구니스님 31명은 12일 선암사에서 준비모임을 갖고 내달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무처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기로 하고 진각스님(보현정사)과 지은스님(공덕사)을 임시 공동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부회장과 총무 등 임원 선출을 마무리했다.

이날 준비모임에서는 비구니스님 31명과 연화비구니회에서 활동했던 스님 18명 등 모두 49명의 비구니 스님으로 구성된 창립발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창립발기위원회는 창립총회 개최 및 임원단 공식 출범을 준비하게 된다.

이날 전국비구니회 창립 목적을 승가의 위상제고와 종단발전, 불교증흥에 두고 삼보호지, 종권수호, 교육·문화·사회복지 및 봉사, 회원 친목도모사업 등을 전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을 제정, 공포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풍산한식 동기와 판매및 시공
◆ 서푼짜리 기와때문에 천냥짜리 대들보가 썩어서야?
◆ 사찰기와 재보수 이젠 걱정 없습니다.
천년을 이어갈 가람, 풍산 한식 동기와로 보존 하십시오.
전문 시공업체 —— 대표 최 대 룡 합장
成源産業
TEL (02)3663-1737 FAX (02)3664-6216
H.P (011)445-7811 야간 (02)502-7811,7827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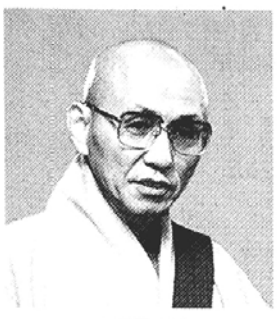
현대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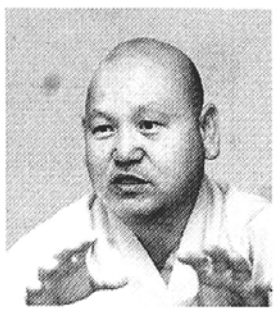
박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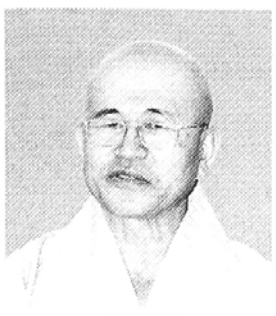


독서의 계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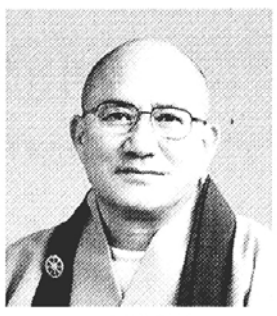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동국대학교 의료원 개원 10주년 및 경주병원 증축 준공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21세기 새로운 병원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환자가 중심이 되는 병원,
연구하는 병원,
지역민의 신뢰를 받는 병원,
과학적인 진단과 치료를 하는
가장 모범적인 병원을 위해
전 교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동국학원 이 사 장 오 록 원
동국대학교 총 장 송 석 구
동국대학교 의료원장 조 재 호
경 주 병 원 병 원 장 서 정 욱
기 념 식 1998. 9. 29(화) 11시
개설진료과목
· 내과 · 신경과 · 정신과 · 일반외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흉부외과 · 성형외과 · 산부인과 · 소아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비뇨기과 · 피부과 · 마취과 · 진단방사선과
· 임상병리과 · 해부병리과 · 가정의학과 · 재활의학과 · 예방의학과 · 치과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1090-1번지
전화:(0561)748-9300
팩스:(0561)770-8500


◇월주스님


◇월탄스님


◇설조스님


◇지선스님


◇지은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들 표밭갈이 행보 '신중'

월주-월탄-설조-지선-지은스님 '5파전'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후보스님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후보로 떠 오른 스님들은 현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불교발전연구원이사장 월탄스님, 전불국사주지 설조스님, 백양사주지 지선스님, 전통도사주지 지은스님등.

월주스님은 현직 총무원이라는 입장에서 공식적인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출마가 확실하다는 것이 종단 주변의 관측. 스님은 후보등록 직전에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16일 정오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마련해 출마의사를 공론화 한 설조스님은 △종단 법통의 확립 △교구본사의 기능강화, 총무원 기구 축소 △교육 포교 역경의 전문화 등을 주요 종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설조스님은 "현 총무원장의 3선 저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3선이 저지되면 나머지 후보들과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도 밝혀 다른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월탄스님도 16일 오후4시 아시아불교평화회의 몽골리아 총회 참석 보고회를 위한 기자회견 자리를 통해 "공식적인 출마선언은 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지만 스님의 출마는 거의 확실하다. 회견에서 스님은 "종단의 교육개혁을 통해 모든 승려가 사회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풍토를 조성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기의 불교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교육개혁을 종책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중을 비쳤기 때문. 무엇보다 스님은 "원로스님들과 선후배스님들이 적극 권유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미 두번이나 낙선을 경험했으니 이번에는 반드시 된다는 확신이 선 뒤에 움직일 생각"이라 말해 상당한 신중성을 보였다.

출마선언은 유보하고 있지만 지선스님의 출마도 확실하다. 스님은 2일 기자들과의 사석에서 △종단 개혁과 화합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 제고 △새로운 선거풍토 조성 등을 위해 출마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었다. 18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스님은 "지난 4년은 원로회의와 중앙종회 본사주지의 역할 등이 총체적으로 무력화되면서 개혁이 실종된 시기였다"며 "원장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실종된 종단개혁의 의지를 되살리기 위해 선거전에 뛰어 들겠다"고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94년 종단 개혁의 현장에서 뛰었던 지선스님은 종단개혁불사의 중단없는 추진을 최대의 모토로 걸고 선거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스님은 "강도 높은 개혁추진을 위해 '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 종단을 집단지도체제로 이끌어 가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은스님은 아직 서울에서 활동하지 않으며 문건을 통해 '출마의 변'을 언론사로 보내고 있으나 조만간 서울에서 공식 선언을 하며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스님은 △종단위상 고양 △면학풍토 쇄신 △종무행정 개선 △인재 불사를 통한 포교 활성화 등의 종책을 구준히 밝히고 있다.

본격화되고 있는 선거구도와 관련 자칫 과열 선거분위기가 조성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불교계의 우려도 적지 않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목어

법형제

고은씨와 박완일씨는 젊은날 효봉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한 사형사제다.

얼마전 두분이 서울 법련사에서 만났다. 형식적인 악수가 아니라 두손을 덥썩 잡았다.

두사람은 하산하여 각기 다른분야에서 일가를 이뤄 명사가 되었지만 효봉스님의 법취를 지니고 있었다. 피를 나눈 형제들이 닮았듯 그것은 법형제로서의 공통점이었다. 한 스승을 모시고 피대신 법을 나눴으니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가.

박완일씨는 가끔 현대불교신문사로 전화하여 고은 논설고문이 언제 나오시는지 묻는다. 이유는 식사를 함께 하고 싶어서이다. 그 情은 동기간의 우애 못지않은 법형제의 우애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일정이 확정되면서 금오문중 그러니까 속칭 '월자(月字) 문중'의 3형제 스님 출마설이 승속간에 화제다. 그 주인공은 월주, 월탄, 설조(월태)스님이다.

세 스님중 막내인 설조스님은 16일 출마선언을 했다. 같은날 월탄스님은 여론을 수렴한후 결정할 뜻을 보였다.

큰 형님으로 現 총무원장인 월주스님은 후보등록때까지 출마결정을 발표않을 것으로 교계는 점치고 있다. 덕숭문중의 대들보로 불리운 스승 금오스님이 오늘의 세 형제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하실까. 속가에서도 보기드문 일이다. 형제끼리의 경합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님먼저 아우먼저'하며 서로 권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보일때 더 승가다울 것 같다.

음력 8월17일(10월7일)은 금오스님 추모 기일이다. 문도들이 모여 스승의 유지를 받드는 그 자리에서 금오가풍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후보단일화의 뜻이 모아지지 않더라도 형제끼리 비방하거나 헐뜯는 일은 없어야겠다. 그런일은 속인들도 손가락질하고 손가락질 받는다.

금오스님은 입적전 맡상좌 월산스님에게 문도들의 화합을 각별히 당부하셨다.

부처님께서도 여러 경전에서 일러 주셨다.

"친척이나 친구를 5가지로 경애해야한다. 죄 짓는것을 보면 조용히 깨우쳐주고 다급할때 구해주고, 개인 이야기를 남에게 하지말고, 속이지 않고 좋은 물건을 나눠써라."

승가대 학인·동문-종회의원 성명 공방전…갈등 심화

승가대 학인스님 총무원 농성 파장

중앙승가대 학인스님들이 9일부터 12일까지 총무원 청사에서 농성을 벌인 것과 관련 학생회와 동문회 중앙종회의원들의 성명이 잇달아 발표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승가대 학생회는 12일 오후 조계종 총무부장 원우스님을 비롯한 종단 부장스님들과의 면담을 통해 △개혁종단의 위상을 손상시킨 승려에 대한 총무원의 철저한 조사 징계 △김포락사 이전불사 완공과 관련 비리의혹을 밝히기 위한 총무원과 중앙승가대간의 공동조사위 구성△김포학사 이전불사 완공을 위한 10% 예산 증액지원 종회통과 노력△학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학업에 정진한다 등의 4개항을 합의하고, 농성을 해재함으로써 일단락 되는 듯했다.

그러나 법등, 영담, 지홍, 명진, 법성스님등 종회의원 스님들은 15일 농성을 주도한 승가대 학생과 임의로 합의서를 작성해 준 총무부장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적법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중앙승가대 학생회와 동문회는 16일 반박 성명서를 각각 발표했다.

17일 열린 중앙종회에서도 '중앙승가대학 사태 보고의 건'이 상정됐다. 총무원장 월주스님까지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질의에서 일부 의원스님들은 "학생들의 요구사항과 합의서의 내용이 너무 판이하다"며 "이면계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서는 원천적으로 무효화 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대해 총무부장 원우 스님은 "이면계약은 없었다" "합의서가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화 될 것이다"고 답했다. "학인들의 총무원 점거 농성은 승려법에 의해 조치 될 사항"이라는 지적에 대해 호법부장 영배스님은 "의법조치 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봉은사주지 선임과 관련해서도 "인사권자인 총무원장이 임명 시기를 늦추고 있는데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 지적했으며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봉은사측과 중앙승가대 동문회측이 각각 후보를 추천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답했다.

임연태·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18일 11번째 유회를 낳은 조계종 제11대 중앙종회는 종도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는 평을 받으며 사실상 문을 닫았다.

성원미달·유회거듭 '실망'

사실상 막내린 조계종 제11대 종앙종회

각종 현안 특위구성 종권수호 노력 '인정'

종단개혁이라는 시대적 여망을 안고 출발한 조계종 제11대 중앙종회는 초창기 밤 깊어 가는 줄 모르고 토론을 벌이며 종책을 입안하는 열정을 보여 종단개혁의 견인차로 자리를 잡아갔다. 그러나 회기를 거듭 할수록 종회는 성원미달과 유회를 거듭하며 종도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안건을 다루며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석을 떠나는 의원스님들이 늘어나 유회가 거듭됐고 아예 참석조차 않는 스님도 많아 제적인원 81명의 과반수인 42명을 간신히 채워 개회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126회와 131회 임시종회는 성원미달로 개회조차 못하는 부끄러운 사례를 남기기도 했다. 거기다 종회 내부에서 '해산론'과 '무용론'이 제기될 만큼 심각한 사양길을 걸어왔다.

사실상 마지막 종회인 134회 임시종회도 성원미달로 유회되고 말았다. 이로써 종회는 21번의 회기 중 11번의 유회사태를 낳아 '절반의 성공'이라는 질타까지 듣고 있다. 또 17건의 종법제개정안을 비롯한 안건들을 12대로 물려주어야 할 상황이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오점을 남겼다.

종단의 주요 종책을 입안하고 집행부의 각종 행정을 견제하는 종회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꼽히는 요인은 종회의원들의 사명감 부족이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다 거시적으로 보지 않고 문중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루는 경향이 심화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사무처장이 3번 교체되고 12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내놓은 가운데 9명이 보궐되는 등 구성원의 잦은 변동도 종회를 원만히 이끄는데 장애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각종 특별위원회를 구성, 종단 현안에 대한 종회차원의 대응을 하며 종권을 수호한 점은 높히 평가된다. 또 총무원과의 합동 종무감사를 통해 사찰 재정 운용을 투명화하고 체계를 잡은 것도 큰 소득으로 꼽힌다.

임연태 기자

종회의장 설정스님 일문일답

"종회구성 개선책 필요"



-임기 2년의 종회의장직을 연임하며 4년간 중앙종회를 이끌어 온 소감은.

▲지난 4년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지 못한데 따른 부끄러움도 큽니다. 종단발전은 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승가 개개인의 애종심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종회 내부의 분열을 막기위해 최대한의 인내와 하심으로 의사를 진행했으며 그런 와중에 좌절도 많았습니다. 11번의 유회라는 오명은 종도들에게 끝내 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회의 거듭된 유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무엇보다 의원스님들의 사명감과 애종심이 중요합니다. 종회 구성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홀가분하게 수행자의 본래 자리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교차로 승가



'평화통일 복지기금' 이사에

월하 통도사 방장은 15일 국내외 1만3천여 민주평통위원을 중심으로 설립되는 재단법인 '평화와 통일 위한 복지기금' 발기인 총회에서 이사로 위속됐다.



인도 4성지 순례후 귀국

현성 현성정사 주지는 회갑을 맞아 10일간 부처님의 구도와 전법의 현장을 돌아보는 인도 4성지 순례를 마치고 18일 귀국했다.



장학금 3천6백만원 전달

도후 신흥사 주지는 26일 오후 3시 신흥사포교당 원각사에서 속초시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승가대학생 등 60명에게 총3천6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다.



민족수호 본사 주지모임

월파 통도사 주지는 18일 오후 6시 통도사 주지실에서 민족 수호를 위한 본사 주지모임을 가졌다.



자료수집차 대만 출국

향적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은 세계 승가교단체계 연구자료 수집을 위해 21일 대만으로 출국해 24일 귀국한다.



효봉스님 32주기 추모법회

현지 송광사 주지는 10월 21일 오전10시 효봉대종사 제32주기 추모법회 및 송광사 수련원 건립불사 기공식을 봉행한다.



광주교육원 홈페이지 개설

영조 광주불교교육원장은 최근 광주불교교육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http://www.netian.com/~kjd-alma



'기독교의 통일준비' 워크숍

효림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은 23일 육화관 강의실에서 제5차 통일을 준비하는 불교 정책 워크숍을 진행한다.



광주 불교소년예술단 창단

행법 선덕사 주지는 19일 오후2시 선덕사 대웅전에서 광주불교소년소녀예술단 창단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갔다.



경내 서점·전통찻집 개원

광민 광주 무각사 주지는 5일 무각사내에 불교용품과 서적을 판매하는 무각사 불일서점과 전통찻집 연다원을 개원했다.

고칠 190호 4면의 경북 칠곡 극락사 주지 원일스님은 대구 도안사 주지이므로 바로잡습니다.

25년 군법사 생활 마감
조길조 법사

"성실한 포교가 올바른 수행"



"장병 불자들과 함께한 지난 25년은 제게 값진 수행의 시간 이었습이다.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30일 25년의 군법사 생활을 마감하고 전역하는 조길조법사(1군 법웅사주지). 조법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후배 군법사들도 거사불교의 초석을 다진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법사는 또 "군법사들에게는 수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포교만이 올바른 수행이다"며 "장병 한 사람이라도 더 포교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승단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조법사는 "군승단에 대한 종단의 지원과 제도적 장치도 더 확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법사는 전역후에도 거사불교의 발전을 위해 불교교양대학 등에서 강의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21세기 대비 법사양성 절실"

창립 10돌 맞는 법사회장 목정배교수



"21세기에는 재가법사의 활동영역이 더욱 확산될 것이고,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영역에서 불교포교의 일익을 담당하는 재가법사들이 더욱 많이 배출돼야 합니다."

10월 3일 창립 10주년을 맞는 대한불교법사회 회장 목정배교수(동국대)의 말이다. 법사회는 10월1일 장충동 법사원 중앙법당에서 수계식을 겸한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89년 11월 정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명실상부한 법사들의 조직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불교법사회는 재가법사들의 체계적인 포교와 교육을 위한 법회자료 발간, 학술세미나, 구치소 소년원 자원봉사 등 폭넓은 활동을 펼쳐 왔다.

"출가이부중을 옹호하고 존중하면서 교리, 수행, 의식체계의 재정립을 위해 현대에 알맞는 체계적인 재가법사 교육양성에 더욱 힘쓸 생각"이라는 목교수는 그동안 2년과정의 법사원불교대학을 설립해 지금까지 680여명의 재가법사들을 배출해왔다.

재가법사 680명 배출…자료발간등 활동 다양

현재 법사회는 서울 경기지역과 부산지역을 비롯 전국적인 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자 자신의 생활터전에서 불교포교의 첨병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IMF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제불광회를 통한 국제불교교류사업, 세재불교운동의 대중적 확산, 각종 수련대회, 우리말 왕생의례집 발간, 행가사 제작등을 전개하고 있다.

"재가법사 운동은 성급하게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깊이있게,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신념으로 앞으로도 법사회를 계속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목교수는 밝혔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조선족 스님 10명 절 없이 활동"

연변불교 현황 밝힌 정판룡 교수



"토지개혁과 문화대혁명으로 끊어졌던 부처님의 가르침이 조선족자치주 연변에도 서서히 전파되고 있다. 조선족 출신의 스님들이 연변불교의 중흥을 위해 포교에 나섰습니다."

연변자치주의 조선족 대부로 불리는 연변대 정판룡교수(전 연변대총장)는 연변의 불교근황을 소개하며 고국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중국의 사회주의화 이전에 연변에는 용주사 등 8개의 사찰이 있었으나 사회주의 혁명 와중에 모두 폐쇄,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불교의 불씨조차 느낄 수 없었다. 다행히 최근 10명의 조선족 출신 청년들이 불교에 귀의, 정식 승려가 되어 연변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사찰은 하나도 없다. 스님들의 집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정도다. 연변의 유일한 절인 정각사는 중국인이 세운 사찰이며, 교회는 30여개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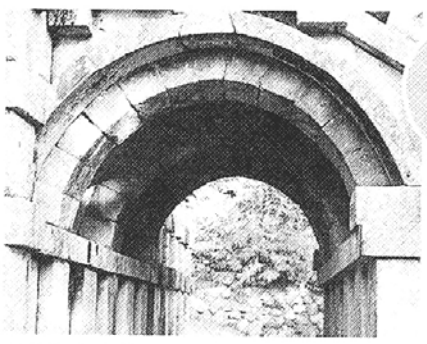
"95년 정각사 점안식 때 3만명의 조선족이 동참할만큼 불교에 대한 열의가 뜨겁습니다. 2백만 연변자치주 조선족의 정신적 귀의처가 될 수 있도록 고국불자들의 성원을 기다립니다."

정교수는 11일 부산 정각사 초청으로 방한, 통도사 방장 월하스님과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하고 18일 출국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불국사 이중 아치 비밀 밝혀

과학전람회 대통령상 수상 손동찬군



◇손동찬군(원내)이 그 신비를 과학적으로 밝혀낸 불국사 청운교.

불국사 청운교는 왜 이중구조로 만들어졌을까? 불국사로 소풍을 떠났던 손동찬군(안강제일초등학교 6학년)은 청운교의 특이한 구조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손군의 궁금증은 결국 과학기술부가 주관한 제44회 과학전람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손군이 과학전람회에 제출한 작품은 '불국사 청운교는 왜 이중아치 모양일까?'

손군은 청운교 제1아치와 제2아치의 돌들이 서로 반대 방향의 역사다리꼴인 것은 제1아치가 횡압력을 받았을 때 위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이 힘을 상쇄시켜 주기 위하여 거꾸로 위에서 눌러주는 제2아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중아치 구조물은 지진이 나면 두 개의 아치가 서로 밀착해 천재지변에 강하다는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불국사의 기반이 되는 양산단층 근처에서 지난 2천년동안 529회나 지진이 발생했으며, 779년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가 매우 커서 집들이 파괴되고 1백여명가량이 숨졌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신라경덕왕 10년(751년)에 김대성이 축조한 불국사의 청운교를 지금 후손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손군이 밝혀낸 이중아치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다.

과학전람회 심사위원장 채영복박사는 "손군의 예리한 관찰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 평가해 대통령상을 수여했다"고 말했다. 이윤호·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교차로 재가

중앙도서관서 독서법 강연



김종규 삼성출판사 회장은 16일 국립중앙도서관 문화학교에서 '청소년 독서지도 이렇게'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보리방송모니터 지부장에



오종근 전북산업대교수는 17일 전북불교회관 2층에서 80여명의 불자들로 구성된 보리방송모니터회 전북지부를 결성하고, 지부장직을 맡았다.(0652)271-5530

파리서 경전 전각 전시



최규일 전각가는 11월21일부터 12월5일까지 프랑스 파리와 라볼르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금강경〉 〈법구경〉 등의 경전 전각 작품과 전각화가 전시된다.

용주사·심복사 문화기행



김현준 불교신행연구원장은 27일 오전7시 경기도 용주사·심복사·만기사로 불교문화기행을 떠난다 (02)582-6613

'의식의 구조조정' 특강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은 15일 서울 송현클럽에서 열린 한국불교문화대학 초정 월례토론회에서 '의식의 구조조정'을 주제로 특강했다.

본동종합복지관장에



이혜숙 철학박사는 1일 본동종합사회복지관장에 취임, 15일 종단산하 복지관장회의에 참석했다.

대불청 대전지구장에



송석범 대불청 대전지구장은 12일 대전 사암연합회에서 열린 제24차 대의원 회의에서 제5대 지구장으로 재선됐다.

'축구사랑모임' 발족



김흥국 불자가수는 16일 '축구사랑모임'을 발족하고, 여의도 라이프 오피스텔 432호에 사무실을 개설했다.

원불교 김대거종사 열반



원불교 최고지도자인 종법사를 지낸 대산 김대거(大山 金大擧)종사가 17일 새벽 전북익산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열반했다. 법랍 70세, 향년 84세. 대산 종사는 15세 때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문하로 출가, 원불교 서울출장소장 교정원장 등을 거쳐 종법사를 역임(62~95년)하며 1백만 원불교도의 정신적 지주로 존경받아왔으며, 종교화합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사자산 적멸보궁 법흥사

중흥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천일기도 및 10만등 불사



우리 나라 5대 적멸보궁의 하나이자
신라 구산선문 가운데 사자산문의 개산 도량이었던 법흥사가
기울어가는 국운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원력을 모아
중흥 불사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번의 중흥 불사로 거듭나게 될 법흥사는
21세기를 준비하는 국민 모두를 위한
희망의 도량이 될 것입니다.

1998년 11월 8일(음 9월 20일) 입재 2001년 9월 20일(음) 회향

법흥사의 중흥불사는 온 국민의 동참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나리의 흥륭과 백성의 편안함을 도모하는 창건정신에 투철할 것이며
참배와 기도를 위한 불자들에게는 내집처럼 편안한 정신적 귀의처가 될 것이며
21세기의 인류를 위해서는 선불교 중흥도량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흥사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422-1 전화 (0373) 374-9177 팩스 (0373) 374-9178

권선문

호선사 사찰 건립불사

부처님은 온 누리에 가득하여 모든 중생에 널리 비추네 인연 따라 미치지 않는 곳 없지만 항상 보리좌를 떠나지 않네……

부처란 명과 상을 떠났으되 충만하지 않는곳이 없으며 시방과 삼세를 초월하였으되 그 광명이 법계에 창일하여 일초일목이라도 그 은혜에 젖지 않음이 없습니다.

재재처처가 불찰불신이오 삼라만상이 청정법신입니다……

어느곳 어디엔들 상적광토가 아닐 수 있겠읍니까마는 지혜가 암둔하고 업장이 후중한 우리 중생들로서는 동정을 같이 하는 부처를 부처로 볼줄 모르며 청정법신속에서 호흡을 같이하고 살면서도 청정법신의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기 그지 없고 담담하기 한량 없는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찰이 하나 초창되었다는 말은 부처의 화신이 하나 새롭게 나타났다는 말과 같은 것이며 질은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는 도량이 또 한군데 건립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찰이란 대중이 공동으로 마음에 물어 있는 후중한 진구를 세척할 수 있는 선지이며 대도만행을 고루고루 수행하여 정각의 절정에 오를 수 있는 신성 장엄한 영장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에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41번지 유명산내력 대부산 줄기에 건립하고저 하는 호선사 대웅전 요사채 연수원 유치원 건립은 참으로 그 의의 자못 중대하기 이를데 없고 그 사명과 책임 진실로 언어도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리이타의 대원이 구현 성취되어야 할 것이며 일시성불의 대과가 이곳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누적의 죄업이 여기서 해소되어야 할 것이며 내성의 정진으로 증오의 불과를 여기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안목을 열 수 있는 명안 종사가 이 도량에서 쏟아져 나와 격외의 고준한 설법으로 미륜을 제도하는 부처님법회가 끊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며 강론 현담으로 항상 법륜상전의 계기가 마련되어 고해에 허덕이고 있는 중생을 상락아정의 언덕으로 인도할 수 있는 법열의 연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찰 건립의 기본 정신이며 수행납자의 본분 사명일 것입니다. 이러한 원대실현한 뜻으로 이곳에 사찰을 초창함에 있어 물심양면의 다대한 원호아래 오늘 청신남청신녀 불자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오며 사회 유지 여러분의 정성어린 후원을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원만히 건립불사가 이루어지길 본사 주지 덕산스님의 지대한원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41번지
호선사 주지 석 덕 산 합장
☎ 018) 359-3573
■ 온라인 번호 : 농협 711-02-017227 (예금주:이병훈)

한국통신불자회 전국연합회 닻 올린다

이달중 분당 새청사 법당에 사무실 마련
18개지회 10월 18일 모임서 구체 논의

한국통신불자회(회장 김문수)가 최근 경기도 분당 신청사에 법당을 마련하고 전국연합회 결성의 닻을 올렸다. 10월 18일에는 대전에서 전국조직 결성을 모색하는 연합대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통신불자회는 현재 본사, 서울혜화동전화국, 서울번호안내국, 북전주, 정읍, 군산, 대구진여회 산하 7개 전화국, 대전, 충남본부, 청주, 부산 전화국 등 전국 18개 지회가 활동중이며 경주전화국은 결성중에 있다.

'10개 지역본부 4백여 전화국 6만 5천여 직원에게 법음을 전파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22일 창립법회를 갖고 공식출범한 본사불자회는 연초부터 전국전화국불자회 임원단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올해안에 전국연합회를 결성키로 한 바 있다.

이에따라 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지부창립작업에 박차를 가해온 한국통신불자회는 올해내 전국조직을 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지역은 한국통신 본사불자회를 중심으로 혜화전화국불자회와 서울번호안내국불자회가 합동으로 남양주 봉선사에서 합동법회를 갖고 화합을 다지는 등 지역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전국조직화에 중심이 돼 힘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달중에 분당 신청사에 자체법당을 마련하여 연합회 본부로 사용할 계획이다.

전북본부의 경우 8월 1일 금산사에서 20여명이 참가 전북지부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는 빠른 시일내 전북지부를 발족키로 하고 회장에 홍득표부장(전북본부 마케팅국)을 선출했다. 홍회장은 "기존의 3개 전화국 불자회를 주축으로 전주 부안 순창등 전북지역 18개 전화국에 불자회를 창립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진여회도 전상윤(대구전화국 건설국)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등 조직강화에 힘쓰고 있다. 진여회는 조직에 포교국을 두고 원래 불자회가 운영됐던 전화국부터 재창립작업을 하고 있다.

김문수회장은 "전국연합을 구성키 위해 본사불자회의 활성화에 노력해 왔다"며 "이미 결성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불자회와 연대하여 불교포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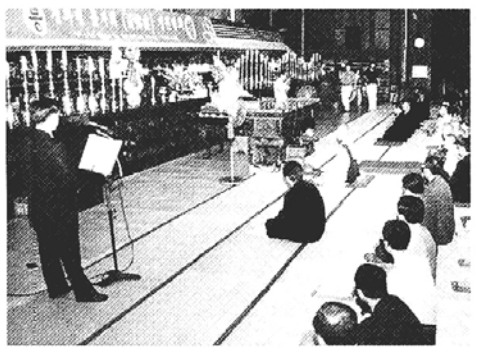
국회보좌진 용문사 순례

국회보좌진불자회(회장 정병국)는 27일 양평 용문사에서 사찰순례법회를 갖는다.

국회보좌진불자회 회원 및 가족 50여명이 참가할 예정인 이날 법회에서는 용문사주지스님의 법문을 들을 예정이다. (02)784-3860

한일은불자회 창립 12돌

한일은행불교신행회(회장 한우진) 창립12주년 기념법회가 26일 호우 4시30분 한일은행 본점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법회는 금융단불자회 제20회 합동법회도 함께 열리며 봉선사 주지 밀운스님이 법문할 예정이다. (02)553-1801



◇제2기 청와대불자회 개원법회가 16일 조계사에서 개최됐다.

"참선 생활화 · 불교권익 수호"

청와대불자회 16일 개원법회

청와대불자회(회장 김태동수석)는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인곡(태고종 총무원장) 성초(진각종 통리원장) 홍파(관음종 총무원장) 현근(조계사 주지) 지선(백양사 주지)스님과 성낙승 불교방송 사장, 박철언 자민련불자회장, 한영애국민회의 부총재, 추미애 조성준의원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원법회를 개최했다.

진제스님은 법어를 통해 "참나의 마음자리를 밝히는 참선수행을 생활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며 '禪海日花(참선의 바다는 한송이 꽃과 같다)'라는 휘호를 청불회에 전달했다.

김태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다운불자가 되기위해 열심히 정진하고 불교권익보호에 노력하는 불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내 사업계획 확정
3개 분과위원장 선임

불교언론인회 운영회의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신광식)는 16일 운영회의를 열고 연내 사업계획 수립과 각 분과위원장을 선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관광부 장관 초청간담회 △원로스님 초청법회 △지도법사 위촉등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법보신문 사태 중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분과위원장에는 섭외 · 홍보 분과위원장에 위영란 현대불교 취재부장, 조직분과위원장에 하춘생 주간불교차장, 사업분과위원장에 박찬 서울신문 문화부장을 선임했다.

한편 한국불교언론인회는 26일 열리는 부산 · 경남지부 결성 발기모임 지원책도 논의했다. 이영구 BBS국장과 부산일보 이진구위원이 주축이돼 준비중인 부산 · 경남지부는 불교언론인회 첫지부로서 10월경에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 · 광주불교산악회
도선사서 합동법회

200여명 화합한마당 행사



◇서울 · 광주 불교산악회 합동산림법회가 13일 도선사에서 열렸다.

서울 · 광주 불교산악회는 13일 북한산 도선사 청담대종사 사리탑에서 2백여명의 회원들이 참가, 합동 산림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 도선사 주지 동광스님은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가 불교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도법사스님을 모시고 신행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불교산악회,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 서울동부불교산악회, 서울북부산악회등 4개 산악회 합동 산림법회는 도선사를 참배하고 용암문 북한산장을 거쳐 우이동까지 산행했으며 화합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탐방 부산불교실업인회

불심경영으로 이윤 사회환원

의사 · 상공인등 회원 140명
가족동반 월례법회 자랑
장학사업 · 병원불사 앞장



◇부산불교실업인회가 주최한 경제인초청강연회에는 지역 상공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IMF의 거센 격랑에 경제와 기업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법을 삶의 철학으로 격랑 앞에서도 더욱 고요하고 의연하게 정진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서춘석 · 중앙병원장) 회원들이다. 의사, 상공인 등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지만 매월 열리는 월례법회시에는 신분도 직업도 내려놓고 일심으로 부처님법에 귀의할 뿐이다.

부처님 법이 좋아 모인 1백8명의 실업인들은 91년 2월 불법홍포와 사회봉사를 위해 부산불교실업인회(초대회장 故김정태)를 태동시켰다. 그동안 자신들이 사회에서 얻은 기업이윤의 환원을 위해 부산불교방송 설립, 불교발전강연회 개최, 장학사업 등의 사업을 펼쳐왔으며 불교병원 설립이라는 커다란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불교병원은 앞으로 2~3년내에 부지와 병원 건립비용 등을 마련해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 병원을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는 자비실천의 장으로 꾸려갈 예정이다. 소외받은 불자들의 치료에서 장례절차까지 총망라한 병원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1백40여명으로 늘어난 회원들은 밖으로 내색하지 않고 불사에 동참하며 특히 어려운 사찰에 보시하기를 기뻐한다. 보시의 기쁨을 배우고 마음을 비워가는 정진을 위해 월 1회 전국의 사찰 순례법회, 년 1회 출가 경험 수련법회 등을 반드시 가족동반으로 하고 있다. 가족동반 법회를 통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들이 회원이 되고 또 며느리가 회원이 되는 등 대를 잇는 회원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월례법회는 더욱 정겹고 따뜻하다. 가족전체가 일년이면 40여군데의 사찰을 다녀오고 법문을 듣게 되는 이 월례법회를 통해 다져진 신심은 경영이나 생활에 자연스럽게 이어져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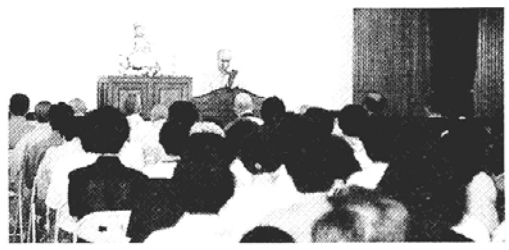
박영근 총무이사는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에 앞장서는 모임이 될 것"이라고 보살행을 다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동산스님 문집 봉정식

동산대종사문집편찬위원회(위원장 덕명)는 17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문집 봉정식을 가졌다.

이날 편찬위원장 덕명스님은 "늦은감이 있지만 이번 문집 간행이 동산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청정수행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강암 회주 벽파스님, 범어사주지 성오스님을 비롯한 문도 2백여명이 동참한 봉정식에 이어 문도회의를 갖고 범어사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작구민 위한 안녕기원법회

동작구불교연합회(회장 혜철스님)는 11일 서울 동작구청 대강당에서 동작구민 안녕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혜철스님은 "어려운 때일수록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불교연합회 법주 혜성스님, 고문 아응스님을 비롯하여 만화(미타사) 도각(사자암) 법흥(법흥사) 법광(관음정사) 혜일(청룡사) 월산(기원정사)스님과 김우중 동작구청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가했다.



정태혁박사 논총집 '인도철학…' 출판회

향운(香雲) 정태혁 박사(동국대 명예교수)의 논총집 〈인도철학과 불교의 실천사상〉 출판강연회가 15일 동국대 문화관 그릴에서 열렸다.

이날 출판강연회에는 원의범 동국대 명예교수를 비롯 법산스님(동국대 불교대학장) 해주스님(동국대 불교학부교수) 등 정박사의 지인(知人)과 제자 50여명이 참석, 논총집 출판을 축하했다.



김종표 사진이야기 '와우정사' 전

김종표 사진이야기 '와우정사' 전이 13~16일 예총회랑 제1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샤샨크(Shashank) 주한 인도대사, 김해곡 열반종 총무원장, 공종원 前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사진애호가, 불자들이 다녀갔다. 김종표씨는 "풍경소리의 단아함과 고요함, 넓고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와우정사를 통해 표현해 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 지도자 양성 교육기관

불교레크리에이션 포교회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지도자 제 10기 수강생 모집 -

21C 한국불교를 짊어지고 갈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어린이 · 청소년 법회 지도교사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 불교를 레크리에이션에 접목시켜 좀더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전달해서 불교 포교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지도자 교육을 개설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강 의 개 요

1. 대 상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레크리에이션에 관심 있으신 분
2. 교육기간 : 1998년 9월 22일 (화) ~ 12월
3. 교육일시 : 매주 화, 목 오후 7시~9시, 매월 1회 토요일 특강
4. 교육장소 :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조계사 건너편)
5. 구비서류 : 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2매
6. 개 강 일 : 1998년 9월 22일 (화) 오후 7시
7. 참 가 비 : 30만원 (교재비, 재료비, 실습비 포함)
8. 특 전 : ① 월요강좌 참석 ② 각종 이벤트 참가 ③ 2급 지도자 응시자격 부여(과정 60시간 이수자)
9. 교육내용 : - 불교 레크리에이션론 - 심성계발 program - 찬불가 - 음악(악보보기, 동요, 가요, 응용-싱어롱) - 리더십 -레크리에이션론 - 모임의 진행 - 프로그램의 작성 - 레크리에이션이벤트(레벤트) - 캠프 - 오리엔티어링 - 하이킹 - 만들기 - 게임 - 춤(민속춤, 레크리에이션 춤) - 지도자의 자세 - 전래놀이 - 종합실습
10. 문의 및 접수 :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사무국

종로구 관훈동 177번지 대형 B/D 202호

☎ 02)738-7860, 730-7525 FAX 02)738-7863

▶ 온라인 접수 - 국민은행 023-21-0570-895 (예금주 민병도)

불 교 레 크 리 에 이 션 포 교 회

설조스님에게 드리는 공개 요구서

1. 설조스님은 이중호적, 직무유기, 종단 미승인 재산 임대, 분담금 과도 체납(총 2,854,705,614원), 관람료 관련 비위(종단 승인없이 공동 예치금 인출 사용, 관람료 개인명의 통장에서 관리), 직무유기, 종단 미승인 재산임대 등의 건으로 98년 5월 22일 제15차 초심호계원에서 제적의 징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설조스님은 불국사 주지 소임 수행중 1996년 불국사 중앙종회의원 보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호법부에서 진상조사를 받던 중 스님 스스로 이중호적에 대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총무원 총무부에서는 98년 2월 6일자 대불총총 제77호, 3월 10일자 대불총총 제189호, 4월 3일자 대불총총 제265호를 통해, 설조스님 스스로 이중호적 문제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요청의 내용은 어머니 장탄순, 생년월일 1931년 12월 25일생, 전북 김제군 금산면 쌍용리 481번지로 되어 있는 현재의 위조된 호적을, 원호적인 아버지 이칠길의 아들 이규성, 1942년 4월 2일생,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임천리 148번지로 바르게 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조된 호적에 의하면 설조스님은 만 6세에 사미계를 수계(1948년에 수계)한 것으로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종도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3. 하지만 설조스님은 불국사 주지로 재직중인 상태에서도 이러한 거듭된 공문에 대해 일체의 회신은 물론 정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종단 승적 업무를 혼란시키는 비양심적 행위일 뿐 아니라 종헌 종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거듭 말씀드리며, 총무원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회신이 없음에 따라 부득이 신문지상을 통해 공개 요구를 하니, 조속한 기일내에 이중호적과 이중승적에 대한 정정조치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회신해주기 바랍니다.

불기 2542(1998)년 9월 1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강정우군 사건은 나라 전체를 경악시킨 충격 그 자체였다. 아무리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아버지가 자식의 손가락을 잘라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7월에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가 요구르트에 농약을 타 자식을 숨지게 한 사건까지 있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자식들이 이젠 돈 앞에서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세상. 황금만능주의와 IMF한파는 우리의 전통적 가족관계를 범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온 윤리와 인간성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이렇게 들었다

▨부모는 다섯 가지로 자식을 경친해야 한다. △자식을 제어하여 나쁜 짓을 하지 않게 할 것 △착한 것을 가르쳐 줄 것 △학과 도를 가르쳐 줄 것 △좋은 며느리를 구할 것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다. 〈장아함 선생경〉

▨천신이 이번에는 모양이 같고 크기도 비슷한 말 두 필을 가져와서 물었다. "어느 것이 어미요, 어느 것이 새끼인가?" 대신(大臣)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었다. "풀을 주어 먹게 해 보아라. 어미는 반드시 풀을 밀어 새끼에게 줄 것이니라." 〈잡보장경〉

인륜 "서로 공경하며 고락 함께하라"

▨"무엇을 가족이라 말하는가? 선남자가 집에 살면서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에는 뜻을 모아 같이하는 것을 가족이라 말하느니라." 〈잡아함경〉

▨친족끼리 서로 친근하고 공경하면서 서로 돕고 고락을 함께 하도록 하면 이것으로 북방(北方)이 안온할 것이니, 이것이 북방에 대한 예배니라. 〈육방예경〉

▨부자·형제·부부·친족간에 항상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여 질시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안색은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해 주어야 한다. 〈무량수경〉

▨친족의 그늘은 시원하도다. 석가 종족은 부처인 나를 낳았으니 석가족은 모두 나의 가지요 잎이라. 그러므로 나는 이 나무 밑에 앉았노라. 〈증일아함경〉

▨선인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을 사랑하는 것이다. 〈출요경〉

▨능히 신앙을 지켜 가정이 화평하고 편안하면, 현세에 경사가 있어서 복이 저절로 좇아오게 마련이다. 복이란 행위에서 오는 과보일 뿐, 결코 신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다. 〈아난문사불길흉경〉

▨부모를 잘 봉양하고, 처자를 아끼고 보살피며, 올바른 생업에 정진하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대길상경〉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생활공동체에는 그 자체를 밝혀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한다. 진실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다. 〈대반열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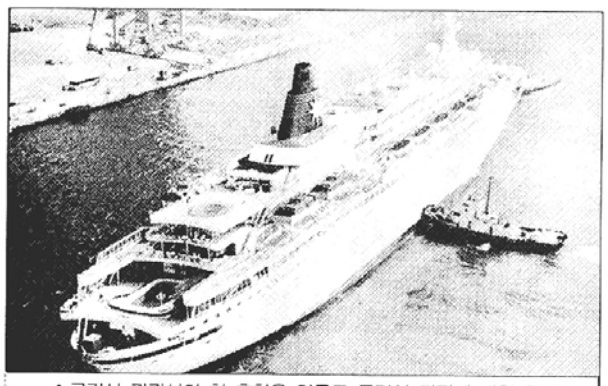
▨세상의 온갖 바르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과정을 보건대, 여러 바르지 않은 종류의 일과 여러 바르지 않은 부류의 일이 다 마음이 앞장서 인도하는 탓으로 일어남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나쁜 마음이 일어나면 악하고 바르지 않은 일들이 다 그 뒤를 따라 생기는 까닭이다. 〈본사경〉

▨차라리 날카로운 칼날로 팔을 찌르고 살을 베든가, 불 속에 스스로 몸을 던질지언정 삼가 악을 행하지 말며, 차라리 수미산을 머리에 이어 그 목숨을 잃든가, 대해에 몸을 던져 고기·자라에게 먹힐지언정 삼가 악을 짓지 말도록 하라. 〈인욕경〉

열린마당

금강산 관광

애초 25일 예정이었던 금강산 관광선 출항이 다음 달로 미뤄진 가운데 금강산 관광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관광수입이 군사비로 쓰이는 것을 막을 대책도 없이 금강산 관광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고액의 대북 지불요금, 많은 행동규제 등 관광 내용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은만큼 일단 시작해놓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계획대로의 추진을 바라는 의견도 많다. 금강산 관광에 대한 불고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금강산 관광선의 첫 출항을 앞두고 금강산 관광에 대한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금강산 관광객을 실어나를 '현대 금강호'.

교류여건 미성숙 출항보류 마땅

지성〈태고종 총무부장〉



결론부터 말하자면 금강산 관광은 보류해야 마땅하다. 왜냐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인연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금강산 관광은 시기적으로·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국민정서에도 위배되는 처사라 아니할 수가 없다. 우리는 지금 6·25 동란 이래 최악의 경제난국에 처해 있다. 무역적자는 자꾸만 불어나고 실직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 모두가 생활고와 실업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데, 대규모·호화관광을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다음은 관광에 의해 지출되는 우리의 돈이 자칫 이적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무력강화에만 집중하고 있다. 우리에게서 관광수입으로 들어들인 돈을 전력강화와 무기개발에 쓰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다.

끝으로 금강산 관광이 통일의 촉매작용 또는 물꼬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착각에 불과하다. 통일은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통일은 이해타산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 하나가 된다는 큰 틀과 큰 차원의 대화를 통해야만 가능하다.

여행약관등 불리 신중하게 추진

혜인〈불심사 주지〉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금강산의 전경을 담은 화보라든가, 금강산 갈 때 입을 옷 등 여러 측면에서 금강산 관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사실 이산가족 1세대들에게는 꿈에도 그리던 고향땅 이북을 밟아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을 보면 남북화해의 물결을 유도해내는 역할보다는 상업적 논리를 더 많이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려운 국내경제 상황에서 한꺼번에 많은 돈이 금강산 특수에 묶이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금강산 관광 자체는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의 새로운 교류형태로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금강산 관광은 불분명한 요금책정으로 관광비용이 턱없이 비싸고, 여행약관이 불리하게 이뤄지는 등 이산의 아픔을 금강산 관광으로 달래보려는 이들에게 또한번의 아픔을 줄 수도 있다.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번 금강산 관광이 일시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을 위한 전초작업의 하나로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다.

남북대화 재개에 긍정적 역할할듯

송석구〈동국대 총장〉



IMF체제 편입 이후 대북경협 사업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금강산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정기적인 직접 왕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 당국자간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뤄져 남북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김정일 체제의 공식 출범에서 나타난 한·미·일 대북 정보능력의 심각한 허점이 보여주듯이 폐쇄적이고 돌출적인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는데는 인공위성 등 첨단장비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화를 통하여 돌출적인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이다. 만약 금강산 개발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할 경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대북 감정을 더욱 악화시켜 남북경협은 물론 햇볕론과 정경분리 정책은 중대한 난관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이번의 금강산 관광은 우리 정부의 정경분리 정책의 첫 시범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일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이벤트성 사업이 아니라 통일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입국의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로 가는 첫 발 북한이해 계기로

정해숙〈前 전교조 위원장〉



우리 사회는 요즘 유람선을 타고 금강산에 가는 꿈에 부풀어 있다. 실향민들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심정을 그 누가 감히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적십자 정신을 불러 일으킨 앙리 뒤낭은 전쟁터에서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끼져가는 생명 모두에게 의술을 펼쳤고 오히려 빵도 적국 환자의 입에 먼저 넣어주는 등 지고한 생명존중의 도리를 실천했다. 우리는 하루빨리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버리고 금강산을 포함한 북한의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따뜻한 가슴을 안고 유람선을 타도록 노력해야 한다.

통일운동은 서로를 존중하는 운동이며 진정한 평화운동이다. 남북이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물질이 풍요하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진리를 모르는 것이 참으로 가난한 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 실향민의 말이 잊혀지지 안는다. "북한에 대한 어떤 걱정도 한반도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는 군사분계선의 존재보다 클 수 없다." 군사분계선은 남침위협의 상존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의 외화벌이보다, 미사일보다 두려운 대상이라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이 군사분계선을 허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금강산行 비용 평균 130만원

일부 반대여론…정부 "반드시 성사"

지난 6월 15일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의 '금강산 관광' 발언은 온국민을 흥분케 했다. "이르면 올 가을부터 금강산 관광이 가능할 것이다."

이후 현대와 북한, 그리고 우리 정부와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났으며, 요금도 북한에 지불할 3백달러를 포함해 등급에 따라 97만원~3백만원선으로 잠정 결정됐다. 관광객 비율도 실향민을 포함한 경로고객 50~60%, 일반인 20~40%, 외국인 등 교포 10~15%로 정했다. 2천명이 탈 수 있는 배도 들여왔다. 마침내 25일 금강산 관광선의 첫 출항을 예정했었다.

출항 연기의 가장 큰 이유는 관광요금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관광객 모집일정이 순연돼 첫 출항일이 이달 말이나 10월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외항면허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부가세 등이 부과돼 관광비용이 현대가 책정한 평균 1천달러보다 2백~3백달러 이상 올라간다. 그렇지 않아도 비싸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현대는 내항면허 발급을 바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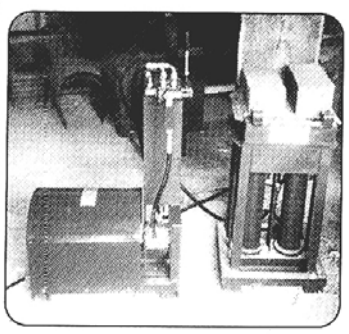
또 일부 정치권의 금강산 관광사업 보류 주장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나라당 조웅규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90명은 9일 강인덕 통일부장관에게 △금강산 관광구역내에 이산가족 만남의 장 설치 △대북 지불요금 인하 등이 선결될 때까지 추진중단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강 장관은 "금강산 관광사업은 정부의 1백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이니만큼 오해가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금강산 관광사업의 의미와 효과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금강산 관광의 추진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비디오 촬영 불허, 지정장소에서만 사진촬영, 관광요금의 전액 현금선불 등 까다로운 관광수칙과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3백불에 이르는 금강산입산료와 장전항 사용료도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황토흙벽돌기계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사용간편 5분교육후 생산 여성, 노약자등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이외규격은 별도주문생산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앤진사용
- 편리한 생산, 저렴한 가격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 황토관련 전문회사 봉송 황토마을 소개
향토주택시공, 토굴시공, 찜질방시공 및 구들시공, 기타황토관련제품을 생산하며 황토학교를 개설하여 황토주택시공법등 다양한 집 짓기교육을 매월 2박 3일 일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믜공해주택인 황토집짓기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34-0223 / 팩스 : 0671)34-1237

황토 토굴

생명의 친화성을 가진 흙중의 흙 - 황토!
황토 토굴은 오랫동안 한곳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맑은 정신과 편안함을 주며 생체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낄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질"인 것입니다.



●황토 토굴 1 3평형 2 5평형
「선조님들의 토굴방 그대로」
황토의 효능을 느끼지 못하시면 전액 환불하여 드리고, 「무료관리」를 약속드립니다.

황토 토굴 사업본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H: 017)585-6045
FAX: 0551)283-6531

'나무아미타불'을 염(念)하면 누구나 극락왕생할 수 있다!

극락왕생을 위한
염불의 의미와 공덕

극락왕생을 위한 가장 손쉽고 공덕이 큰 수행법!



128쪽 값 3,000원

▶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가?
▶ 염불을 통해 극락왕생한 사람들의 이야기!
▶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극락왕생할 수 있는가?
▶ 염불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종로구 청진동 6번지 T. 720-9372, 3



"후손들에 '고건축문화' 전해야죠"

한국건축박물관 짓는 전흥수씨

10월 24일 예산 덕산면에 1차 개관
사재 1백억원 들여 2002년 완공

"수덕사 대웅전, 부석사 등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훌륭한 건축물을 많이 지어왔지만 조상들의 슬기와 기능을 전승발전시키지 못하고 당대에 끝나고 만 것이 아픈 교훈으로 생각돼 한국건축의 역사와 체취를 느낄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어야겠다는 원력을 평생 가슴에 품어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동리 산 23-4에 '한국건축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는 전흥수 한국문화재보전수리기능협회장(61)이 그 1차 개관을 10월 24일 갖는다. 내년이 바로 '건축문화의 해'여서 한층 의미가 깊은 '한국건축박물관'은 총 5천여평 대지에 연건평 1천여평으로 모두 11개 동의 건물이 지어질 예정.

이번에 개관하는 건물은 본관과 요사채 2개동으로, 개관에 맞춰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문화재보전수리기능인협회원들의 창립 10주년 기념 특별전도 개최, 목각 석조 탱화 등 2백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최첨단 서양식 건축만 제일인 줄 아는 젊은층에게 우리 고건축의 우수성 등 전통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싶어요. 파괴되고 소실된 유산은 어쩔수 없지만 현재 남아있는 문화유적만이라도 잘 보존해 후손들에게 그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이 우리 기능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재 1백억원을 들여 건립되고 있는 박물관은 제1전시관(본관), 사진전시관, 사대부가옥, 평민가옥, 초가삼칸, 중국관, 일본관, 연수원 등 한국의 모든 건축술과 건축미가 응집되며 이 대역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오는 2002년.

전시관에는 사찰 등 고건축의 미니어쳐와 건축에 쓰였던 기구 등 우리나라 건축에 관한 모든 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전시되어 시대별 건축발달사를 보여준다. 또 한국건축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전수장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해외교포들에게 우리 문화의 얼과 문화를 체험하는 산 교육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10월 24일 개관식을 갖는 '한국건축박물관' 본관의 전경.

전흥수회장은 18세의 나이에 한식목공(韓式木工)분야에 입문, 1955년 대목장 故 김중희선생을 만나 기능을 전수받았다. 전통장인들 대부분이 그러하듯 생활고와 주위의 무관심등으로 어려운 시절을 겪었으나 오로지 불심과 전통문화를 이어가겠다는 집념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다. 전회장은 좌절할 때면 항상 사찰을 찾아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단아한 고찰의 모습을 대하노라면 어느덧 평정심이 되찾아지고 힘을 다시 얻곤했다며 '한국건축박물관' 원만회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불심시심 〈145〉

북극성을 삼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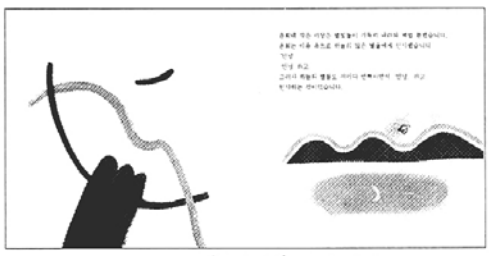
慮陵山水其蒼蒼 (여릉산수기창창)	여릉의 산수는 아마도 아슬하지만
三笑遺風尙不亡 (삼소유풍상불망)	세 사람의 웃음은 유풍으로 아직 남아
明月近人留淨界 (명월근인류정계)	밝은 달 사람에게 가까워도 청정계 머물고
詩朋同我宿禪牀 (시붕동아숙선상)	시 친구는 나와 함께 절 침상에서 잔다
雲晴天抱魚龍氣 (운청천포어룡기)	구름 개인 하늘은 어룡 기운을 안고
夜靜樓含斗極光 (야정루함두극광)	밤 고요한 누대는 북극의 빛을 삼킨다
愛國誠深今作客 (애국성심금작객)	나라 사랑 정성 깊어 지금은 나그네라
夢魂應復繞高堂 (몽혼응부요고당)	꿈은 응당 부모 처소를 맴돌겠지요.

징월대사의 '높은 벼슬아치에 차운한(次都大雅)'라고 한 시이다. 여름의 동림사에 머물고 있던 혜원(慧遠)이 도연명과 육수정을 만나 호계를 넘지 않겠다던 약속을 깨고 건너버려 웃었던 것처럼, 오늘 나도 지기의 손님을 맞아 격 밖의 일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서두를 삼았다.

밝은 달이 아무리 사람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청정의 저쪽 세계에 머무는 것이지,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어쩌면 속계의 손님과 자신의 거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듯하지만, 한편으로는 두 사람의 인품적 고결성을 은연중에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사람의 그러한 거리를 오늘은 한 자리로 당겨놓았다. 그것은 시로서의 친구이기에 또한 가능하다. 이 시의 친구(詩朋)의 밀착이 돋보인다. 구름이 걷히면 하늘도 개었다 한다. 이때 하늘은 구름을 대신하여 용의 위력을 갖는 것이다. 지금 이 벼슬아치는 임금의 위력으로 상징되는 어룡의 기운을 대신하는 것이다. 밤이 깊은 누대는 북극의 빛을 독차지하여 더 장엄하다. 북극의 빛을 삼켰다 하였다. 이것이 모두 지금 친구로 찾아준 유가의 대가에게 있다. 손님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잘도 표현하였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자연을 조화롭게 풀이하는 시인의 묘수인 것이다.

한편 시어의 공간 구성도 매우 치밀하다. 하늘이 어룡의 기운을 안았다 하였으니, 아래를 위의 공간으로 끌어올렸고, 누대가 북극성을 삼켰다 했으니, 위의 공간을 아래로 당겼다. 모두 중화의 위치로 정돈시켰다. 이 또한 자연을 내게로 이끄는 스님이나 시인의 사상적 의태이다.

이종찬 〈동국대 명예교수〉



◇그림동화 '별이야기'의 한 장면.

"자녀들 동심 키워주세요"

고은 글-한수련 그림 그림동화 '별이야기'

"나도 너만 했을 때였단다…, 그렇지, 내가 다섯 살 때였던가…, 하나 둘 셋 하고 별을 세다가 그만둔 적이 있었지." "몇 개까지 셀 수 있었는데요?" "응, 처음에는 마흔몇 개까지 셀 수 있었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삼천 개까지 세었다는구나."

아이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별나라가 무척 넓다고 느끼면서도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마치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별 때문이었습니다.

여명출판사의 '너랑나랑 창작그림동화' 시리즈 〈별 이야기〉. 시인 고은 할아버지가 어렸을 적 고운 밤 하늘의 별을 세며 누렸던 기쁨을 생각하며 아이들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글을 썼다. 이 아름다운 동화에 서양화가 한수련씨가 화사한 색상에 유화의 부드러운 감촉으로 옷을 입혔다.

엄마와 함께 읽는 사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태어나기 훨씬 전인 먼 옛날 옛적의 별빛이 먼길을 쉬지 않고 달려와 자신의 눈에 초롱초롱 빛나고 있음을 아이는 알게 된다. 그런 밤하늘의 별을 〈별 이야기〉이야기는 더욱 아름답게 수놓는다.

"밤 하늘의 별을 보면서 멀고 먼 우주의 저 작은 별을 꿈꾸는, 동심으로 가득한 자녀로 키워 보시는 게 어떨지요…."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경주유물 보관동' 짓는다

경주문화재硏, 5만여점 수장계획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99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경주지역 출토 유물 5만여점을 수장할 경주출토유물보관동 건립을 추진 중이다.

70년대부터 황룡사지 황남대총 등 경주지역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그동안 경주시 구황동 황룡사지에 위치한 조립식 가건물 3개동 4백20평에 보관 관리되어 왔다. 이러한 관리방법에 대해 각계에서는 5만여점이 넘는 유물들이 가건물에 보관되고 있는 것은 도난과 훼손에 대한 방치라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총 88억원이 투입될 유물보관동은 연건평 7백5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인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다. 유물보관동은 유물을 보존하는 장소로서의 용도 뿐만 아니라 황룡사지 가건물에 있는 학예연구실과 청사관리실도 옮겨올 예정이어서 문화재관리 및 연구에 대한 효율성 상승효과도 괴하고 있다. 보관동의 야외에는 전시관을 만들어 출토유물의 공개도 가능해진다.

70년대부터 현재까지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은 모두 9만3천여점. 이 가운데 5만여점이 가건물에 보관돼 있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소프라노 이정지씨 가곡음반 '멀리있기'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서정주) '해후(고은)' '멀리 있기(유안진)' '회귀(김지하)' '그건 바람이 아니야(류시화)' 등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들의 서정시들을 노랫말로 한 새로운 가곡 8편이 CD로 출반됐다. 이종구교수(한양대 작곡과)가 곡을 붙이고 소프라노 이정지씨가 노래한 이 음반의 이름은 '멀리 있기'(킹 레코드 제작).

한국가곡의 정형적 서정성에 현대적 감각과 대중성을 더한 이번 음반에서 가사전달이 용이한 새로운 발성스타일의, 이정지씨는 편안하면서도 매혹적인 노래를 들려준다.



청량사지 남매탑 보물지정

문화관광부는 남매탑으로도 불리는 충남 공주시 소재 청량사지 오층석탑과 칠층석탑〈사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284호, 제1285호로 15일 지정고시했다.

청량사지 오층석탑은 단층기단에 5층 탑신, 옥개석을 쌓았고 상륜부는 노반과 보주형태의 부재가 남아있으며, 얇고 넓은 옥개석과 안쪽으로 경사지게 빗깎아 놓은 옥개받침 등이 특징이다. 제1285호로 지정된 칠층석탑은 단층기단에 7층 탑신, 옥개석을 쌓았고 상륜부는 노반만 남아있으며, 옥개석의 2단 층급받침 기법 등이 미륵사지 석탑의 양식을 띠고 있다.

한 사찰내에 각기 특징있는 두 유형의 백제탑 양식을 모방하여 세운 특색있는 조형수법을 보여주는 고려중기의 석탑이다.

문화 단신

보리수합창단 연주회

조계사청년회 보리수합창단은 26일 오후7시 서울 정동극장에서 제20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김회경 이준형 민선희씨 등 객원지휘자를 초청해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1부와 2부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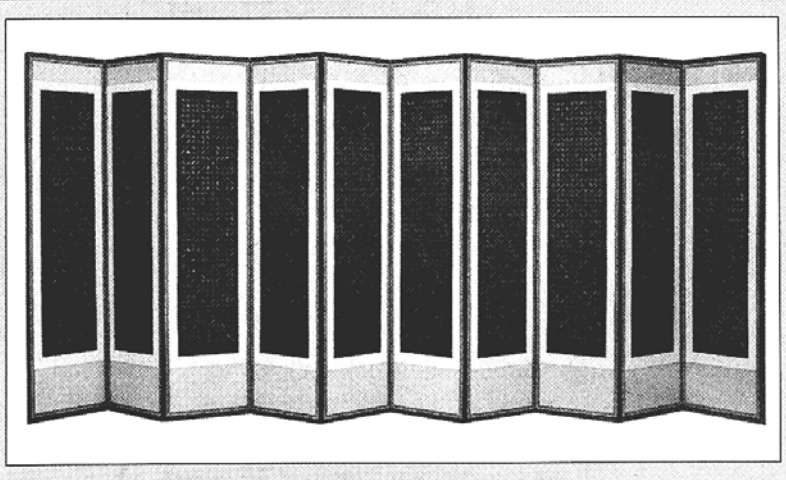
1부는 보리수합창단이 '즐거운 날' '부처님 내게 오셨네' 등을, 정태웅외 5명 중창단이 '광야에서' '상록수'를, 도신스님의 노래와 대금연주가 있다. 2부에는 보리수합창단이 '일심참회' '보리심' '그대 그리워' 등을, 국악인 최규연씨가 국악가요 '연꽃 피어오르리' '민들레'를 부르고 김태곤씨와 원심회의 수화노래가 공연된다.

사찰음식 불국사 전시

한국전통사찰음식연구소(소장 적문)는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맞아 불국사 경내에 특별전시관을 마련, 사찰음식 상설전시와 함께 전통사찰음식 강연·시범실습을 갖는다.

불국사 경내 청운교앞 특별전시관에는 사찰음식의 진수를 알릴수 있는 사찰김치를 비롯 7백여 사찰음식이 교체전시되며 11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오전 10시, 오후 2시 2회)에는 두부 버섯을 이용등 50여가지 사찰음식 만드는 법이 소개된다. (0561)745-0120

금강경金書공단병풍보급



■ 작품
· 전면:금강경(金書)
· 후면:팔상록(金畵)

■ 재질
양면고급비단
스기목/고급죽절
10폭양면병풍

■ 보급가격
₩550,000

■ 석가세존일대기 병풍(8폭)
· 후면: 추사 김정희선생 법필 · 보급가: ₩450,000

■ 大報 부모은중경병풍(10폭)
· 후면: 추사 김정희선생 법필 · 보급가: ₩550,000

· 대를 물려도 뒤틀림이 없는 성보병풍입니다 ·

林泉거사진품 사군자 8폭 병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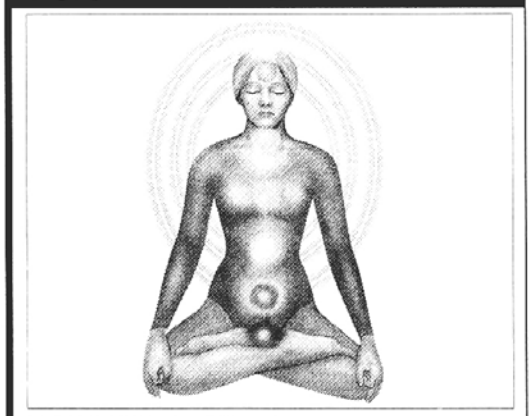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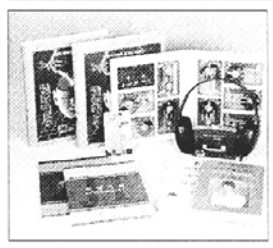
▶ 林泉 朴秀春 作 · 후면: 한시제문 · 특가:₩580,000

불국기획 대표전화 (02)737-0048 공장전화 (0351)877-3540

⊙ 방법을 바꾸면 효과가 빠릅니다. ⊙

수행,공부,학습,기도,능력개발,체질개선...





1 초진언氣파동공명 진동음 특수테이프
2 두뇌잠재능력개발 테이프 (천재기억교재 포함)

(소비자가격:350,000원)

※ 특별할인가 198,000원

■ 국민은행 287-21-0069-284
평화은행 326-24-0000-282 (예금주:이부환)
입금후 전화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든 택배(또는 우편)로 곧 보내드립니다.
*구입하시는 분께는 5가지 선물을 함께 보내 드립니다.(한정분량)
(1.책:묵조선,간화선을 비롯한 각종수행비법을 科學的 시각으로 기록한 국내서적1권+2.책:내면세계탐험(외국번역서)1권+3.소형카셋트+4.헤드폰+5.수행 및 학습용 소음차단 특수마개 2벌)

1. 초자연 氣의 소리 超 파동공명 振動音

▶ 특수한 소리에너지의 비밀

구분	내 용 설 명
內界音 2가지 제작방법	1.불교의 진언중의 기본이며 최고 聖音「음(AUM) :우주창조진동音」소리 2내면(內界)세계의 「차크라의 진동」소리 위의 1과2의 소리를 가청화(可聽化)시켜 합성한후 특수학사관HEXAGON장치를 통과하여 파동공명진동음(超 皮動共鳴振動音)으로 증폭 재현하여 첨저한 현대과학의「뇌파이론」과 결합시킨 3년간의 연구와 개발로 탄생된 작품
파동 공진음의 효과	◆초자연적 音은 무조화상태(정신의 산란 무질서 질병따위)에 있었던 심신이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귀하도록 하므로 연속된 파동공명진동음에 인간이 동조 (同調)작용을 일으키면 뇌파를 알파파는 물론 10년~20이상의 수행자의 경지에서 나타나는 심대의 창조적인 뇌파인 집속한 세타파,델타파까지 내려기게 하므로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삼매상태에 쉽게 이르도록 하며 신체는 氣(생체에너지)가 활성화되어 질병에 대한 자연치유력을 향상시켜 체질개선의 효과 집중력향상,두뇌개발,超학습,잠재능력개발,기도성취,心身聖化,開運.
많은 문헌들에 기록된 내면의 소리와 聖音 옴 AUM의 의미와 위력(偉力)	◆신비음청으로 우주창조音,地球자전音,소울음소리,차크라에너지의 소리 '부처님의 語界 언어로 영계의 에너지를 콘트롤하므로 수행자는 신기하게 집중이 잘되어 삼매의 경지에 이르고 일반인이 외우면 재난이나 질병을 막아주는 부적音 '정신세계에는 영파진동(靈波振動)이 있어나 수행의 높은 경지에 쉽게 이르도록 해줄 뿐 만이 아니라 두뇌가 명석해지고 잠재능력이 개발되며 운이 좋아지게 되고 신체의 일천억개의 세포에서는 강장한 힘의 자기파의 진동이 일어나 생체에너지(氣)가 축적 · 차크라개발.

⊙녹음테이프 구성(총 10개)
1. 심신을 개발 향상하는 7가지의 초·파동공진音 테이프 7개
2. 소원성취의 기도자를 위한 테이프(목탁소리가 합성됨)1개
3. 학습, 공부를 위한 테이프 2개

⊙ 스스로가 놀라게 됩니다. 듣기만 하여도 심신안정과 氣의 작용을 느낄 수 있다.
⊙ 수행,학습,기도등이 지루하지 않고 쉽게 되며 시간이 빨리 흐르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잘 된다.
⊙ 보석이나 백가지 부적(符籍)보다 특수한 소리에너지가 개운(開運)과 소원성취에 훨씬 더 낫다.
⊙ 先사용자들의 감탄과 격찬!-불가사의한 위력과 기적적인 효과를 직접 체험하십시오.' 본 제품(녹음테이프)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구가 아닙니다.

2. 두뇌잠재능력개발 테이프 : 천재기억(24개)

◆내용 : 후천적 천재가 되는길,정신집중법A,B, 뇌훈련, 속독법, 태식, 요가,단전호흡법,건강법,형상화이론,수험생,일반인들이 활용하는 각종기억법,학습기억,무한연상,동시활용법>

21세기 超高(科學) 修行員 ☎ 032)546-2110



'동산대종사문집' 출간

'견디고 참고 기다리자' 동산스님의 좌우명 국난극복의 활력소

'감(堪)·인(忍)·대(待) 즉 견디고, 참고, 기다리자'라는 좌우명으로 험난했던 정화불사의 어려움을 완수해 한국불교를 탄탄한 반석위에 올려 놓은 동산스님(1890~1965). '상송결조 수월허금(霜松潔操 水月虛襟·서리 내린 소나무와 같은 맑은 지조와 물에 비친 달빛 같은 텅 빈 마음'을 늘 지녔던 스님의 법음을 다시 접할 수 있게 됐다.

동산대종사문집편찬위원회(위원장 덕명)는 동산스님 열반 34년만에 〈동산대종사문집〉을 펴냈다. 동산스님의 문집으로는 처음인 이 문집은 1931년 선학원에서 열린 조선불교 선종 제1회 수좌대회 등 스님이 함께 했던 각종 행사의 기념사진과 다비식 장면, 친필 등을 수록한 영상자료와 함께 3장의 본문으로 구성돼 있다.


◇동산스님 영정

본문 제1장 '법어 및 어록 제창'에는 결제·해제법어와 보살계 법어, 종교의 원리 등 각종 법어가 담겨 있으며, 제2장 '서문 외(外)'에는 스님이 직접 쓰신 각종 서문과 발원문, 일기, 법어사 중수기 등이 수록돼 있다. 제3장 '여시상(如是相)'에는 승가와 재가가 바라본 스님의 진면목에 대한 글들을 담았다. 또 스님의 행장과 연보, 용성스님이 동산스님에게 내린 전계증과 전등계보도 실려 있다.

동산스님은 열반하던 날까지 매일 새벽 3시 예불을 시작으로 운력, 공양, 입방선 등의 수행일과를 하루도 빠짐없이 행한 근행정진으로 사부대중에게 모범을 보였으며, 정화불사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납자들을 가르치는 일 못지 않게 대중교화에도 마음을 쏟아 무려 23년간이나 대승보살계 산림법회를 개최한 것으로 유명하다. 발행처는 범어사 (051)508-3127 한명우 기자

만해스님 詩세계 '한눈에'

'한용운시전집' 나왔다

시·시조·동시·선시 등 3백여편 '자유와 평화의 삶' 엿볼 기회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펴낸 〈한용운시전집〉.

청각과 시각의 감성, 오관의 감각을 칼날 같은 촉감 위에 올려 놓아 활홀하고 화려한 시무리들로 시상(詩想)을 창조해낸다. 그러나 거기에는 자연인으로서의 감성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선사로서의 자유자재와 독립운동가로서의 혁명정신, 그 모든 것이 자유와 평화의 삶을 실현하기 위한 보살행이었다.

스님보다는 시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만해스님(1879~1944). 현대 문학계에서 우뚝 선 고전으로 평가되는 〈님의 침묵〉의 주인공.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펴낸 〈한용운 시전집〉(장승 刊)은 그런 스님의 본래면목을 시를 통해 만나게 해준다. 이 시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온 〈님의 침묵〉에 수록된 88수의 시 외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18수의 시, 32수의 시조, 3수의 동시와 한문으로 된 선시 163수 등이 모두 실려있다. 만해스님의 시세계를 한 눈에 조감할 수 있다. 만해스님의 시를 모두 한데 묶은 것은 이 책이 처음이다. 만해시를 망라한 결정판.

만해스님 시의 특징은 시조와 한시, 〈님의 침묵〉의 시들이 각기 장르에 따라 다른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아가 가는 곳은 어디나 고향인 것을/그 몇 사람 객수 속에 길이 갇혔나/한마디 버럭 질러 삼천세계 뒤흔드니/눈 속에 점점이 복사꽃 붉게 지네'

만해스님이 남긴 163수의 한시 중 대표작인 '오도송'에는 돈오의 경지가 '눈 속의 복사꽃'으로 형상화됐다. 그리고 그 '눈 속의 복사꽃'에는 선사로서, 독립운동가로서, 자연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담고 있다.

'세상일 잊은 양하고 낚시 드리운 저 어옹(漁翁)아/그대에게도 무슨 근심 있어 턱을 괴고 한숨짓노/창파(滄波)에 백발이 비치기로 그를 슬퍼하노라'

시조 '계어(溪漁)'에서 스님은 시비분별을 일삼는 선비정신을 꼬집고, '무궁화를 심고자'에서는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며 독립의 의지를 불태운다.

시조와 한시를 통해 끊임없이 독립정신을 노래했지만 〈님의 침묵〉 88편의 시들에서는 시가 '체험하는 생명체'임을 보여준다.

'흔들어 깨는 님의 노랫가락에 첫잠 든 어린 잔나비의 애처로운 꿈이 꽃 떨어지는 소리에 깨었습니다…아아, 佛이냐 魔냐 인생이 티끌이냐 꿈이 황금이냐/작은 새여, 바람에 흔들리는 약한 가지에서 잠자는 작은 새여'(무제)

마음대로 느끼고 생각하면서 그대의 '님'을 사랑하라는 듯 미적 체험의 열락을 누리게 한다. 〈님의 침묵〉 88편의 시들은 '님'을 초대해 한민족의 혈성을 타고 흐르는 서정성을 체험케 한다.

소월시는 김소월을 모르고 읽어도 되지만 만해시는 스님을 알고 읽을수록 그 미적 체험이 강렬해진다. 시집 뒷부분에 만해스님의 시세계를 분석한 윤재근 교수(한양대)의 '만해시를 위한 전야제'를 실어 스님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 시집을 기획한 만해사상실천선양회 명호근 회장은 "스님이 보여 준 독립정신과 문학정신, 그리고 불교개혁사상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대한 화두를 스님의 시를 통해 풀어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집을 펴내게 됐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우리말 금강경 읽으며 행복훈련"

조현춘교수 '한글세대를 위한 독송용 금강경'



〈한글세대를 위한 독송용 금강경〉(불광출판부 刊)은 다른 역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똑같은 경전을 번역하는데 내용이 다를 수는 없는 일. 하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그 하나는 한문투의 어휘들을 현대어로 재구성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금강경 예찬론이나 다름없는 '역자의 변'을 싣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역자가 심리학자라는 점이다.

조현춘 교수(경북대 심리학)는 이 역본을 내기 위해 2년동안 하루 7~8시간을 금강경과 씨름했다. 최소한 천 번은 읽었다. "영어와 한자 금강경을 참고하면서 산스크리트어 금강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한자본과 대조하면서 다시 번역했습니다."

조교수가 이런 열정을 기울인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한글로 된 금강경은 한문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웠다. 50년전의 글투에다 한문 그대로인 낱말의 뜻이 다가오지 않았다. '왜 현재의 우리 언어로 된 한글 금강경은 없는 것일까.'

이런 초발심대로 이 책은 우리말 풀이를 먼저 싣고 원문을 뒤에 실었다. 원문에는 토를 달아 읽기 쉽도록 했다. '역자의 변'에서는 금강경을 통한 행복훈련과 상담심리학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담았다.

한명우 기자

경전속의 미륵불 샅샅이 수록

이소리씨 '미륵경'

석가모니 부처님 입멸 후 56억7천만년이 되는 때에 사바세계에 태어나 중생을 교화한다는 미륵부처님.

이소리씨가 펴낸 〈미륵경〉(모아드림 刊)은 팔만대장경과 〈선불가진수어록〉 〈격암유록〉에 실려 있는 여러가지 구절 중 내세불인 미륵불과 관계된 부분만을 찾아 수록했다. 저자가 파악한 미륵불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은 〈본생경〉〈화엄경〉〈증일아함경〉〈법화경〉〈열반경〉〈석가계경〉 등 모두 6개. 이들 경전에 포함돼 있는 미륵불과 관련한 구절은 한자 원문을 적고 원래의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서 의미를 상세히 밝혔다. 또 설명에 앞서 그 의미를 함축한 제목을 제시해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화엄경〉의 경우 미륵불과 관련한 구절 2개에 '미륵부처님은 당신 가까이 계신다' '미래세에 출현할 미륵부처님 암시' 등의 제목을 달고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형식이다. 180여년전 우리나라 개운조사가 불공화상으로부터 전해받았다는 〈선불가진수어록〉과 격암 남사고가 스승으로부터 전해받았다는 〈격암유록〉에 실린 미륵불과 관련된 내용 역시 같은 방식으로 설명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에는 꽃이피네	법 정	동쪽나라
2	화두, 혜능과 셰익스피어	김 용 욱	푸른나무
3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4	법수로 배우는 불교	이 제 열	여시아문
5	화두 짓는 법	토벙 편집부	토 방
6	남산이 북산을 보고 웃네	맹 란 자	세훈출판사
7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8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9	산승의 향기	이 학 종	운 주 사
10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 룡	효 림

구입문의:(02)737-0695

화제의 책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종본스님 지음

현재를 바르게 살기 위한 전생기억



버지니아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이언 스티븐슨 박사 연구팀은 윤회설에 대한 연구끝에 놀랍게도 전생을 기억하는 20여건의 사례를 밝혀내고, 그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바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짓고, 받는다고 했다. 복도 그렇고 업도 그렇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전생에 관한 갖가지 이야기들을 묶은 책. 과거사를 알고 싶으면 지금 현재를, 미래사를 알고 싶으면 현재 자기의 행동을 살피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이 책도 바로 현재를 바르고 선하게 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펴냈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우리출판사, 7천원〉

화제의 책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강우방 외 지음

석굴암·대장경 등에 담긴 민족숨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 문화재는 어떤 것들이며, 그 가치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석굴암과 팔만대장경을 둘러 보면서도 그저 외형의 장대함에 고개를 숙일 뿐 우리 민족의 숨결을 찾지는 못한다.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은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수원화성, 창덕궁 등 5곳의 우리문화유산을 소개했다.

큼직큼직하게 실린 컬러사진은 전문가가 찍은 사진답게 차라리 작품에 가깝다. 각 문화재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도 자세하게 돼있다. 〈학고재, 1만5천원〉

화제의 책

無를 향해 기어가는 달팽이 박재현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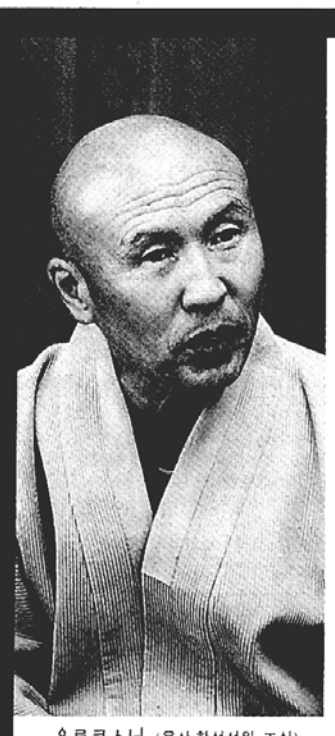
이땅에서 불교는 어떠해야 하는가



〈無를 향해 기어가는 달팽이〉는 불교를 공부하는 젊은 사람이 쓴 산문집이다. 열한 개의 짧지 않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세상을 보고 불교를 생각하고 해제철학을 이야기 한다. 자신의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글들은 생활과 불교를 잘도 오간다. 그래서 문학이 느껴지고 불교가 느껴진다.

불교를 통해 바라 본 세상을 반성하고, 이 땅에서 불교가 어떠해야 할지를 반성한다. 젊은 혈기로 치부하기엔 담담하면서도 냉정한 눈초리가 매섭다.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없음'이다. 하지만 그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無와 空을, 불교를 말한다. 〈시공사, 7천원〉


우룡큰스님 (울산 학성선원 조실)
"기도하는 시간의 길고 짧음보다, 절을 하는 횟수의 많고 적음보다, 마음을 잘 모아 염(念)을 하고 정성을 다해 한배 한배 절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믿음의 주춧돌을 견고히 놓아, 일어나는 번뇌를 좇아가지 말고 정성껏 기도하십시오."

우룡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Ⅰ. 지성(至誠)으로 살자
Ⅱ. 불자의 살림살이
Ⅲ. 불자의 축원
Ⅳ. 불자의 기도
Ⅴ. 일체고액을 벗어나는 길
Ⅵ.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신가요?
관음기도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 알고 계십니까?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B6 / 값 3,500원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많은 불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절에 오래 다닌 불자들조차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신국판 / 값 7,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

"보존차원 넘어 교육현장서 활용"

"성보문화재 보존 주체는 국민"

"테마전시 열어 문화재 관심고조"

"발굴유적 문화자원화 하자"

동국대 '문화재 보존과 활용' 국제심포지엄

발굴유적을 단순히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이를 교육현장이나 정신문화 계발 등의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현재 중국과 일본의 문화재 보존정책은 '효과적 보호와 합리적 이용'이라는 논문이 발표돼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 기본방침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원장 홍윤식)은 18~19일 동국대 90주년기념 학술문화관에서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 21세기를 앞둔 문화재의 재인식'을 주제로 한·중·일 문화재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굴유적의 보존과 활용'으로 발제에 나선 조유전씨(국립문화재연구소장)는 "유적의 발굴 조사 이후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문화재 보존 차원만이 아닌 그 이상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굴유적을 교육현장이나 관광지와 같이 문화재자원화 함으로써 국민의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높여주고, 전통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조씨는 발굴유적을 교육현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례로 경주 황룡사지, 익산미륵사지 등을 들었다. 이어 조씨는 "올바른 발굴유적의 보존과 활용은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정신적 바탕이 되는 우리문화를 보존·계승하려는 성숙한 의식이 갖추어질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성보(聖寶)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서 범하스님(통도사박물관장)은 "불교문화의 보존과 그 활용 문제는 한국문화의 전통계승과 창조를 위한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보문화재의 보존 가치와 의의에 대해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재의 삶과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문화의 보고(寶庫)"라며 "성보문화재는 우리 모두가 보존을 위한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하스님은 각 분야의 구체적 역할로, 불교계의 전문인 양성 전담기구 설립, 정부와 관련기관의 예산편성 등 지원과 협조를 통한 등반자 역할, 일반인의 문화재에 대한 기본예의 필요 등을 주장했다. 이어 성보문화재의 활용방안으로는 △전통문화의 터전이며 전인교육의 수련도량 △환경운동의 산 교육장 △문화창조의 원천 등을 제안했다.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건축물을 중심으로-'에서 김동현 교수(동국대 객원교수)는 문화재 활용방안으로 △활용에 앞서 철저한 규제 △전문 안내인 및 모형전시 등 필요 △추정복원 금지 △전통문화와 현대를 접목시킬 수 있는 연구기관 설립 등을 제시했다.

'중국역사박물관 소장 문화재의 보호와 이용'에서 공상성(孔祥星·북경국립역사박물관 부관장)씨는 "중국의 문화재 보존에 대한 기본방침은 '보호를 위주로 하고 구조를 제일로 하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씨는 "박물관은 소장품의 특징과 박물관의 성격, 임무에 의해 자체의 개성과 창발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각종 분야별 테마전시전 등 다양한 전시전 개최를 통해 일반인들이 문화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치다 히로야스씨(內田弘保·日 나라국립박물관장)는 '일본의 문화재보호 현황에 대하여'에서 일본의 문화재 보호·보존에 관한 행정 "문화재를 보존하고 또한 그 활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세계문화의 진보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소개했다. 또 문화재 보호에 있어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정리·보존 △환경의 첨단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밖에 △21세기를 앞둔 문화재의 재인식(이상일·성균관대) 등 총 12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18~19일 열린 '문화재 보존과 활용' 국제학술심포지엄.

"불교터미널케어 연구 필요"

선우스님 주장



호스피스·말기의료·임종간호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터미널 케어'를 우리나라의 종교적 풍토에 근거해 고찰하고, '터미널 케어'에 있어 불교의 역할을 제시한 논문이 발표됐다.

선우 스님(日 숙덕대학 박사과정)은 최근 석사논문 '터미널 케어에 있어서의 불교의 위상'에서 "터미널 케어에 대한 연구는 그 나라의 풍토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고유의 생사관을 고찰하는 것이 선결작업"이라며 "불교의 입장에서는 한국불교라는 정신적 배경을 염두에 둔 연구방법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고려시대의 불교를 중심으로 전통사회에서의 한국인의 종교의식 등 종교적 케어의 측면을 다룬 선우스님은 지역사회에서의 사원의 사회적 역할과 가능성을 모색했다. 특히 우리사회에 익숙한 상례(喪禮)와 관련된 '상도계'를 재조명하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행하여지는 상부상조의 활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

"상도계는 마을에 존재하는 상례에 관련된 공동조직으로서, 특히 그 진행과정에서 우리민족 특유의 놀이마당을 연출하는 등의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선우스님은 "상도계의 역할 속에는 '가족의 죽음'이란 슬픔을 극복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인 특유의 해학과 지혜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우스님은 이러한 상도계의 역할을 사찰과 승려 그리고 신도라는 관계를 통해 불교적 터미널 케어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하며 "우리 사회에서 사찰은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귀의처로써 존재해야 하며 망자와 유족에게도 또한 귀의처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우스님은 "마을의 상도계를 비롯, 마을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상례를 치루었던 경험들이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 지금도 살아있는 고유의 터미널 케어임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우리사회의 고유한 영역을 새롭게 해석을 하고 그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한국-인도 불교미술 교류 '조명'

불교미술사학회 국제학술세미나

불교회화 등에서 나타나는 불교도상의 연원이자 석굴암 등 석굴사원의 시원이 되는 인도불교미술과 한국불교미술의 교류를 조명한 국제학술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한국불교미술사학회(회장 문명대)는 19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2회 국제학술세미나 '인도미술과 한국미술의 교류관계'를 가졌다.

문명대 교수(동국대)는 '카르카이 간다라 마애불상의 비교연구'에서 간다라지역의 북쪽인 스와트 카르카이마애대불좌상(磨崖大佛坐像)의 조성배경, 도상과 양식의 특징 등을 고찰했다. 문교수는 "간다라지역은 소승의 부파불교가 성했지만 4~5세기 무착(無着)과 세친(世親)이 대승불교를 정립, 간다라미술에는 대승불교미술이 많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또 "카르카이마애불좌상은 간다라불상 연구에 새로운 자료일 뿐만 아니라 동·서문화교류, 특히 불교미술교류에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생사윤회도고(生死輪廻圖考)'에서 김연희 교수(원광대)는 "생사윤회도고는 시대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도상화되었지만 끝없는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 윤회의 고통이 없는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바람을 도상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아잔타 석굴사원의 건축(이강근·경주대) △아잔타 설화도의 배치형식과 그 전승(박도화·동국대) △소위 사르타트 양식의 불타상(코이즈까류·오사카대) 등 8편이 발표됐다.

김정은 기자

국제소식

美 운전자들에게 평상심 찾아주는 우파라타나스님

미국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운전자들의 평정심을 찾아주는 스님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반테 우파라타나스님(스리랑카).

우파라타나스님은 록키산맥 인근 국도에서 아침을 열고, 바로 그곳에서 저녁을 맞이한다. 스님은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의 평상심을 찾아주는 노래를 부르고, 교차로에서 잠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들을 일일이 만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

우파라타나스님은 "운전 중에라도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맑고 청정한 마음을 되찾아 안전 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이 지역에서 거주하는 운전자들에게 우파라타나스님은 잘 알려져 있다. 스님은 15년동안 타코마(Takoma) 공원의 운전면허 이론교육장 등에서 '평온한 마음의 운전'을 주제로 강의해 왔다. 처음에는 15년전 개원한 실버 스프링 사원의 운영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강단에 나섰다. 그러나 단순한 기술만을 교육 받아왔던 지역주민들에게 명상법을 적용한 안전운전 강좌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이를 계기로 우파라타나스님은 기금 모금 차원을 넘어서 전법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우파라타나스님의 강좌가 시작된 1982년부터 이 지역은 미국에서 교통사고율이 가장 낮은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종욱 기자

끈기와 재치가 요구되는 '인내의 바다' 인터넷을 항해할 때 운좋게도 잘 정리된 각 정보마다 상세한 자료를 올려놓은 사이트를 찾는다면 '정보의 바다'를 재삼 실감할 수 있다. 네티즌의 즐거움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미국의 세계종교연구소와 일본의 국제선학연구소는 불교학술 사이트로는 드물게 네티즌의 즐거움을 배가하는 사이트이다.

세계종교연구소는 아시아와 서양의 종교 및 문화적 전통을 연구하기 위한 일종의 종교교육 센터이다. 이 연구소는 서양의 가톨릭 신부와 동양 스님과의 종교적 화합을 위한 대화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로마 가톨릭의 유빈 추기경과 중국 불교계의 삼장 법사인 휴와 스님이 '전(全)그리스도교회 통일주의'에 서로 영감을 받은 것이 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종교연구소는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대학과 근접해 있고, 샌프란시스코 해안 지역에 위치한 점이 학문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서로 유익하게 교류할 수 있는 이점이 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종교연구소가 수행을 심화시키고, 인간의 기본적 가치를 고양시키고,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을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하여 개발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받을 수 있다.

△버클리대학에서 활동하는 중국불교연구학생협회 연석토론회 △여성불자들의 수행과 세미나 △불교경전강독 △반야요가 및 명사 등의 프로그램 서비스에서는 수행과 교학 관련 기초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중에서 유대교, 불교, 기독교인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세미나 관련 자료를 열람하면, 종교 화합의 대원칙을 살필 수 도 있다. 프란체스코 수도원 신부와 남방불교계 비구스님 2명과 '정신적 전통에 대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갖고 종교간 화합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 흥미진지하다.

이외에도 세계비폭력단체 '아힘사'와 공동개최 세미나 자료도 열람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간디와 비폭력의 원칙 △유기체의 새로운 시대 △영성(靈性)과 성(性) 등의 주제 논문들을 읽을 수 있다.

국제선학연구소는 인터넷에서 가장 많은 선종 문헌과 관련 자료들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이트이다. 일본에는 비교적 많은 수의 학교와 연구소에서 불교문헌 전산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개된 자료는 많지 않은 편이다.

세계불전전산화협의회(EBTI)의 간사를 맡아 활발하고 있는 우르스 압교수가 운영하는 이 연구소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산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공개, 홍보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특히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 '전자 달마'는 매달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내외 불교학술 뉴스, 새롭게 입력한 선종 텍스트, 불전 전산화의 현황, 선종 예술, 선종 관련 전자텍스트 활용법 등 다양한 정보들이 실려있다.

세계종교연구소 http://www.drba.org/iwrflier.html

국제선학연구소 http://www.iijnet.or.jp/iriz/irizhtml/irizhome.htm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세계종교研·국제선학研

종교研 종교화합등 프로그램 다양
선학研 불교문헌 전산화작업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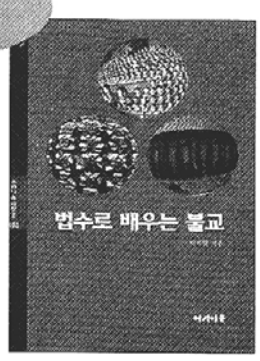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102 - 교리·입문편

"팔만사천 법수에 담긴 깨침의 묘리"

경전에는 숫자가 붙은 불교 용어가 무수히 많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숫자들을 가리켜 법수(法數)라 한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숫자, 혹은 진리를 나타내는 숫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달리 불교의 법수는 대략 두 가지 측면의 특징을 가지는데, 하나는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에서 중생과 세계의 모습에 대해 내린 분석과 판별의 결과를 중생들에게 가르칠 때 사용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해탈을 이루지 못한 중생들을 해탈에 들게 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중생들에게 일러 주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점이다.

-머리말에서-

●이제열 지음●
B5 변형 196쪽/값 4,500원
여시아문 펴냄



법수로 배우는 불교

▶ 수록된 법수 목록

일념(一念), 일단일체단(一斷一切斷), 일불승(一佛乘), 일심(一心), 이공(二空), 이변(二邊)과 중도(中道), 이장(二障), 삼계(三界), 삼법인(三法印), 삼보(三寶), 삼성(三性), 삼업(三業), 삼처전심(三處傳心), 삼학(三學), 사덕(四德), 사성제(四聖諦), 오개(五蓋), 오온(五蘊), 오망상(五妄想), 오안(五眼), 육도윤회(六道輪廻), 육바라밀(六波羅蜜), 육신통(六神通), 칠각지(七覺支), 칠변(七辯), 칠불통계게(七佛通戒偈), 팔난(八難), 팔부중도(八不中道), 팔식(八識), 구상관(九想觀), 구품(九品), 구종식(九種食), 구횡사(九橫死), 십금강신(十金剛身), 십력(十力), 십인(十忍), 십이연기(十二緣起), 49재(齋), 53선지식(善知識), 32길상(吉相), 80종호(種好), 108번뇌(煩惱), 천수천안(千手千眼), 팔만 사천 법수(法數)

여시아문은 '물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8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한 형 조

쿠룬관 법상

66

운문의 기습

* 어느 승려가 운문(雲門)에게 물었다. "광명이 온갖 세계를 고요히 두루 비추고…" 한 구절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운문이 가로막았다. "그건 장졸(張拙) 수재(秀才)의 시가 아닌가." 승려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운문이 말했다. "말이 바닥에 떨어졌네." 나중에 사심(死心)이 이 일화를 듣고 대중에게 말했다. "자, 말해보라. 어디가 승려가 말을 떨어뜨린 곳인가."

* 나 혜개가 말한다. "여기서 보는 바가 있다면, 즉 운문의 위태로운 움직임과 승려의 떨어뜨린 곳을 꿰뚫고 있다면, 인천(人天)의 스승이 될 만하다. 그렇지 않고 아직 어둡다면 제 한 몸도 구제하지 못한다."

* 송하여 가로되, "급류에 낚시를 드리우면, 먹이를 탐하는 자들이 몰려든다. 입을 벌리는 순간, 목숨을 잃고 말 것이다."

雲門話墮:

雲門因僧問, 光明寂照遍河沙, 一句未絶, 門遽曰, 豈不是張拙秀才語. 僧云, 是. 門云, 話墮也. 後來死心, 拈云, 且道, 那裏是者僧話墮處. 無門曰, 若向者裏見得, 雲門用處孤危, 者僧因甚話墮. 堪與人天爲師. 若也未明, 自救不了. 頌曰, 急流垂釣, 貪餌者著. 口縫裳開, 性命喪却.

운문은 네 번째 등장한다. 동산을 '밥통'이라고 면박주어 하룻밤을 번민하게 했고(제15칙), 때가 되면 습관적으로 식당을 찾던 대중을 질타했으며(제16칙), 우상파괴를 통해 진리와 자유의 실제와 만나라고 권고하던(제21칙) 그의 쟁쟁한 목소리를 기억한다. "부처란 똥막대기일 뿐이야!" 그 운문에게 어느 승려가 찾아왔다. 그는 대뜸 당시 유행하던 시 한 수를 읊어나가기 시작했다. 그 시는 일찍이 장졸이라는 유학자가 선사인 석상경저(石霜慶諸)를 만나 지은 것이었다.

"광명이 온갖 세계를 고요히 두루 비추니
부처와 중생이 모두 내 식구로다.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영원이 드러나고
여섯 감관이 움직이면 구름에 차단된다.
번뇌를 끊겠다는 것이 병을 더 깊게 하고
진리를 향한 염원 또한 삿된 것이라
세상의 인연을 따라 가면 걸릴 것이 없는데
열반이니 생사니 하는 것, 다 부질없는 소리"

光明寂照遍河沙 凡聖含靈共我家
一念不生全體現 六根裳動被雲遮
斷除煩惱重增病 趣向眞如亦是邪
隨順世緣無碍 涅槃生死等空花

시의 어조는 육조 혜능을 찾아와 하루를 묵으며 인가를 받았던 일숙각(一宿覺)의 〈증도가(證道歌)〉를 연상시킨다. 그 승려는 이 시에 담긴 선의 역설이 못내 궁금했던 모양이다. "세계를 비추는 광명이란 대체 무엇이며, 부처와 중생과 나는 어떻게 한 식구인가.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야 영원의 실상이 구현된다 했는데, 어떻게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가. 더구나 인간이 모든 감각기관을 차단하고 한시라도 살 수 있단 말인가. 번뇌를 끊고 진여를 구현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성스런 가르침이라 믿었는데, 이제 와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된다니 도무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가. 열반과 생사의 구별이 없고, 그저 세속을 따라가는 곳에 진리가 숨쉬고 있다면 불교는 무엇이며 수행은 또 무엇인가. 이런 레세페르의 권고를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운문, 당신은 그 비밀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 하니 어디 그 속내 좀 내게 알려주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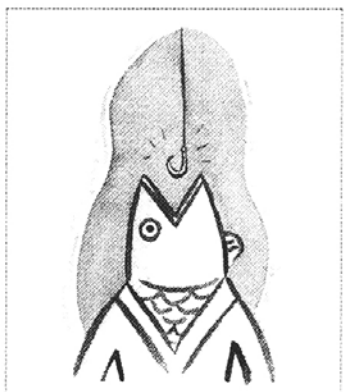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이런 깜냥에 승려는 우선 시를 읊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첫 구절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운문이 말허리를 자르고 나서는 것이 아닌가. "그거 장졸이 읊은 시가 아니냐." 승려는 운문이 진작 이 시를 알고 있는 모양이니 더 이상 외는 수고가 필요없겠다고 생각했다. 자상한 해설을 기대하며 운문의 입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운문의 대꾸가 기대밖으로 맹랑했다. "말이 바닥에 떨어졌네." 화타(話墮)란 말 그대로 '실패한 말'이라는 뜻이다. 다른 말로 화파(話破), 즉 "말이 부서졌다"라고 하기도 한다. 요컨대 "너는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어!" 혹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라는 질책이었다.

운문은 승려의 궁금증을 풀어줄 생각은 않고, 승려의 입을 아예 봉해버린 것이다. 기습이었다. 가치없고 무자비한 운문의 세치 칼에 승려는 아마 혼이 뜨고 얼이 흩어졌을 것이다. 혜개가 운문의 대처를 '위태롭고 험준하다(雲門用處孤危)'고 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렇다. 운문이 누구인가. 창시자를 두고 이렇게 외쳤던 사람 아닌가.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니, 만일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한 몽둥이로 때려 죽여 천하의 평안을 도모했을 것이다."

과연 어디가 승려가 잘못한 곳인가. 그것을 알면 육도(六途)의 최상층인 인간(人間)과 천상(天上)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자신의 몸뚱이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맬 것이다. 관건은 함부로 '남의' 낚시밥을 물지 않는데 있다. 미끼를 향해 입을 벌리는 순간,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남의 낚싯밥을 물지말라

"진리 염원 삿된것…인연 따르면 걸릴것 없네"

'지금' '여기'의 자기를 보라

잭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26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성품을 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이를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과(因果)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팔정도에서는 '마음챙김(mindfulness)'을 불교 수행의 근본적인 자세로 다루고 있으며, 우리가 이 자세를 지속해 나아가면 몸과 마음을 바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챙김'을 '염두하라!(Be mindful)'와 같이 무미건조한 의미로 잘못 이해하는 것 같다.

정정 ①

마음 챙김에서 과거추억 · 미래환상 불필요 현재 체험통해 본성 파악

우리가 '마음챙김'의 본질적인 뜻을 제대로 사유한다면 그 말에 담겨 있는 어떤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에서는 각각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 마음(mind)과 심장(heart)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마음챙김'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단어을 찾자면 '진심에서 우러난 것(heartfulness)'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마음챙김은 마음 그 자체며 수행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고 가르쳤다. 또 "자유와 불멸의 길이며 생사를 벗어나고 윤회의 사슬을 끊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는 명상수행을 시작해서 끝내기까지 단 한 번도 마음을 놓지 않았는가? 명상을 시작한지 수 년이 지나서도 초발심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가? 도대체 '마음챙김'은 무엇이며, 그것이 담고 있을 가치는 또 무엇인가?

아잔 차 스님은 "법이란 현상(現像) 자체이며 불법의 수행이란 어떤 방법으로든 이 현상의 본성과 특색을 파악하고, 지금 처해있는 이 세계, 바로 우리 몸과 마음의 본성과 특색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공부"라고 말했다.

마음챙김이란 현재로 향하는 것이다. 마음과 몸, 귀, 눈 등으로 바로 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자각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한 카지노에는 "당신이 이겨야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마음챙김도 바로 이같은 경구를 가지고 있다. '마음챙김'에서 미래의 환상과 과거의 추억은 불필요한 요소일 뿐이다.

우리는 현재에 마음을 집중해 삶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고, '여기' '지금' '현재' 등에서 유 · 무정물과 더불어 살고 있는 자신들을 바라보며 자비를 실천하는 계기도 맞게될 것이다. 경이로움의 세계이며 깨달음의 세계이다.

마음챙김은 또 진심에서 우러난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집착 · 탐욕 · 해악 등을 멸(滅)해주고, 매 순간 우리가 맞이하는 '현재'를 명확히 보여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상으로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정식적인 성장을 얻으려는 삿된 생각을 품는다. 명상으로는 신비하고 기괴한 체험을 결코 할 수 없으며, 단지 우리 주변에 있는 '올바른 것'을 볼 수 있을 뿐이다.

환각제를 상습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영국의 귀족이 있었다. 그가 환각제를 먹는 것은 남다른 체험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는 아프리카와 인도를 여행하고 돌아온 뒤로는 환각제에 손대지 않게 되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친구들이 이유를 묻자 "수많은 동 · 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을 여행하며 동 · 식물들을 보는 것 그 자체가 경이로움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며 "내가 경험하고자 했던 경이감 혹은 신비감은 삶 속에서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경험의 본체에 담겨있었다"고 대답했다.

그 귀족은 주변의 변화를 하나도 놓치않고 보고 · 체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음챙김'을 하는 명상도 마찬가지이다. 명상은 한 토막의 통나무에 비할 수 있다. 통나무의 한쪽 끝을 통찰과 관찰(慧)이라 한다면 다른 한쪽은 고요와 집중(定)이다. 통나무를 들어 올리면 양쪽 끝은 동시에 올라온다. 오로지 이 마음 하나가 있을 뿐이다.

번역=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75

불교와 수학

70

귀납법의 연기관

김 용 운

방정식은 등호(=)로서 두 대상 사이의 관계가 같음을 간추려 나타낸다. 가령 '$x^2=2$'라면 'x를 제곱한 것이 2가 된다'는 관계를 말하고 있다. 이때는 $x^2=2$의 관계를 만족시키는 복수한 수($x=\pm\sqrt{2}$)를 지정한다. 그러나 일반적이 자연수에 관한 식은 자연수 전체를 관통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는 증명이어야 한다.

간단한 보기로 '3, 4, ……, (n+2), ……'라는 수열을 생각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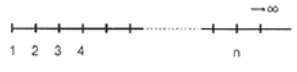
첫째항 (n=1)은 3.
둘째항 (n=2)은 4.
…

이때 'k번째항(n=k)은 k+2라는 명제가 성립한다.

어느 고집스러운 사람이 10000번째항이 10002가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1부터 10000까지의 수를 일일이 나열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소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은 직관적으로 그 수가 10002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수열 사이에 관통하는 연기의 이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수법장(賢首法藏 · 643~712)스님의 〈오교장(五敎章)〉 마지막 대목에 '의이분제(義理分齊)'가 있다. 여기서 '십현연기무애법문의(十玄緣起無碍法門義)'라 해서 자연수의 연기적인 성질을 설명하고 있다. 화엄철학에서는 모든 것(一切法)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相卽相入). 하나가 전부이자 전부가 하나(一卽一切, 一切卽一)이며 서로 상충하는 일없이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事事無碍)임을 주장한다. 여기서 그는 1부터 10의 수(1, 2, 3, ……, 10)를 생각한다. 10으로써 상징적으로 자연수 전체를 나타낸 것이다. 자연수의 집합은 1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하나씩 더해 얻어지는 수 전체이며 무한으로 뻗어 가고 있다. 수직선상에는 1의 점에서 시작해서 같은 간격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무한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낱낱의 數는 자성없어 '1을 더하고 빼기' 연기의 理 자연수 전체 질서 만들어



수학의 역사상 자연수에 관한 귀납법의 원리가 등장한 것은 불과 1백년 전의 일이며 수학의 기초론이 마련된 후의 일이다. 페아노(Peano)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음의 원리를 주장했다

n에 관한 명제 P(n)가 있고
(1) n=1 일 때 즉 P(1)일 때 성립되고
(2) n=k일 때 즉 P(k)일 때 성립한다면 항상 n=(k+1)일 때, 즉 P(k+1)이 성립한다.
(1)과 (2)의 조건이 성립한다면 어떤 자연수의 n의 경우에도 이 n에 관한 명제 P(n)이 성립된다. 가령 이 귀납법의 원리로

1+2+3+……+n=½n(n+1)

이 성립함을 증명하자

n=1일 때 : 좌변은 1, 우변은 ½×1×2=1임으로 성립된다.

n=k일 때 : 1+2+3+……+k=½k(k+1)이라 가정하면

n=k+1일 때는 좌변이 1+2+3+……k+(k+1)

가정에 의하여 1+2+3+……+k=½k(k+1)이므로

½k(k+1)+(k+1)=(k+1)(½k+1)=½(k+1)(k+2)

따라서 ½n(n+1)의 n에 (k+1)을 대입했을 때의 모양이 되었으므로

n=(k+1)이 성립되었음을 알았다.

결국 1+2+3+……+n=½n(n+1)이 모든 n에 관해서 성립되었음이 증명된다.

이 귀납법의 원리는 1에서 시작해서 2, 3, 4, … 라는 식으로 자연수 전체가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장대사는 이 사실을 一에서 十까지의 수를 가지고 설명한다.

'一에 차례로 더함으로써 二, 三, ……, 十이 된다. 더한 이것을 반대향으로 잡고 十에서 一을 차례로 빼가면 九, 八, 七, ……, 一을 얻을 수 있다. 이들 낱낱의 수는 자성(自性)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연수 전체를 지배하는 연에 의해서 생기는 수(緣成의 수, 또는 緣起의 수)이므로 상즉상입하여 전체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事事無碍). 결국 一이면서 二이고, 三이고, …… 十이다.'

이와 같이 연기의 이에 뿌리를 두고 자연수 전체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낱낱의 수 자체는 본성이 없다(空). 자연수 전체를 인식하는 것은 '1을 더한다'는 행위적 직관에 의존하고 있다.

법장은 十을 상징적으로 택하여 자연수 전체를 보고 이것이 지니는 무한성을 연기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H·Y·U·N·D·A·I P·R·O·D·U·C·T·I·O·N

확 장 이 전 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현대프로덕션은…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비하여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첨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발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네트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 · 현대불교영상사업단

정보사회 포교수행의 동반자 「현대프로덕션」이 본격적인 영상 포교의 시대에 참여하고자 100평 규모의 첨단 설비를 구성하여 확장이전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전한 곳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7-4 얀텍스 B/D 지하
대표전화 (02)553-8881 · FAX 554-8881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 · 제작
사찰의 역사, 배출한 인물, 고승 법문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 · 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삶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야 할 21세기 포교,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사찰 · 불교 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 · 중계

■ 법회 · 행사 기획 · 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행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 · 연출

■ 어린이 · 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10월부터 밀라노→뉴욕→도쿄 해외나들이

원성스님 동승전



'동승'의 천진불심 영혼까지 정화

"한없이 맑고 순수해 영혼까지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티없이 맑고 순진한 동승들을 보니 앞으로 깨끗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보다가 왈칵 눈물이 나왔어요. 동승을 보다가 문득 현실의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왠지 참회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4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안국동 백상갤러리에서 개최된 원성스님(중앙승가대 4년)의 동승전을 본 관람객들의 경중 일부이다.

스님의 15번째 개인전인 이번 동승전에는 열흘동안 2만여명의 사람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말인 12, 13일에는 원성스님이 직접 도록에 정성껏 그림을 그려주어서인지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성황이었다. 또 전시된 120점중 110점이 팔려나가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원성스님의 동승이 전시때마다 화단과 종교계가 놀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천진무구한 동자승들의 꾸밈없는 모습이 너무나 청정하고 해맑아 큰 감동을 준다는 것이다. 볼이 통통하고 눈이 해맑은 동자승들이 나타내고 있는 천진불심이 인간의 근원적인 본성을 자각하게 해 청정한 삶을 일궈내리라 저절로 다짐하게 된다는 것. 또한 원성스님의 탄탄한 기량도 빼놓을 수 없다. 전문적인 미술수업을 받은 적이 없지만 자연스러운 붓놀림과 색감은 마치 다년간의 미술공부를 마친후에나 나올 수 있는 기량이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타고난 그림솜씨가 '스님의 작품'이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타파시키고 놀라움을 배가시킨다. 이러한 점 때문에 스님의 전시회는 종교, 나이, 직업, 세대에 관계없이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다. 전시회장에서 동승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리게수녀는 "스님의 그림이 영혼을 정화시켜 기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말한다.

30년을 넘게 매일같이 324배의 절과 3시간의 독경, 일주일에 한번씩 3천배 등 독실한 불심을 지닌 어머니(어머니도 지난해 출가해 비구니스님이 되었다)의 뜻에 따라 고등학교 2학년때(1991년) 도원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원성스님은 해인사강원에서 사교를 마치고 중앙승가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다. 스님이 그림을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선보이게 된 것도 지난 95년 중앙승가대 신축캠퍼스기금마련전이 처음이었다. 이 전시회는 일주일동안 1만 5천여명이 다녀가는 성황을 보였고 작품 전부가 팔리는 교계전시회로서는 드문 기록을 세웠다. 이후 청주불교방송국건립기금마련전, 봉선사 중창불사기금마련전 등과 해인사 백양사 부산시민회관 대구상성갤러리 원광대박물관, 광주 금호미술관 마산 대우갤러리 등 곳곳에서 전시를 열며 동승 관을 늘려갔다.

전시회가 더해감에 따라 동승들의 모습도 점차 성숙해졌다. 초기의 그림은 볼이 통통하고 발그스레한 아기동자승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번 '산사일기'에 나온 동승들은 한결 의젓해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초창기 그림엔 여백이 많았고 밝은 단색과 담채를 주로 썼으나 최근작은 배경에 회화성을 가미하고 꼭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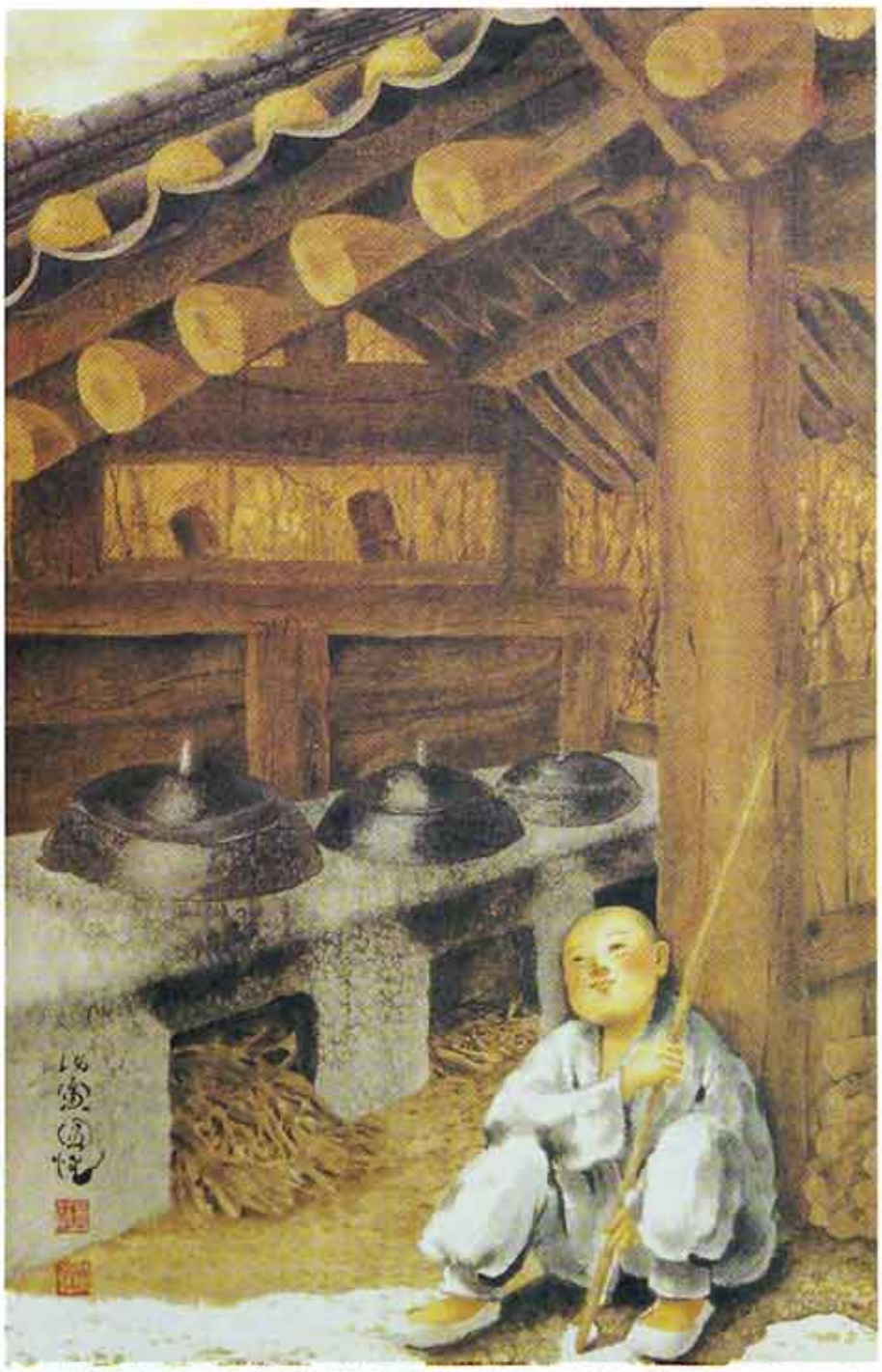
이제 동승의 해맑은 미소가 세계로 나들이를 떠난다. 10월 10~25일 이탈리아 밀라노시, 11월1~7일에는 미국 뉴욕 맨하튼 한국문화원 전시실, 그리고 11월 15일부터 21일에는 한일불교친선협회 초청으로 일본 도쿄에서 전시가 열린다. 이분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첨단의 서양인들이 동승의 천진무구하면서도 청정한 모습에서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원성스님은 중앙승가대를 졸업하면 선원이나 율원으로 갈 계획이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거뒀던 눈부신 성과를 접어버리고 참선과 율장을 공부하며 치열한 납자의 길에 본격 나선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원성스님의 어린날의 모습을 그대로 그린 작품 '나'.



◇비우는 작업에 이어 이번 백상갤러리에서의 15번째 개인전에서는 '가을안에 풍경'처럼 가득 채우는 작품을 보여줬다. 해외 나들이에서 돌아오면 다시 비우는 공부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백을 살린 초기작품 '눈빛'.



◇'道'를 찾아 가는 길'.

'원성스님의 동승그림'을 보노라면...

"잠시나마 해맑고 투명하며 어질고 참한상태로의 회귀"

이원복(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원성스님 그림 하면 그를 아는 이들은 너나없이 동자승을 떠올린다. 화면에 전개된, 속진이 묻지 아니한 천진무구하고 꾸밈없는 모습들은 바라보는 이들 또한 착한 동심세계를 마냥 그리워하게 한다. 그의 그림을 접한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 및 영혼까지도 잠시나마 해맑고 투명하며 어질고 착한 상태로의 회귀를 이끌며 인도하고 나아가 이 상태를 지속하게끔 회심(回心)까지를 강하게 요구한다.

동자승들이 취하는 행동거지 모두는 보는 이로 하여금 잔잔한 미소를 짓게 함은 우리들 본연의 관린을 그렸기 때문이다.

'햇살 아래서' '불두화 앞에서' '목어아래서' 등에서의 꼼꼼함과 작화과정의 견실성은 이번 '산중일기'전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배경은 주인공을 주인공답게 하는 무대이다. 원성스님이 주로 택한 배경은 황색에 목리가 선명한 목조건물 등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사찰이 주류이며 그 가운데서도 창살이 돋보이는 문 주변 등이니 이는 예외없이 불문(佛門)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그 문은 열려있고, 때로는 기댈수 있으며 동자승을 더욱 의젓하게 하는 배경이다. 땅에 뿌리를 내려야 거목이 되듯, 동승 깃든 도처는 그야말로 도량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원성스님의 동승은 종교, 나이, 직업, 세대를 초월해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특히 수녀, 교무 등 타종교인들이 전시장을 많이 찾았다. 백상갤러리에 2만여명이 다녀갔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도리품(道利品) ②

如牛厲渡水 여우려도수
導正從亦正 도정종역정
奉法心不邪 봉법심불사
如是衆普安 여시중보안

소가 서로 격려하며 물을 건널 때
바르게 이끌면 역시 바르게 좇듯이
법을 받들어 마음이 삿되지 않게하라
이같이 하면 대중이 두루 편안하다

勿妄繞神象 물망요신상
以招苦痛患 이초고통환
惡意爲自煞 악의위자살
終不至善方 종불지선방

함부로 망녕되이 신상을 건드리지 말라
그로써 괴로움과 근심을 부르리니
악한 마음은 스스로를 해치게 되어
마침내 좋은 곳에 가지 못한다

戒德可悕怙 계덕가시호
福報常隨己 복보상수기
見法爲人長 견법위인장

仁賢言誠信 인현언성신
多聞戒行具 다문계행구
當知親附此 당지친부차
近智誠善多 근지성선다

착하고 어질어 말이 진실되고
많이 듣고 계행 갖췄으면
마땅히 그런 이 가까이 친해라
지혜로운 이 가까이 하면 진실로 선이 많다

善言不守戒 선언불수계
志亂無善行 지란무선행
雖身遠潛隱 수신처잠은
是爲非學法 시위비학법

말은 좋은데 계율지키지 않고
뜻이 산란해 선행 없으면
비록 몸이 고요히 숨어 살아도
이는 법을 배우는게 아니다

美說正爲上 미설정위상
法說爲第二 법설위제이
愛說可彼三 애설가피삼
誠說不欺四 성설불기사

아름답고 바른 말이 으뜸이 되고

"말은 좋은데 계율 지키지 않으면 몸 고요해도 법 배우는게 아니다"

終遠三惡道 종원삼악도

계율의 덕은 믿고 의지할 수 있으니
복의 보응이 항상 내 몸에 따른다
법을 보아 사람의 어른되면
마침내 삼악도는 멀어진다

戒德除苦畏 계신제고외
福德三界尊 복덕삼계존
鬼龍邪毒害 귀용사독해
不犯持戒人 불범지계인

계율 삼가서 고통과 두려움 없애면
복덕은 삼계에 존귀하다
귀신 용의 삿된 해독도
계율 지키는 이 범하지 않는다

無義不誠信 무의불성신
欺妄好鬪爭 기망호투쟁
當知遠離此 당지원리차
近愚興罪多 근우흥죄다

도리가 없고 성실하지 않고
거짓으로 속이고 다투기를 좋아하면
마땅히 그를 멀리할 줄 알라
어리석은 이 가까이하면 죄가 많이 일어난다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法句經 入道品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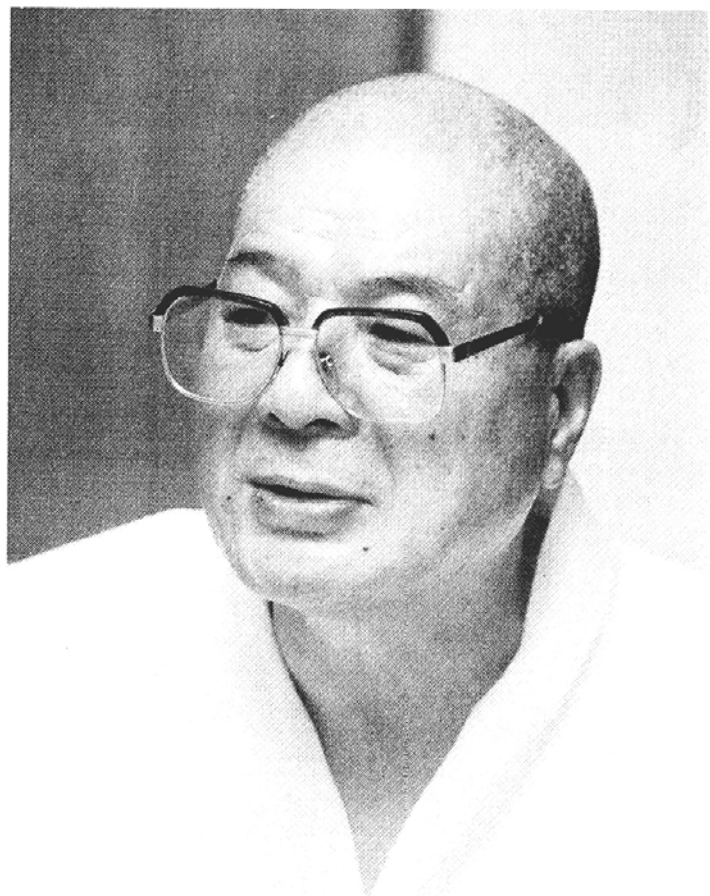
法句經 入道品 ②

법구경 도리품(道利品) ② 如牛厲渡水 여우려도수 導正從亦正 도정종역정 奉法心不邪 봉법심불사 如是衆普安 여시중보안 소가 서로 격려하며 물을 건널 때 바르게 이끌면 역시 바르게 좇듯이 법을 받들어 마음이 삿되지 않게하라 이같이 하면 대중이 두루 편안하다 勿妄繞神象 물망요신상 以招苦痛患 이초고통환 惡意爲自煞 악의위자살 終不至善方 종불지선방 함부로 망녕되이 신상을 건드리지 말라 그로써 괴로움과 근심을 부르리니 악한 마음은 스스로를 해치게 되어 마침내 좋은 곳에 가지 못한다 戒德可悕怙 계덕가시호 福報常隨己 복보상수기 見法爲人長 견법위인장 仁賢言誠信 인현언성신 多聞戒行具 다문계행구 當知親附此 당지친부차 近智誠善多 근지성선다 착하고 어질어 말이 진실되고 많이 듣고 계행 갖췄으면 마땅히 그런 이 가까이 친해라 지혜로운 이 가까이 하면 진실로 선이 많다 善言不守戒 선언불수계 志亂無善行 지란무선행 雖身遠潛隱 수신처잠은 是爲非學法 시위비학법 말은 좋은데 계율지키지 않고 뜻이 산란해 선행 없으면 비록 몸이 고요히 숨어 살아도 이는 법을 배우는게 아니다 美說正爲上 미설정위상 法說爲第二 법설위제이 愛說可彼三 애설가피삼 誠說不欺四 성설불기사 아름답고 바른 말이 으뜸이 되고 "말은 좋은데 계율 지키지 않으면 몸 고요해도 법 배우는게 아니다" 終遠三惡道 종원삼악도 계율의 덕은 믿고 의지할 수 있으니 복의 보응이 항상 내 몸에 따른다 법을 보아 사람의 어른되면 마침내 삼악도는 멀어진다 戒德除苦畏 계신제고외 福德三界尊 복덕삼계존 鬼龍邪毒害 귀용사독해 不犯持戒人 불범지계인 계율 삼가서 고통과 두려움 없애면 복덕은 삼계에 존귀하다 귀신 용의 삿된 해독도 계율 지키는 이 범하지 않는다 無義不誠信 무의불성신 欺妄好鬪爭 기망호투쟁 當知遠離此 당지원리차 近愚興罪多 근우흥죄다 도리가 없고 성실하지 않고 거짓으로 속이고 다투기를 좋아하면 마땅히 그를 멀리할 줄 알라 어리석은 이 가까이하면 죄가 많이 일어난다 法句經 入道品 ② 仁賢言誠信 多聞戒行具 當知親附此 近智誠善多 착하고 어질어 말이 진실되고 많이 듣고 계행 갖췄으면 마땅히 그런 이 가까이 친해라 지혜로운 이 가까이 하면 진실로 선이 많다 善言不守戒 志亂無善行 雖身遠潛隱 是爲非學法 말은 좋은데 계율지키지 않고 뜻이 산란해 선행 없으면 비록 몸이 고요히 숨어 살아도 이는 법을 배우는게 아니다 美說正爲上 法說爲第二 愛說可彼三 誠說不欺四 아름답고 바른 말이 으뜸이 되고 法句經 入道品 ② 終遠三惡道 계율의 덕은 믿고 의지할 수 있으니 복의 보응이 항상 내 몸에 따른다 법을 보아 사람의 어른되면 마침내 삼악도는 멀어진다 戒德除苦畏 福德三界尊 鬼龍邪毒害 不犯持戒人 계율 삼가서 고통과 두려움 없애면 복덕은 삼계에 존귀하다 귀신 용의 삿된 해독도 계율 지키는 이 범하지 않는다 無義不誠信 欺妄好鬪爭 當知遠離此 近愚興罪多 도리가 없고 성실하지 않고 거짓으로 속이고 다투기를 좋아하면 마땅히 그를 멀리할 줄 알라 어리석은 이 가까이하면 죄가 많이 일어난다 法句經 入道品 ② 仁賢言誠信 多聞戒行具 當知親附此 近智誠善多 착하고 어질어 말이 진실되고 많이 듣고 계행 갖췄으면 마땅히 그런 이 가까이 친해라 지혜로운 이 가까이 하면 진실로 선이 많다 善言不守戒 志亂無善行 雖身遠潛隱 是爲非學法 말은 좋은데 계율지키지 않고 뜻이 산란해 선행 없으면 비록 몸이 고요히 숨어 살아도 이는 법을 배우는게 아니다 美說正爲上 法說爲第二 愛說可彼三 誠說不欺四 아름답고 바른 말이 으뜸이 되고 法句經 入道品 ② 終遠三惡道 계율의 덕은 믿고 의지할 수 있으니 복의 보응이 항상 내 몸에 따른다 법을 보아 사람의 어른되면 마침내 삼악도는 멀어진다 戒德除苦畏 福德三界尊 鬼龍邪毒害 不犯持戒人 계율 삼가서 고통과 두려움 없애면 복덕은 삼계에 존귀하다 귀신 용의 삿된 해독도 계율 지키는 이 범하지 않는다 無義不誠信 欺妄好鬪爭 當知遠離此 近愚興罪多 도리가 없고 성실하지 않고 거짓으로 속이고 다투기를 좋아하면 마땅히 그를 멀리할 줄 알라 어리석은 이 가까이하면 죄가 많이 일어난다

큰스님 수행한담

마음 깨우치는 이치

혜경스님 〈무설정사 주지〉



- 1933년 전남 여수 生
- 1956년 서울대 사학과 졸업
- 85~87 무량사 조실
- 現 한국불교 법화종 유지재단 이사장
- 동산불교대 경전연구원 교수, 법화연수원 원장
- 동산선원 지도법사, 무설정사 주지
- 저서 〈법화경 입문〉 〈법화삼부경〉 〈법화경 총설〉 〈법구경 입문〉 등 다수

경전은 부처님 말씀을 담은 보고(寶庫)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전을 접하면서 어떤 의미가 숨어있는지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글자대로 따라가며 몰두하다가는 '아하,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구나' 하는 감탄도 하게 됩니다. 부처님 정법이 담겨 있으니,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럴만도 하지요. 그래서 경전을 읽는 것을 공부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공부라는 것은 행간의 의미를 올바로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전에 해박한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불교를 어렵다고 말합니다. 글자의 의미를 몇날 며칠 골똘히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니 어려울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불교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교가 어려운 것입니다. 경전을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불교가 쉽고 경전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부처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내 안의 부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서울 보성고등학교와 서울대 사학과를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일본어로 된 세계문학전집을 읽어 신동소리를 들을 정도로 머리좋은 것으로도 소문이 났습니다. 집안의 경제력도 상당히 여유있는 편이어서 어느것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그는 고등학교 교사도 했었고 대학 강단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머리를 깎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나이도 30살이 훌쩍 넘은데다 안정된 직장에 여유있는 집안형편, 그리고 불교와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당연했지요.

그러던 어느날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법화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법화경〉이 불교경전인 줄만 알았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 줄은 몰랐을 때라서 호기심 반 지식욕 반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법화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있었고, 깨달음의 길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탄복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인연이 되었습니다.

〈법화경〉을 접했던 그 이후 얼마간의 고민끝에 경전을 제대로 공부해야 겠다는 마음으로 경상도 문경에 있는 조그만 암자엘 갔습니다. 물론 머리도 거기서 깎았습니다. 집에서는 굳이 출가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내 입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이 길이 내가 가야할 길이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매우 이성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때 내 나이 서른 네살 때입니다.

경전 공부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출가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전에 매달렸습니다. 암자에서 1년 정도 공부를 한 후 해인사에 가서 2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10여년간 이 절 저 절을 돌아다니며 공부를 했습니다. 많이 돌아다니며 살아있는 부처님 법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때에는 세상이 모두 내것만 같았습니다. 동가숙서가식했지만 내 곁엔 늘 부처님 법이 있었고, 가득 채워야 할 불법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번뇌를 끊는다'는 잘못된 해석 수행정진 통해 얻어지는 것은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그렇게 경전에만 매달려 있을 때 한국불교 법화종 법화사에서 경전을 번역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하느라고 했지만 사실 부담스러웠습니다. 혹시 잘못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거절을 했지만 계속되는 부탁을 뿌리칠 수 없어 번역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화종 창종주인 김혜선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봉생활을 자처하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경전 공부와 번역을 한지 10년이 넘었지만 배울수록 새로웠습니다. 엄하게 가르치신 덕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새벽 4시에 예불을 드리고 나서 밥 먹는 시간만 빼고는 경전에 매달렸습니다. 하루 서 너시간의 수면이 유일한 휴식이었으니까요. 그러다보니 코피 터지는 것은 예사일 정도로 몸이 말이 아니었지요.

그러던 어느날 〈법화경〉 '서품'을 번역할 때였습니다. '부처님 이마에서 광풍이 나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고… 땅이 여섯가지로 진동했다'는 문장을 보는 순간 엄청난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명 누구나 읽으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무생물로 보았던 세상 모든 것이 생명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땅 속의 불성과 불성이 마주쳐 움직이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북을 들고 일어나 마루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기쁨과 환희가 내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누구라도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른다는 표현은 아마 그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경전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그때까지 잘 몰랐던 것들이 확연히 다가왔습니다. 누구한테 배운 바도 없는 것들이 마치 주석을 달아놓은 것 처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야말로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확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삼매라는 것이구나 하는 생

난치병치료안내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을 치료한
고봉거사는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우리 농산물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초기 등 탁월하게 치료됨

※ 당뇨 뚱뚱한 사람은 3개월만 복용하면 2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익수영진고

경옥고보다 10배이상 우수한 약효력, 9일간 밤낮으로 불로 다려서 만듬.

왕기치신환

한국에서 유일하게 1200년전 당나라 선도의술의 의성 주진형의 놀라운 비법 알약

※ 100% 우리 농산물로 가공

늦은 가을 전통죽염, 최고급 죽염간장 출시 예정

※ 의사인 고봉거사, 지리산 토송자 신선도인, 인체공학박사 등의 왕진, 출장도 안내합니다.

◆ 문의전화 : (011) 808-8880
(왕진, 출장) (053) 655-3027

기적의 순수한방 재생 크림
탱탱크림 이
불자여성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1 기미·주근깨로 고민하시는 분
2 얼굴의 잡티, 또는 여드름 자국으로 고민하시는 분
3 모공이 넓고, 피부가 늘어져서 고민하시는 분
4 눈가의 잔주름, 검은 얼굴로 고민하시는 분

※ 피부가 밝아지면 관상도 변합니다. ※

사용후 3~4일만에 시작되는
피부 재생과정을 거친후
15 일이면 아기 속살같은 맑고
깨끗하고, 탱탱한 피부로
되살아납니다

하루저녁 한번으로 젊음을 찾으세요.
젊은 피부 밝은 얼굴 탱탱크 림이 책임집니다.

·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체 · 험 · 사 · 례

저는 41세된 주부이면서 직장 여성입니다
아이를 낳고 산후 조리를 잘못해서인지 기미가 짙어지더서, 잡티가 많이 생겨 늘 화장을 두껍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이 되면서, 피부가 늘어지고, 진주름이 많아지면서 여러가지 좋다는 방법을 다했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서 늘 고민이었는데, 어느날 탱탱크림 바르신 분의 좋아진 피부를 보고 저도 구입하여 바르게 되었습니다.
바른지 11일째쯤 피부가 깨끗해짐을 느꼈고, 15일이 지나고 부터는 기미가 거의 옅어지고, 피부가 하얘지고 맑고, 투명해지는 것을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는 사람마다 5년은 더 젊어 보인다고들 합니다.
저희 남편도 요즘은 화장안한 모습이 예쁘다고 합니다. 지금은 화장도 엷게하고, 또 피부가 좋아지니 모든 일에 의욕도 생기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런 좋은 크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호엄마)

서울시 광진구 중곡2동 132-10 두궁화B/D 4층
(주) 한 국 원 동
☎.3437-8282

각종 암·백혈병 치료
(現代醫化學의 克復, 신비의 효능 책임치료)

♣ 생체의학 : 스님의 비법 ♣

우연한 인연으로 일본의 나고야에 있는 豫防醫化學 硏究所의 칸즈 다쓰이시박사를 접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의 선친과 형이 肝癌으로 사망했고, 그도 癌으로 胃와 十二指腸까지 절제했으나 癌은 肺에까지 파급되었고, 현대의학에 반기를 든 그는 고통스런 투병속에서도 자연과 약초 연구에 몰두하기를 30여년 동안 약초 1천 5백종을 연구 실험하였으나 효과보다는 무서운 부작용으로 인해 무수한 동물을 희생시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평소 즐겨먹는 자연식품으로 범위를 좁혀 숫한 연구와 실험끝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旣成醫化學에서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우수한 효과와 실적의 개가를 올릴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몸에 좋은 성장 신체의 원동력이 되는 무려 30여종의 항생물질이 형성되며 그 중에서도 특히 癌세포에만 달라붙는 아미티로진 또는 아지티로진 같은 특수한 물질이 형성되는데 암세포만 발견하면 즉각 달라 붙어 癌세포를 에워싸므로 3일이면 癌세포 활동이 중지되고 한달이면 癌세포가 자동적으로 인체의 體세포로 전환됨으로 초기에는 한달이면 가능하고 2-3기는 3개월 말기의 癌환자라도 1년-1년6개월이면 정상회복된다. 또한 이 방법으로 회생하면 體내의 면역이 생겨 다시는 癌에 걸리지 않는다. 임상 실험결과 豫防醫化學 硏究所의 로버트 죠 박사는 상상을 초월한 효능으로 1천여명의 치료대상 인원중 99%가 완전정상 회복되었고, 정상인에게 4개월 복용시킨 결과 20년은 젊어졌으며(체성장세포) 건강 진단의 생체리듬상 74세까지도 생리가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나올수 있을만큼 체질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고 발표한바 있다. 다만 절차상 까다로운 기술 요법상 다량화 또는 현대의학에 접목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아직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완치가 되고 난후 다소나마 불시에 도움이 되어 주실수 있는 분에 한하여 몇분만을 접수받아서 정성껏 모시고 치료에 임하고자 하는바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전국의 권위있는 병원등에서 검증후 완전 회복되지 않았으면 치료비는 물론 일체의 도움받지 않습니다. (백혈병 5~6개월 완치)

건강(健康)은 건강할 때 잘 지켜야
젊음을 더 젊게, 돌아온 回春

사람은 누구나 젊음을 간직하며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生"의 주변에는 內外的많은 요인들이 시시각각 엄습해 옴으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쇠해지고 건강 또한 잃게 되는것이 보편적 정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필자는 제한된 지면을 할애하는데 있어 전문적 이론등은 기술할 수 없음으로 요약하건데 우리의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人間의 體內에는 수많은 성장세포가 있고 그 성장세포의 촉진으로 하여금 태어나서 일정기간 상향곡선을 그리며 성장했다가 40대가 되면 다시 하향곡선으로 쇠퇴해가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차츰 늙음을 향해가는 노쇠현상이라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생리와 자연현상을 뉘라서 막겠는가? 그런데 旣成醫化學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무려 30여종이 넘는 성장體세포가 형성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위, 십이지장, 폴립, 심장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불면증, 팔다리 아픔, 피로, 비만, 근무력증 등의 환자는 한달치료로 가능하다. 요즈음은 의외로 건강한 사람들중 주문 요청이 많아 더 이상 사양할 수 없고 또한 이곳에는 佛事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만 직접 가정까지 배달해 주기로 결심하였다.

다만 필자의 본분이 修行자임을 감안 약값을 받는 상인이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바이며, 청정도량의 공덕불사에 조건없이 보시 동참 하실분에 한하여 직접 배달해 드릴 예정이다. 굳이 가격을 논하지 않고 無常布施 하실수 있는 분만 來訪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부산등 대도시권에 한하여 배달가능함.
4일간격으로 계속 배달함.

※ 病환자중 현재까지 이곳을 찾는 사람 대부분이 병원에서는 회생불능 판정으로 수술까지도 거부당한 극한 상태였으나 다행히 전원 회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마지막에 단계에서 오시면 너무 많은 시일과 어려움이 따름으로 초기에 오시면 간편히 치료됩니다. 유방암, 자궁암은 말기라고 해도 2-3개월이면 흔적도 없이 완치됨. 각종 암 수술후 재발방지 필요한분 연락바람.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상담전화 : 직통 ☎ 0547)437-4136 , 437-4135

큰스님 수행한담

알려주는 것이 경전



◇86년 제주도에서 열린 법화산림법회에 참석했을 때의 모습(사진 기운데).

"경전공부하다 환희 느끼면 그것이 禪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선은 수단일 뿐입니다"

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불교를 선교로 나누곤 합니다. 그리고 교가 우선이니 선이 우선이니 하며 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가 어디있고 선이 어디 있습니까. 경전공부만 한다고 해서 교만 한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내가 경전공부를 하다 느낀 환희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앉아만 있다고 선은 아닙니다. 좌선은 수단일 뿐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묶어 나를 관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무엇에든 정신을 다른데 빼앗기지 않고 한군데로 집중시키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선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불이(不二)입니다.

다. 그것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여 공과 공성(空性)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질 자체가 공성일뿐 물질을 떠나면 공은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고정된 실체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공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입니다.

공을 산스크리트어로 '수냐(sunya)'라고 합니다. 이 원어는 '팽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산스크리트어 '타(ta)'를 붙이면 '팽창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띠게 됩니다. 팽창되는 것이 어찌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의 공성 속에 들어 있습니다. 평등하다는 것이죠. 평등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이라는 것입니다.

대승은 곧 공사상입니다. 그러나 중국

리더라도 아무 부담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가장 필요한 정신이 바로 이 무소유 정신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가지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영원히 자기 것인양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다 가지고 갑니까. 비단 재가자들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승가에서도 욕심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 대승불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승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내 것만을 고집하고 욕심을 낼 수 있습니까. 목탁 두드리고 염불만 한다고 승려가 아닙니다. 재가자들도 마찬가집니다. 절에 와서 기도만 한다고 불자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곳곳에 있습니다. 어디든 믿음자리 아닌 곳이 없습니다.

평생 경전을 벗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얻었습니다. 경전이야말로 부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저 문자에 얽매여서는 제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경은 이해되고 어떤 경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글자에 매여있기 때문입니다. 경전은 해탈을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해탈이 문자로 되는 것이 아니듯이 경도 문자로만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마음 깨우치는 이치를 알려주는 것이 경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보다 더 가치로운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경만이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은 나이가 있으니 예전처럼 밤을 새가며 경전을 읽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경전을 늘 곁에 두고 삽니다. 경전 읽는 것은 곧 수행이고 중이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니 그리 자랑할 것도 못됩니다만 젊은 스님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전 번역서를 내면서 중국식이 아닌 우리식 번역을 하려고 애써 왔는데 힘 닿는데까지 다른 경전들도 우리 불교에 맞게 번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무량수경〉 번역을 마치고 탈고중이고, 〈금강경〉도 번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마경〉도 기초작업을 진행중입니다. 특히 〈유마경〉은 후학들이나 재가불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대중에게 모두 회향하는 것이 이제 내게 남아있는 가장 큰 책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불교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찾는 가르침입니다. 선을 하면서 자기는 저쪽 한편에 제워놓고 열심히 찾습니다. 경을 공부하면서도 자기를 떼어놓고 진리를 찾으려 합니다. 자기를 찾으려 하면서 자기를 떼어놓고 있는데 제대로 찾을 수 있습니까. 선도 경도 자기를 찾는 방편일 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행복추구라는 가치도 바로 자기를 찾는데 있습니다. 승가의 본분은 어려운 세상을 구하고 모든 이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이요, 재가의 본분은 자기 생활에 충실하면서 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찾는 것입니다.

'한마음'이라는 단어는 평생을 두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마음'의 분신들입니다. 큰 물이 각각의 컵에 나누어 담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컵은 우리 육체를 의미합니다. 이 육체를 벗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각자의 가치를 찾는 것이고요.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는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한마음' 정신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고난의 역사를 짊어지고 왔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것이 절실한 때입니다.

정리=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경전은 탐구 아닌 믿음과 수행의 대상
무소유 바르게 이해 실천하면 국난극복

불이는 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만인들은 '안장 위에 사람 없고, 안장 밑에 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과 말이 일체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말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의 이치도 이와 같습니다.

나는 환희심을 체험한 그때부터 공(空)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공을 마치 영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 공이 된다고 생각하던 큰 잘못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내 실체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공입니다. 이런 공에 대한 그릇된 생각은 우리 불교가 그동안 중국불교에 의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중국불교는 '모든 존재는 무에서 나온다'는 도교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불교의 사고방식으로 공을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산스크리트적인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요즘 경전을 보면 논서를 보지 않고 옥편만 보고 해석하고 분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히 '번뇌를 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식 해석이며 잘못된 표현입니다.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표현이 옳습니다. 수행으로 얻어지는 것은 번뇌를 끊는 것이 아니라 '번뇌에 휩싸이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또 있습니다. 흔히 '깨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도대체 누구에 의해 깨우치는 것입니까. 깨달음은 스스로가 얻는 것입니다.

공은 또 무소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소유는 가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내게 맡겨진 것, 그래서 버

나의 수행일기



이 용 택

〈경주관광개발공사 사장〉

나의 수행생활은 주로 외부활동과 연계되어 이루어져 왔다. 각종 불자모임 결성을 도모하며 자신이 불자임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불자들을 한데 묶는데 최선을 다했다. 불자들을 모으고 활동하면서, 부족한 내 자신의 부분들을 새롭게 채워나가는 것이 내겐 큰 공부였다.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가 어느정도 뿌리를 내렸을 무렵 나는 조계종 전국신도회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내가 부회장직을 수행하던 그 해에 10.27법난이 일어났다. 당시 군인들이 법당을 무참히 짓밟으며 불교를 유린하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의 불자로서 참으로 암담하고 침통하기 그지 없었다. 분한 마음에 군사정부 당국에 항의문을 썼다.

"그렇게 혹독하던 일본 제국시절에도 종교성직자들이 예불 예배할 때는 체포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연행을 했는데, 하물며 대한민국 민족정부가 신도 벗지않고 법당을 짓밟는 것은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만행이다."

당국은 일본놈하고 군사정부를 비교 모독했다며 나를 잡아가겠다고 했다. 나는 나대로 법관의 영장없이 나를 체포해 갈 수 없다고 당당히 맞섰더니 다른 사람을 데려가 곤욕을 치르게 했다.

이같은 종교탄압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그같은 험한 일을 겪으면서 나의 신심은 더욱 굳어갔다.

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 국회에 들어가 권익현, 송지영 의원들과 국회의원 불자모임인 '정각회'를 만들었다. 송의원이 회장을 내가 부회장을, 권의원이 간사장을 맡아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불자의원들의 자연스러운 모임을 엮어나갔다.

정각회에 이어 전직 불자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정각동우회'까지 만들어 지금까지 10여년이 넘게 부회장직을 맡아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새정치국민회의 연등회에서 고문을 맡아 젊은 불자정치인들과 함께 나라와 불교의 미래를 위해 애쓰고 있다.

경주문화엑스포 홍보인연도 그렇지만 지난세월 동안 많은 인연들이 내 삶을 채워왔다. 그가운에 내가 신조로 삼고 있는 베푸는 삶을 처음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이끌어 준 대구 이영식 목사와의 인연을 잊을 수 없다. 75년 이목사는 곧, 사이판 등지를 돌다 제2차 세계대전때 한국인 정신대나 학도병으로 이국땅에서 목숨을 잃은 이가 5천여명에 이를 정도로 많았으나 전쟁 후 전부 화장해 드럼통에 넣어 사이판 숲속에 묻어놨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그 화장된 드럼통을 찾는 일에 마침 유격대 출신이었던 나에게 연락이 닿아 직접 그곳에 가서 드럼통 찾기를 몇번이나 실패한 후에 77년 '조선인묘'라고 표시된 그것들을 찾아냈다.

10·27 법난때는 군사정부에 항의
"불자 결집하자" 신행모임 만들어



모두 파내니 통이 3개나 됐다.

"불교는 윤회와 환생을 믿으니 불자인 자네가 맡아라"는 이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의 추념사업에 뛰어들었다.

이국땅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그들을 재화장해서 77년 5월 15일 망향의 동산 휴게소에 안장했다. 이후로 나는 다시 태평양연안에서 죽은 한국인 위령 위한 탑을 81년에 사이판에 세웠다. 파라후 공화국, 마이크로네시아, 마샤르공화국, 사할린등지에도 비석을 세웠다. 지금도 매년 1회 그들을 위한 위령재를 지내고 있으며, 우리동포들이 해외에 끌려가게 된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찾지못한 유골과 유가족은 너무나 많다. 이 모든 일을 정부지원은 하나도 없이 5백여 회원들의 회비로 이뤄내고 있다. 이렇듯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전쟁희생동포 추념사업에 내가 관심을 갖고 오랜동안 이어오고 있는 것도 모두가 나의 철저한 불교적 신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할 것이다. 〈계속〉

건·강·보·조·식·품·허·가

몸을 다스리는 (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등 「치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방장산)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 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간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영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청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 불 로 화 정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2개월분)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장생불사하면서 산에 사는 사람의 신선(仙山人)의 주식(主食)은 사계절에 푸른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놀라운 효능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나무는 자기 몸을 불태워 없앰으로써 불을 생(生)하기 (五行相生의 수생화중의 나무인 소나무는 동방(東方:五行의 三八木)의 나라인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사찰 및 민간의 비전(秘傳)된 많은 처방을 아는 여래치신(치신) 자연건강종합식품회사를 경영하는 시연스님과 지리산에서 30여년간 소나무만을 연구한 토종자 소나무임업장주(業場主)가 힘을 합쳐 만든 소나무자연건강강정(强精)종합식품이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이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마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봉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흙설탕 기타 여러가지 청기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강정종합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인데,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선식(仙食)으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만 먹어도 비만체중 20kg 이상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와 특히 당뇨병에 효력이 있으며 몸일 날아갈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 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 **【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건강강정종합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 구입문의: 053)628-9145/053)655-2227/011)808-8880
◐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대구여래원

남한강변 나옹화상 사자후 들리고…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신륵사 다층전탑. (보물 제226호).

불교문화 체험기행 9월

신륵사 · 목아박물관 · 고달사지

신륵사 다층전탑 무늬 이색적
고달사지 부도·탑등 보물 즐비
목아박물관 유물 6천점 전시

하나의 나무가 자비로운 미소를 띤 부처님으로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은 어떠한 것일까? 목각 부처님 탄생에 대한 호기심을 가득 품고 부처가 되고 싶은 나무를 만나고자 불교문화체험기행단은 13일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논의 황금물결 사이를 달려 여주로 향했다.

안개 속에서 언뜻언뜻 보이는 산자락이 신비한 기운을 더할 즈음 고달사지 발굴현장에 도착했다.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 소속 발굴팀이 주머니삽으로 한창 발굴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고달사의 기존 절터는 대부분 흙 속에 잠겨 있다. 과혜처진 흙더미 사이로 드러나는 옛절에 남아있는 유물들의 규모나 섬세함은 고달사가 얼마나 대규모 사찰이었는가를 짐작케 한다. 잡풀이 무성한 가운데 군데군데 발굴을 위한 줄이 쳐있고 흙더미가 쌓여있는 사지에는 세월도 그만큼의 무게를 자랑하며 짐게 드리워져 있다. 구본만 학예연구관(여주군청 향토사료관)의 설명을 받아 적으며 고달사지 곳곳을 둘러보는 기행단의 표정은 환희심에 가득 차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고달사지 부도와 혜진탑 귀부 앞에서 그 거대함과 웅장함에 숨을 멈추기도 했다.

고달사지에서 내려와 남한강을 따라 달리다 만나는 고찰이 봉일산라 말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는 신륵사.

"신륵사는 이 지역에 나타난 용마를 어느 스님의 신력으로 제압했다 해서 귀신 신(神) 제압할 륵(勒)자를 써서 지은 이름이예요. 특징을 들자면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찰이라는 것과 조사당에 지공·나옹·무학 세 대사의 영정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문화답사 등을 통해 마음을 닦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항상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신륵사 주지 세영스님의 법문이 가을햇살처럼 잔잔히 가슴에 와 닿았다.

고려말 최고의 선승으로 알려진 나옹화상이 입적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신륵사에는 보물 225호 다층석탑, 226호 다층전탑, 228호 보제존자 석종부도, 229호 보제존자 석종비, 230호 대장각기비, 231호 석등 등이 아직도 그 모습을 보전하며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다층전탑 너머 위치한 나옹선사의 입적 다비터는 남한강이 굽어보이는 곳으로 탑과 강원한이라는 정자가 남아있어 지나는 이들의 한자락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 신륵사에는 6백년 묵은 향나무와 은행나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절을 지키고 있어 경내에 향기를 더한다.

신륵사에서 점심공양을 한 기행단은 20분 거리인 목아불교박물관을 향해 발걸음을 서둘렀다.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불상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많은 손을 필요로 한다. 좋은 나무를 고르고 골라 말리고, 정성껏 조각한 다음 전통염료로 색을 입힌다. 그리고 개금을 하거나 금물로 무늬를 입히는 작업을 거쳐 은행처럼 가름한 눈매가 그려지면 불상이 완성된다. 완성된 불상은 점안식을 거쳐야 비로소 신앙의 대상이자 존엄의 상징인 부처님으로 인정된다. 이 과정을 고스란히 담은 영화 '부처가 되고 싶은 나무'를 관람한 후 신라부터 현대까지의 각 불상 등 6천여점의 유물이 소장돼 있는 목아불교박물관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불교조각이라는 분야가 처음 인정을 받은 것이 10여년 전입니다. 그때 전 3년여에 걸쳐 1천년 묵은 나무를 일본에서 수입해와 법상을 조각했습니다. 불심이 없었더라면 법상을 조각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각이란 나무를 쪼아 부처님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생선을 싼 종이는 비린내가 나고 향을 싼 종이는 향내가 나듯 나무도 장작이 될 수도 있고 장엄한 부처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교조각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아끼지 않은 박찬수관장(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은 이어 모시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십전(十殿)에 대한 설명도 들려준다. 제1전은 석가모니를 모신 대웅전, 제2전은 아미타부처님을 모신 극락보전·아미타전·무량수전, 제3전은 비로자나부처님을 모신 비로전·대적광전, 제4전은 미륵부처님을 모신 미륵전·용화전, 제5전은 약사여래를 모신 약사전, 제6전은 관세음보살을 모신 관음전, 제7전은 부처님일대기를 담은 팔상전·팔상성전, 제8전은 대장경을 모신 대장전, 제9전은 명부전·지장전, 제10전은 오백나한을 모신 응진전·나한전이다.

전문가들의 안내를 받아 불상과 전각, 부도, 탑 등을 현장에서 직접 보며 공부한 때문일까, 귀경하는 기행단의 얼굴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다.

글=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신륵사는 보제존자 나옹스님이 입적한 사찰이다. 나옹스님 부도앞 석등에 관해 구본만 학예연구관의 설명을 듣는 모습들이 진지하다.



◇신륵사에 입적한 고려시대 고승 보제존자 나옹화상의 부도(보물 제226호). 팔각원당형이 아닌 라마탑 형식이 독특하다.

고달사지는

고려시대 5대 사찰의 하나라고 전하는 고달사. 현재 남아있는 사지에는 국보급 석조문화재들이 즐비하다. 그러나 대단한 역사를 가진 불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찰의 영역은 물론 기본 가람배치에 대한 학술적 사료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비지정 실물들은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어 학계의 안타까움을 사왔다. 이에 고달사지의 발굴복원을 계획한 경기도박물관은 내년까지 정밀발굴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 고달사지에 대한 중장기종합발굴조사계획(10개년)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신라 경덕왕 23년(764)에 창건했다고 전하는 고달사는 국가가 관장하는 사찰로 왕실의 비호를 받아왔던 곳이다. 신라시대 이래 희양원, 도봉원과 함께 삼원의 하나로 인정받던 대사찰이었으나 고려말엽에 폐사되었다.

현재 사지에는 국보 4호 고달사지 부도를 비롯하여, 보물 6호 원종대사 혜진탑 귀부 및 이수, 보물 7호 원종대사 혜진탑, 보물 8호 고달사지 석불좌 등이 남아있다. 특히 고달사지 부도는 팔각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기단석도 사각이 아닌 팔각으로 조성되어 있어 고려시대를 대표할 만한 부도이다. 이러한 형식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특이한 양식이다. 이러한 지정문화재 외에도 또 다른 귀부와 초석, 계단 등이 무수한 역사를 품고 있음이 여러 사서에 나타나고 있어 조직적인 발굴 및 복원이 필요한 곳이다. 고달사지 부도는 1대 주지인 원감대사의 부도라는 논란이 있다. 이는 원종대사 부도의 용머리가 고달사지 부도를 향해 쳐다보고 있는 모습으로 인해 원종대사가 사조인 원감대사에게 존경과 그리움을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현존 최대부도
비지정 문화재 다수 방치
발굴·복원 10개년 계획

혜진탑 귀부 및 이수, 보물 7호 원종대사 혜진탑, 보물 8호 고달사지 석불좌 등이 남아있다. 특히 고달사지 부도는 팔각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기단석도 사각이 아닌 팔각으로 조성되어 있어 고려시대를 대표할 만한 부도이다. 이러한 형식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특이한 양식이다. 이러한 지정문화재 외에도 또 다른 귀부와 초석, 계단 등이 무수한 역사를 품고 있음이 여러 사서에 나타나고 있어 조직적인 발굴 및 복원이 필요한 곳이다. 고달사지 부도는 1대 주지인 원감대사의 부도라는 논란이 있다. 이는 원종대사 부도의 용머리가 고달사지 부도를 향해 쳐다보고 있는 모습으로 인해 원종대사가 사조인 원감대사에게 존경과 그리움을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달사 원종대사 혜진탑비 귀부 및 이수. 높이 2m. 975년 조성. 보물 제6호.



◇목아불교박물관 박찬수관장은 불상의 탄생과정과 우리나라 불상조각의 특성에 대해 관련 영화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목아박물관 앞뜰 목조불상. '부처가 되고싶은 나무'는 이제 나무가 아니다.

성·동·석·재·불·사·공·예·사

귀의 삼보하옵고,
20여년 동안 쌓은 섬세한 조각기술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작품조성으로 보답하고자 하오니 고승대덕 큰스님 및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대표 김 성 표 합장







성동석재불사공예사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성동 5리 822-2
전 화 : 0357)531-8736 호 출 : 012)321-6044
팩 스 : 0357)531-5549 핸드폰 : 011)284-510

氣 치료 능력 전수

수년 혹은 수십년씩 기공 수련을 해야 가능했던 氣 치료 능력, 氣 응용 능력이 비법의 재발견과 그 과학화에 힘 입어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일로 바뀌었다. 레이키(REIKI · 靈氣)요법이 그 비법이다.
레이키 요법은 그 비밀성으로 인해 전승이 끊겼던 티베트 밀교의 한 비법이 20세기 초엽에 일본의 수행자 우스이 미카오(1865~1926)씨에 의해 재발견된 후 미국으로 전승되어 미국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그 방법이 과학화, 표준화, 체계화, 간략화되면서 1980년대부터 영국 등의 의료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세계화되고 있는 氣 치료법, 氣 응용법이다.
국민 대다수가 건강 불안과 생활불안을 안고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욱 간편하고 더욱 효과적인 건강법과 생활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것이 레이키 요법이다.
이 레이키 요법은 자격있는 레이키 마스터에게서 전수만 받으면 누구나 단시일내에 氣 치료능력자, 氣 응용능력자가 될 수 있는 비법중의 비법이다.

⊙레이키 요법의 전수 절차
레이키요법의 전수는 모두 3단계로 이루어지며, 총소요일수는 5~10일 정도이다. 필요하면 이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도 있다.

⊙레이키 요법의 전수 대상자(4세~83세)
1 스님을 비롯한 성직자와 의사등의 의료직 종사자
2 남에게 좋은 일하며 살기를 원하는 분
3 새로운 직업(레이키 요법가)을 가지려는 분
4 만성병을 스스로 치료하고 다스리려는 분
5 만성병을 앓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
6 가정과 사회를 평화롭고 운세좋게 하려는 분
7 자기와 우주, 이 세상과 저 세상, 영계계와 암계계가 한 덩어리임을 깨달으려는 분

⊙레이키 요법의 응용
1 음식물, 물, 약, 씨앗, 사료등에 氣를 넣는데 쓰인다.
2 감정, 마음, 카르마(업),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행동장해 등을 개선하고 영성을 개발하는 데 쓰인다. 미용효과 단식효과를 올리는 데 쓰인다.
3 원격치료, 동식물의 치료, 환경을 정화하는 데 쓰인다.
4 소망성취, 미래에 일어날 일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데 쓰인다. 기타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

레이키마스터 번역 저술가 박희준 (朴熙俊)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 B/D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02)720-5682, 725-2311

건강에의 신비! 옥
特川 玉山家 玉
玉 태교에서 무덤까지 玉을 달고 산 한국인들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 처녀가 옥을 접하면 신비한 미인이 되고 중년여성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살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팬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王室養命術』에서)
❖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흰쥐를 기른 결과 숫놈 쥐의 정자가 40%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 특히 심장질환, 두통, 불면증환자의 그 절반정도가 완치 효과를 보았고 그외 나머지는 37%~84.8%의 치유효과를 보았다.
(북경중의병원 임상 보고서)

제품 옥목걸이외 장신구, 침대침구류, 기초화장품, 옥도자기등

• 옥의 명성은 2000년전 중국 신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진옥(眞玉)은 이제 전설속으로 사라지고 오늘날은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기옥만이 강한 기(氣)가 방사될 뿐입니다. 이옥의 효능과 명성을 모방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옥들이 춘천옥 자연옥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랑테스트 한가지 만으로도 쉽게 구분됩니다. 진옥이라야 승패가 결립니다.

玉山家® (02)777-0105 (백오옥)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밖으로 구하면 노예 생활과 같아

주인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 스님 법문에서 주인공에 맡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내 몸 속에 있는 것인지, 우주 허공법계에 가득찬 것인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과 주인공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염불이나 기도를 꼭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여쭤보는 겁니다.

내 앞에 주어지는 대로 충실하고 진실하게 하는것이 부처님 법이며 여여함 입니다

답 수행의 문은 많이 있습니다. 염불을 해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경을 읽어 가는 문이 있고, 선을 해서 가는 문이 있듯이 이 문 저 문 여러 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 나가면 모두 다른 문이 아닙니다. 주인공! 즉 마음 자체는 내 놓을 수도 없고, 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빛깔도 없습니다. 허공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지금 거사님이 말을 하는 것도 주인공이 없으면 말을 못해요. 그것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다스리며 이끌고 다니는 참 자기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성입니다. 자성불이 공해서 돌아가니 주인공이에요. 고정됨이 하나도 없이 돌아가니까요. 그렇게 붙잡을 것이 없으면서 여전히 말을 하게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나게 하고, 이것 저것 보게 하고, 이것 저것 듣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입증이 안됩니까?

아침마다 법신불에 기도해요

문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룩하신 법신불이시여'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주인공이시여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그와 같은 방법은 밖으로 향하기 때문에 기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해주십시오' 한다면 노예생활에 불과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며 죄를 사해주시오' 하고 아무리 해도, 자기가 해 놓은 일을 우주법계에서 알고 있는 이상 죄는 사해지지 않고 공덕은 하나도 없으며, 어느 것 하나도 실행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그 땅을 짚고 일어나는 법이지 다른 곳을 짚고 일어나는 법이 없죠. 거기서 나오는 거라면 거기서 해결을 하게 해야지요. 다른 곳에서 해결을 해주고 빼앗아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끌고 다니는 참 자기부터 알아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왔는지 알면 어디로 갈 건지도 알 것이고, 어디로 갈 건지 아는 사람은 현실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 것입니다. 그러니 '법신불이시여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오' 한다면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지요.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해주십시오 하면서 밖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좇고 좇기면서 진화시켜온 그 장본인이 바로 자기이며,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니 모든 것에 얼마나 경험이 많겠어요. 그러니 안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일체 만법을 응용하는 것으로 말하고 듣는 것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생사도 거기에 있음을 알아야 해요.

나는 육신을 가지고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으며, 나에게 돈이 있다면 나는 관리인일 뿐이지 내 것이 아니고, 주인 것이니 주인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거기에서만이 할 수 있다는 걸 진심으로 믿어야 해요. '할 수 있다' 이지 '해주시오' 가 아닙니다. '해주시오' 는 벌써 둘로 보고 비는 게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바로 믿고 들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행이며 실천하는 것이죠.

생멸과 불생불멸의 정체는

문 평소에 자신을 되돌아 보면, 마음이란 끊임없이 생멸하는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생멸하는 마음의 정체는 무엇이며, 불생불멸하는 한마음과는 어떻게 다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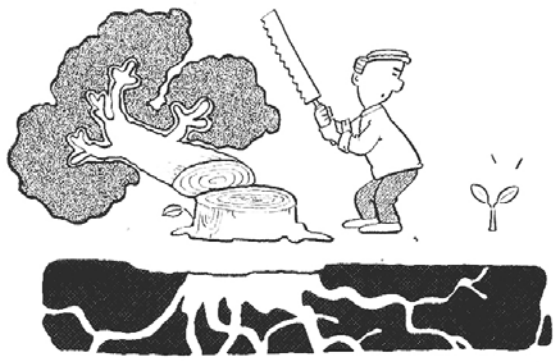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게 닥치는 안팎 경계 공부시키는 재료 근본성품 둘 아닌데 너·나 가르는게 무명

답 쉽게 말해서 생멸과 불생불멸이 다르다고 할 때,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사람이 없어질리 없습니다. 나무를 베어 없앴다고 해도 나무 그 자체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을 뿐,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생각할 때 생멸이지만, 포괄적으로 볼 때는 불생불멸인 것입니다. 부서지고 변하고 하면서도 이 진리는 끝이 없고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생불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깨달으면 불생불멸이라는 그 언어에도 끄달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탐구와 수행 상반되는지…

문 저는 평생 세속의 학문과 지식을 탐구해 보고 싶어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량심과 분별심을 버리고 주인공에 맡겨야 된다고 하십니다. 평소에 그렇게 학문과 지식의 세계를 탐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량심과 분별심을 기르는 작업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세계로 들어간다면 한마음 법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요.

답 세상살이 만사가 학생 마음에 가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떠한 공부를 한들 부처님 법 아님이 없는데 예를 들어, 인간도 뿌리가 있어야 몸이 있고 몸이 있어야 행이 있듯이 모든 건 주인공,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 해도 함이 없이 하라 이 소리입니다. 학생의 송장덩어리가 보는 게 아니거든요. 눈이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손을 움직이게 하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등 전체를 움직이게 하니 전체를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망상이고 저건 망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바와 같이 '일체가 나 같이 살라 한다' 했으니 하나도 버릴 게 없다 하는 것이죠. 내 앞에 주어지는 대로 충실하고 진실하게 하는 것이 부처님 법이며 그대로 여여함이에요. 그 책을 누가 보게 하고 누가 생각을 하게 하는지 그것을 알면 돼요.

가족의 불화 · 불행 심합니다

문 한마음선원에서 펴낸 큰스님 말씀을 담은 여러권의 책을 읽어 봤습니다. 읽을 때는 그래 바로 그거야 모든 것이 나로 인해 출발하는 것이야 큰스님의 가르침대로 내자신을 깊숙히 관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며 남이 남이 아닌 듯 나로 여기고 행하면 고도 고가 아님을 순간 알지만 다시 눈을 들어 생활을 하면 오로지 철저하게 나만을 생각하게 되고 남의 불행을 보면 내가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먼저하게 됩니다.

어려운 것은 피하게 되고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합니다. 시어머니로부터 한마음선원에 자주 나가서 마음공부도하고 좋은 법문도 듣고 오라는 권유도 늘 받지만 가야지 하면서 늑장을 부리거나 꾀를 내어 발길을 돌립니다. 큰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면 어떠한 자세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저의 주변에는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화목하지 못하고 늘 다투는 모습을 보아왔고, 이복 남동생은 너무 흔들리고 나약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야 언제나 동생이 안스럽고 불쌍한 마음이 가지만 만나서 얼굴을 보면 고운 말한마디가 나가지 않게 됩니다. 정말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의 시댁에는 막내 시동생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시어머니나 가족들이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큰며느리라 시댁에 갈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고 시부모님 사후에 어떻게 막내 시동생을 대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앞이 깜깜합니다. 시동생이 간혹 스트레스 풀이로 어머니나 가족을 구타하여 고생이 상당합니다. 큰스님 정말 두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업으로 인해 저에게 다가온 것이라도 무섭습니다. 저의 남편도 일이 잘 안풀려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문제는 저희 부부가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라지만 저와 인연을 맺은 가족들의 불화와 불행한 삶은 제가 어떻게 해야 평화롭고 행복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저의 가족들이 이제는 편안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서로 따뜻하게 의지하며 살았으면 하고, 저의 남동생도 어른스러운 생활을 하고 인생에서 고달픈 방황을 그만 했으면 합니다. 막내 시동생도 빨리 정신병에서 풀려나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갔으면 합니다. 너무 바라기만 하면 안되겠지요, 큰스님?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답 내가 무엇을 바라기 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자아부처에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놓고 관하는 법부터 배워서 실천해 보세요.

누군들 마음 편하고 즐겁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만 이 도리를 모르고서는 쳇바퀴에서 벗어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실은 너무 짓눌려서 애를 쓰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마음공부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겁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을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거부한다 해도 현실입니다. 그것을 탓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서지도 않을 뿐 아니라 누가 대신 아파주고 대신 떠 안아줄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아궁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까운 지원엘 가시거나 본원 스님들께 놓고 관하는 법을 배워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운 금팔찌 때문에 고민

문 일주일 마다 마음공부 함에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 하고자 학교 뒤에 있는 사찰에서 108배를 올리고 나서 학교사워실에 들어가는 순간 24K 순금 팔찌가 놓여져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사워하고 가져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것을 본 순간 여러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자성부처가 백중날 천도할 비용으로 준 것이 아닐까 등 다른 생각이 무수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큰스님 가르치심에 모르면 머리 굴리지 말고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서 믿고 놓아라 하는 말씀이 떠올라 그것을 가지고 경비실에 신고하고 나서 분실물 찾아 가라는 종이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 한 귀퉁이 개운치 않은 점이 있어서 내가 잘한 짓인지 못한지 판단이 일어납니다. 큰스님 법문을 부탁합니다.

답 내게 닥치는 안팎 경계가 다 나를 공부시키는 재료요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경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거기에 얽매여 울고 불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놓고 관하라 했습니다. 번연히 사리가 어떻다는 것을 아는 경우라면 놓고 관하고 할 것도 없이 즉각 행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더는 무슨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85)

자기 보궁의 열쇠를 잃고 남보고 열어 달라고 할까.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면 마음의 열쇠를 받을 수 없다.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궁의 열쇠를 맡기겠는가. 내 속에 칠보가 가득 차 있으니 못났다는 생각, 잘났다는 생각 다 버리고 자기를 믿어라. 자기부처를 믿어라.

자기부처야말로 안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다. '되게 할 수 있다.' 고 굳게 믿는다면 돌 위에 세워 놓아도 산다.

자신의 본래 모습인 자기부처, 주인공을 철저히 믿어라. 절실한 마음으로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모든 경계를 되돌려 놓아라. 주인공은 어디 있는가? 인격체인가? 텅 빈 것인가? 하는 따위의 생각은 필요없다. 오로지 간절한 믿음만을 앞세워라. 수억겁 이전부터 자신을 끌고 다니며 공놀이를 해 온 근본을 어째서 믿지 못하는가?"

자신을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의아해 한다. 날 믿으라니? 내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이 세상에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도 많겠지만 인간의 능력엔 한계가 있게 마련인데 믿어봤자지 별 수 있겠나? 그런 생각부터 떠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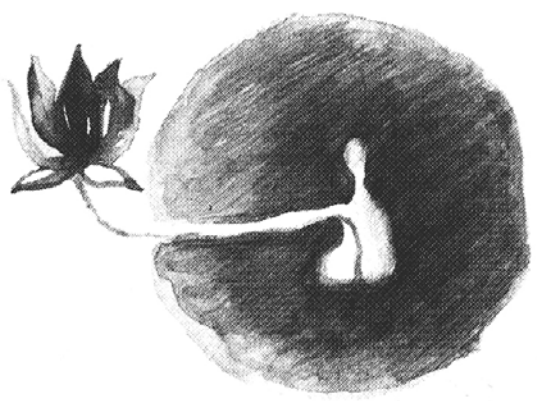
그래도 믿을 곳은 자신밖에 없다고 하면 또 '제겐 원력이 없어서'하든가 아직 공부가 덜 되어서…'라고 대꾸한다. 일단은 맞는 말이다. 사람의 능력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 능력엔 한계가 있다. 멀리 볼 것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제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하는 사실만 보아도 그렇다.

하고 싶은 게 좀 많은가? 하지만 내 힘으로 그걸 다 이룰 수 없으니 자기가 자기를 믿어본들 '그게 그것'일테지.

그러기에 사람들은 '어디 능력자는 없나?' '어디 영험한 곳은 없나?' 하고 찾아 헤메게 된다. '부처님 도와주십시요.' '관세음 보살님 살펴주십시요.' 하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유위법으로 보면 인간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개인적인 차이도 현격하다. 그래서 더 많은 능력을 원하게 마련이고 그것을 키울 방도를 따라 노력도 하게 된다. 나보다 나은 능력자를 찾아 그에게 의지해 보기도 한다. 급기야는 '전지전능한 분'에게 매달리고 싶어진다. 하느님! 부처님! 보살님!하게 되고 여기 저기 찾아다니며 빌어도 보고 갈구도 해본다. 그러니 자기를 믿을 새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면 마음의 열쇠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유위법이 아닌 무위법을 이름이다.



제 육신을 갖고 뛰는데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라도 육신을 갖고는 1초에 10미터를 뛰기도 어렵다. 하지만 마음으로야 1초에 달나라인들 못 가겠는가. 무위법엔 한계가 없다. 시간의 한계도 없고 거리의 한계도 없다. 그야말로 즉각이다. 한생각 일어나는 찰나에 마음은 어디든 갈 수 있다. 걸리는게 없다. 안 통하는 데가 없다.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으니 바로 보배를 지니고 있음이요 스스로 무한 능력자인 것이다. 일체중생이 다 부처될 자격을 갖고 태어났다는 말은 바로 마음법을 이른 것이다. 일체유심조라고 할 때의 그 마음은 아무런 걸림이 없어 그야말로 무애자재한 마음을 말한다. 그런 마음이니 누구나 다 제속에 칠보로 가득찬 보궁이 있다고 하지 않겠는가.

보궁은 닫혀있다. 하지만 잠겨있다는 것은 열쇠만 있으면 누구라도 열 수 있다는 뜻이다. 열쇠만 손에 넣으면 무한량의 보배가 내 발 앞에, 내 치마폭에 쏟아져 내리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귀가 닳도록 이치가 그렇다고 말해주어도 믿으려 하질 않는다. 믿질 않고 밖으로 찾아 헤멘다. 동냥 바릿이 몸에 배기라도 했다는 것인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어찌면 그렇게 헤메려 할 것이다. 매화가 피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산천을 헤메다가 지쳐서 돌아왔더니 뜰 앞에 매화가 벙그러져 있더라는 얘기와 같다.

오늘의 자기를 여기 이렇게 존재하도록 만든 그 주인공.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선 그 주인공을 믿고 봐야지 달리 무엇을 믿겠는가. 에까지 끌고 왔으니 내일도 끌고 갈 것이거늘 그 사실조차도 믿지 못한다면 무얼 믿겠는가. 가서 빌면 청을 들어주고 내 대신 일을 해준다는 확약이라도 받았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건 제 생각으로 제가 그렇게 믿는 것에 불과하다. 거길 믿으면서 자기 참부처, 주인공은 왜 못믿나?

협찬 : 박문선 김병일 김윤기 김세옥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자기 끌고 다니는 참자기 알아야

☞ 15면에서 계속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병원서 준약 먹어도 되나요

문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간 정신병원에 20여일 입원을 했는데 거기서 주는 약을 먹어야 할 지입니다. 지금은 통원치료 중입니다. 먹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더행스님께서 정신과 약을 별로 좋지 않게 말하는 것 같아서요.

답 나는 병원에 가지말라 가라 하지도 않고 의사가 준 약을 먹어라 먹지말라 하지도 않습니다. 또 동으로 가야 옳다 서쪽으로 가야 옳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마음도리를 바르게 터득해서 생활 속에 그대로 실천하는 길을 일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번 답을 해드렸으니 문자로 헤아리지 마시고 뜻을 아셔야 합니다. 놓고 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세요.

주인공 세워 놓고 거기에 놓고 가면 나란 생각 사라져 삶이 자연스럽고 내가 죽어 참성품을 보게 됩니다

원치 않는 생각 떠올라 고통

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스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경계를 주인공에 놓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놓는 주체인 '나'는 누구이며 '주인공'은 또 누구입니까? 그리고 큰스님 저는 끊임없이 제 마음 속에서 제가 원치 않는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무척 힘이 듭니다. 큰스님께서 이미 제 마음을 다 아시기에 이렇게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큰스님께서는 항상 자비로 가르침을 주시지만 제 마음이 아직 미혹해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스님께 여쭙니다.

답 놓는 나와 주인공은 둘이 아닙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 또한 주인공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주인공!' 할 때면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다 싸잡아서 '주인공!'하는 것이기에 한마음주인공이라고 해도 됩니다. '나'와 주인공이 별개의 주체라는 생각은 우리가 개별적인 '나'가 있다는 고정관념에 묶여서 매사를 둘로 보는 습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둘로 보는 관념의 벽을 넘어서야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세워 놓고 거기에 닥치는 대로 놓고 가면 첫째로 '나'라는 생각이 발 붙일 곳을 잃어 놓는 삶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죽어 참성품을 보는 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좋다 싫다,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는 그것까지도 닥치는 대로 놓고 이 몸은 시자로서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됩니다.

본래 부처인데 괴로움 생긴 까닭

문 저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자성본래불! 일체는 본래 부처라고 하는데 그 맨처음의 부처의 상태로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벌레나 인간이나 천신 등으로 화하여서 괴로운 일도 생기고 기쁜 일도 생기는 것일까요? 부처인 그대로 있었으면 말 그대로 극락이 아닙니까? 부처는 모든 번뇌와 업을 녹일 수 있고 녹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이하로 나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문이 한 달 전부터 생겼는데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서 이렇게 큰스님께 여쭙니다.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어느 새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다니 참으로 장하네요.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은 부처였다가 중생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체중생은 다 스스로 부처될 성품을 지녔기에 근본에 있어서는 부처와 다를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깨우치면 그대로 부처인데 네 부처, 내 부처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만명이 깨우쳐도 그 부처는 한 부처인 것이지요. 그런데 누구나 다 부처될 성품을 지녔으면서도 왜 부처로 살지 못하느냐 하면 그게 바로 무명때문이지요. 그러면 뭘 무명이라 하느냐? 본래는 너, 나가 없고 근본 성품에서 둘이 아닌데 그걸 모르고 너니 나니 하고 가르는 게 무명이고, 또 이 세상 만물은 다 인연도리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 뿐인데 그걸 모르고 '나'나 '너'가 고정되고 개별적이라고 믿는 게 무명입니다.

저 물도 그냥 물이지만 얼게 되면 얼음이라고 하지요. 얼음이 녹으면 그냥 물이구요. 부처 중생의 차이란 그렇습니다.

어머니와 갈등 잦아 불편

문 큰스님, 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어머니로 인해 반복되어 올라오는 마음의 경계가 있습니다.

주로 성격차와 가치관 차이인데, 저는 어머니의 말씀이 때때로 매우 못마땅하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많이 언짢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솟은 감정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조리있게 얘기하는데 익숙치 않은 저는, 조용한 성격을 편리한 도구로 삼아, 또 안으로 굴리고 녹이라는 가르침을 핑계 삼아 어머니와 겉으로 부딪치는 것을 피해왔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연방 끓어오르고 어머니와 막 싸우고 해도 막상 밖으로는 표를 잘 내지 않았는데, 요즘 몇 번 소리도 내고 감정적으로 불편해보니 역시 이해에서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속에 있는 말을 한다면 어머니와 저 사이에 오히려 벽이 생겨 저 혼자 갖고 있는 것만도 못할 것입니다.

저는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와 저의 인연이 참 알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만 우선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다 각자 자기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스님, 어머니는 늘 외할머니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하신 데, 특히나 할머니가 당신 잠깐 마음 편하신 것만 알지 무책임한 사람이라며 때로는 우리 앞에서도 할머니께 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똑같이 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으로서(정도는 다를지언정)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언짢습니다. 저희 3대가 다 이 공부를 오래 하고 있는데 이 갈등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문인데, 닥친 경계에 소리없이 순간을 넘기더라도 제대로 가는 사람과 무책임한 사람의 차이가 내적으로는 물론 외적으로도 어떻게 다른지요? 저의 경우, 어머니를 통해 오는 경계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나가야 옳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싸전엘 가보면 쌀은 쌀끼리 콩은 콩끼리 모아 놓았지요. 서로의 인연따라 그렇게 모여 사는 것인데 첫째로 누굴 탓하겠습니까? 탓이 있다면 내가 있음으로써 그런 일도 생기는 것이니 내 탓으로 돌려야 하겠지요. 둘째로 말씀이 매우 못마땅하다 하는데 그러기도 하겠지만 일일이 옳으니 그르니 한다고 달라지긴 어렵지요. 그래서 안으로 굴려서 나온 그 자리에 되놓으라는 것인데 보아하니 놓는 게 아니라 참고 있군요. 때로는 말로 행동으로 하기보다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겠지만 놓고 가라는 것의 참뜻은 참으라는 게 아니라 녹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잘 알아 들으셔야 합니다. 놓고 놓아서 먼저 내가 녹아야 마음으로 상대를 녹일 수 있지 나는 녹지 않고 그대로인 채로 놓았으니까 상대가 녹겠지 한다든가 '주인공 너 만이 할 수 있어'하고 말로만 그렇게 한다면 그건 맷돌의 심봉이 딱 맞지 않은 것처럼 헛돌게 되고 공덕도 없게 됩니다.


그림 · 최주현

이 도리는 여러 말 필요없이 내가 죽는 공부입니다. 먼저 내 마음에서 상이 죽어야 진정으로 놓아지고 마음으로 툥신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요. 저 공테이프 얘기를 아시는지요. 놓는 것은 내 속에 입력된 것들을,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의 경우 못마땅하다, 싫다, 피하고 싶다, 무책임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들을 진다는 그런 것 없이 보는 순간에 한마음이 된다면 그대로 건져지는 도리가 있지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그냥 마구잡이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보고 한생각 일으켰다면 마음으로 그 소를 건진 셈이 되니 육으로 건져야만 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보시 중에 재물보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당장 밥을 굶게 된 사람에게 허기를 면케 해주는 일을 어찌 가상치 않다 하겠습니까? 살아가는데는 그런 보시도 필요하고 마음보시도 필요한데 다만 무주상의 마음보시는 방편보시에 비해 근본을 건지는 것이니 보시는 보시대로 하되 무주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수억겁 거쳐 오면서 전자에 입력된게 풀려나오는 것이니 그것 탓하지 말고 나오는 족족 놓는 연습을 하세요

대로 하는 그런 물질로 바꾸어 주어야만 한다고들 합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최근 들어 조금씩 되고 있어서 계속 찾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플라스틱과 같은 물질을 쉽게 공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찾지 못해서 그냥 태우거나 땅에 몰래 묻어버리거나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플라스틱도 어차피 지수화풍으로부터 만들어졌으니 왔던 곳으로 돌아갈 터인데 다만 돌아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문제점이므로 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도리를 찾을 수 있다면 이 문제도 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생활 자체이고 과학인 불교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 차원에서의 인연공법의 원리에 대해서 큰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답 마음으로 먼저 설계를 했으니 그 설계에 따라 현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조요 진화입니다. 인연공법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썩지 않는 물건을 만들어야 겠다고 설계를 하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플라스틱같은 물건이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와서는 반대로 공해때문에 골치가 아프니까 같은 물질이라도 쓰고 버리면 잘 썩는 물질로 그 성질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 또 연구를 해서 지수화풍으로 쉽게 되돌릴 방법을 찾게 되겠지요. 인연공법으로 말입니다.

날 보고 그 방법이 뭐냐고 물으시기 전에 이왕 마음을 내셨으니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안되라는 법 있습니까?

마음 모나지 않게 둥글고 인의롭게 쓰도록 놓고 놓아 내가 녹아야 상대 녹일 수 있어

플라스틱 쉽게 썩히는 방법

문 저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의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환경 문제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들 예견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선진국들이 그린라운드다 이산화탄소 규제협약이다 해서 환경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제 무역 통상의 기준을 환경과 관련 지을으로써 물건 하나를 사고 팔아도 환경 친화적인 것이 아니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규제를 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구도 살리고 그 위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도 살린다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따라 주어야만 할 그런 것입니다만, 우리 나라와 같이 선진국의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나라들은 당장 생산과 소비를 포함한 모든 경제 활동에 크나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한 나라의 생존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하고, 썩지 않아서 땅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플라스틱과 같은 물질은 쉽게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면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가 할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런 물질로 바꾸어 주어야만 한다고들 합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최근 들어 조금씩 되고 있어서 계속 찾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플라스틱과 같은 물질을 쉽게 공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찾지 못해서 그냥 태우거나 땅에 몰래 묻어버리거나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플라스틱도 어차피 지수화풍으로부터 만들어졌으니 왔던 곳으로 돌아갈 터인데 다만 돌아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문제점이므로 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도리를 찾을 수 있다면 이 문제도 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생활 자체이고 과학인 불교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 차원에서의 인연공법의 원리에 대해서 큰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답 마음으로 먼저 설계를 했으니 그 설계에 따라 현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조요 진화입니다. 인연공법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썩지 않는 물건을 만들어야 겠다고 설계를 하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플라스틱같은 물건이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와서는 반대로 공해때문에 골치가 아프니까 같은 물질이라도 쓰고 버리면 잘 썩는 물질로 그 성질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 또 연구를 해서 지수화풍으로 쉽게 되돌릴 방법을 찾게 되겠지요. 인연공법으로 말입니다.

날 보고 그 방법이 뭐냐고 물으시기 전에 이왕 마음을 내셨으니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안되라는 법 있습니까?

부정적 마음 버리면 참나 보는지

문 대행스님을 인터넷으로 친견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진리의 길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큰스님께서 말씀하시고 항상 강조하시는 주인공 자리에 모든 것을 놓아라는 말씀의 의미를, 저는 사람의 마음에는 교만한 부정적 마음 상태와 겸손한 긍정적 마음 상태가 있는 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나를 낮추고 나를 내세울 때 내세우면서 나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내 마음은 고요한 상태가 되고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되면 주인공 자리와 통한다는 의미로 파악이 됩니다. 즉, 부정적 마음 상태(교만, 자만, 증오, 거부, 미움, 지나친 자존심, 질투, 지나친 비굴, 열등감)를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고요하지가 않고 마음 편안하지도 않으며 심리적으로 괴로움을 느낍니다. 따라서 내 자신이 그러한 부정적 마음가짐을 가짐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는 주인공 즉 우주의 근본 자리와는 만나질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긍정적 마음 상태(반성, 겸손, 사랑 등)를 가지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마음 상태도 고요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닷물과 같아서 세상일에 이리저리 끄달리는 마음(즉 부정적 마음가짐)을 가짐으로 인하여 고요하지 않은 마음 상태가 되고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항상 어떤 욕망이나 아집, 오만, 자존심 등의 부정적 마음가짐으로 인하여 바닷물의 파도가 일듯이 마음이 항상 요동을 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인공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나 짐작을 합니다.

그 파도(부정적 마음가짐)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물론 가라앉힌다고 하는 것도 집착이 될 수 있겠지만 굳이 말로 표현을 하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긍정적 마음가짐을 가지면 파도가 잠잠해지고 보이지 않던 밑바닥 즉 주인공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곧 나를 버리고 내가 죽어야 참나를 볼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저의 해석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지 큰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 파도가 가라앉아야 밑바닥이 드러나 보인다는 말씀도 마음공부의 한 방편은 되겠지요.

나도 항상 이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모나지 않게 둥글고 인의롭게 써라, 하심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앞세우고 남을 무시하고 걸핏하면 옳으니 그르니 시비를 하는 마음이라면 이 공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지요. 믿고 놓고 관하는 공부는 선한 것 악한 것, 되는 것 안되는 것을 몽땅 놓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은 그것대로 감사하며 놓고 안 되는 것은 또 그것대로 한생각 돌려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며 놓고 가는 것이지요.

몰록 놓는데 옳으니 그르니의 분별이 따로 붙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하기 전에 잘된 것은 '응, 그랬어!'하고 놓고 안된 것은 '주인공, 너 알아서 해!'하고 놓으세요. 말하자면 '나'가 빠져 내가 죽는 공부입니다. 이 공부는,

장래문제 불투명해 낙담

문 저의 앞길에 대한 생각이 불길처럼 일어나 초조한 생각에 스님께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토목기사 공부가 잘 되지 않고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낙방이다'라는 생각이 올라오고 졸업 문제와 귀향 후 어떻게 이 기사공부를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30살이라는 허탈감과 살아갈 나날에 대한 답답한 생각이 튀어나옵니다. 놓아버리고 관하려 무지 애를 써도 이 생각들이 저를….

어떻게 하면 이 생각과 앞으로 주인공 공부를 잘 해나가겠는지요.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고, 또 다시 부적, 운명에라도 의지할까라는 모든 생각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어남에서 벗어나 자유자재할 수 있나요.

답 놓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자신의 장래문제에 대해 이런 저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 생각조차 안 한다면 목석이지 사람이겠습니까?

놓으란다고 그냥 다 잊고 바보처럼 살라는 것도 아니고 생각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놓으라는 것은 '나다' '내 것이다'하는, 말하자면 아상을 놓으라는 것이지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한다'가 아니라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하고 놓고 관하라는 겁니다. '관'이 빠져서도 안되지요. 놓고 관하려 해도 자꾸 딴 생각이 튀어나온다고 하는데 수억겁을 거쳐오면서 전자에 입력된 게 그렇게 풀려 나오는 것이니 그것을 탓하지 마시고 나오는 족족 놓는 연습을 하세요.

또 장래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생각 안하겠다 해서 정말로 생각이 안나겠습니까? 내가 그 생각에 얽매여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하지 말고 주인공에 몽땅 일임하라 이겁니다.

질문하신 분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자유 자재 할 수 있을까 하시는데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의 문제가 아니라 놓아서 착이 떨어지면 그래도 여여한 것이니 벗어난다 못벗어난다도 없지요.

협찬 한마음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 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건 강 •

암 ·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당뇨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제3의학 · 심요법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TEL : 0552-585-8118 · 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

간호사 및 간호보조원 모집
(스님 혹은 불자신자)

만 40세이하 간호사 및 간호보조원 자격증 소지자로써 미혼 혹은 독신자이어야 하며 상시 근무가능한 자
◆ 특히 스님 혹은 불교신자 환영
◆ 대우 : 국가공무원 대우규정에 준함
◆ 운전가능자 우대

불교 사회 복지법인 **소 향 원** (무료양로원)
주소·전남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495-1
전화 : 0612)373-6406
FAX : 0612)373-8767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598-1015

불심과 정성으로 보살피는

불자 간병인

◇ 환자 간병 / 산모관리
◇ 12시간 3 만원
24시간 4만 5천원(환자)
◇ 산모관리 숙식1달기준 130만원
출퇴근 1일기준 3만 5천원
◇ 서울 - 무-제-98-1호 허가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03-15
☎02)363-7884/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 강 좌 •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8시 반까지 강좌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영축아봐타센터
0523)381-1143/011-882-1149

이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Avatar.

아봐타는,
14개국어 61개국으로 확산된 현재 지구상의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氣明 緩 岾↔ 禪

현실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고통 밝고 쉽게 선으로 풀어드립니다.
철저한 생활위주 방법과 방편.
심리상담, 성격교정, 삶에 의욕을 잃으신 분들 매사에 기가 없으시고 지치신분, 허약한 정신과 마음, 생활속에서의 선, 살아있는 선으로 길을 찾아 드립니다.

02)897-7731, 016)340-4459
↔108-51471-277 KAA↔

학생모집(통신생포함)

◆ 과 목 : 등양역학, 침술, 불교학, 일본어
◆ 자 격 : 연령 · 학력 제한없음
◆ 각과정 3개월 졸업 - 졸업장 수여
◆ 철학관 및 포교원 개원시 지원배려함
◆ 강 사 : 철학박사(스님 승가대 교수)
◆ 풍수, 운명, 침술 : 직접 감정도 하고 있음.
◆ 수업시간 : - 오후 3시~5시
- 야간 7시 30분 ~ 9시 30분

⊙ 과목에 따라 1주에 2~3회 수업 ⊙ 개인 수강자는 별도지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25-1
(목화오피스텔 605호- 지하철 3호선 수서역 3번출구)
T. 3412-4582
대길승가대학 교무처

수맥 강좌

신비의 추, L로드, Y로드 사용법

■ 장 소 : 조계사 부근
■ 일 시 : 매주 목요일 15:00
9월 24일 시작
■ 문 의 : 02)774-2118
011)239-6817
※ 수맥상담 !! ※
대 붕 기 획

꼭 알아야 할 秘要 특강

1. 모든 문제의 成敗 · 可否 판단법
1. 운명 문제의 간단명료한 판단법
1. 현실 문제 적중법 및 각종 방편법
1. 이사, 결혼, 풍수, 건축 등 각종 택일법
1. 정신통일 건강 및 초능력 개발법

02)597-6211
(45일완성 · 통신가능)
正山堂 金 庚 泉 직강

• 구인구직 •

평생도반을 찾습니다.

◆ 54세. 독신.재가법사입니다.
◆ 전직 교사로서, 현재, 청소년 대상 복지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작금, 뜻하지 않은 큰 어려움을 격던 중 역시 진실한 평생 도반이 필요하며, 또한 그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대상 복지사업과 포교당을 건설하는데 남은 여생을 함께 할 진실한 도반을 찾습니다.
◆ 아름다운 인연이 있기를 부처님전에 축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02)942-6900/팩스02)942-2900
재가법사 일산 합장



아내를 찾습니다.

성명 : 배부순(45세)
■ 98년 6월 18일 집을 나감.
■ 강원도 어느 사찰에 있다는 소식있음.
모든 것 다 이해하고 내가 잘못했으니 돌아오기 바란다. 지금 내 몸도 풍기가 있고 신경을 쓰니까 몸에 마비증세도 심해지고 있다.
※ 강원도 어느 사찰에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내의 거처를 아시는 스님, 불자분들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막내재판 9월 22일 10시)
019-250-7244/0348-944-2733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북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403번지 **도리사**
0546)474-3737
0546)474-3738

함께 기도정진 하실 분

(비구니 스님)
원주 **천은사**
0371)765-9763

학인스님으로서 공부겸 부전일 도와줄 사찰을 찾습니다.

02)702-1984

사찰 종무원이나 법당 화주보살로 일하고 싶습니다.

011)716-3193

• 불교용품 •

◆보 리 수◆

취급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수련원 •

◆ 청학사 수양원 ◆

■ 수양 · 요양 · 기도 · 공부
■ 경전강의, 참선기도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 기 타 •

전통사찰 건축

(문화재 기능인 등록 제 962호)
기둥은 육송으로만 사용합니다.
※시공사찰 : 수덕사, 진관사, 승가사, 철보사, 보광사, 사자암, 원각사, 김용사, 대원사, 망월사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 3리
0572)636-2509
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全國 佛子님께
氣龍 達磨圖를 나눠드립니다.



혜월당 회향암
0564) 33-2037
017) 531-2929

달마보급 안내



연락처 :달마보급 선양회
017-540-3591

도원불교 수련원

개인 및 신행단체 수련
0374) 32-7464

• 사찰안내 •

사 찰 안 내

⊙ 위치 : 고흥 / 부지 : 2,300평
법당 : 32평 / 요사 : 50평
가액 : 3억 5천 / 자연석간수

⊙ 위치 : 예산근교 / 부지 : 570평
법당 : 36평.12평 (2동)
요사 : 23평, 21평 (2동)
가액 : 1억 5천 / 산사 석간수

상기 사찰은 즉시 법회가능하며 시설완비되고 사정상 급히 양도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 보유 -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상담전화 02)723-4082
광 진 불 사

암자 · 포교당 안내

◆위치 :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대지 : 54평
◆건평 :25평
◆법당 2, 방 2, 암자1
포교당창건 원하시는 스님 · 신도님께서는 방문해 주세요.
02)384-5720
02)386-8955

◇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 부지 : 60평
◇ 건평 : 36평
- 임법당 13평
- 방4칸, 부엌, 목욕탕
◇ 가격 : 1억(절충가능)
02)936-4785

새주인을 찾습니다.

울산 경주간 국도변 00산 분지형태의 보기드문 적멸보궁터로서 편리한 교통과 수려한 경관이 최상이며 경내에 석조대불이 있고, 연못에는 항상 물이 넘쳐흐르며 조경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기도처임.
◆법당, 산신각, 요사 3동(방사 12)
◆ 경내지 350평 – 매 3억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천애산 휴게소 뒷편 (산림도로 있음)
◆ 임야 18,183평 / 평당 10,000원
0561)775-0545/011)561-9005

사찰 및 임야 안내

(대사찰지가능 층 만5천평)
1. 사찰 석굴암 50m 길이 석존 7자 분상, 요사채 1~2층 합 34평, 법당 15평, 3층 현대식, 아이티불 4자, 좌불상관세음 불상 15적 ◆호가:2억 5천만원
2. 제2석굴암지 정지작업 완료 진입도로 아스콘 포장된 법당 사찰 제반 설치가능
* 천평-2천평 양도가 @15만원(위물건 대전, 청주, 수원, 대구, 서울등지 건물 물물교환도 가능)
3. 사찰하부지 강변 진입도로간
◆부지:2천평 @20만원 밭(전):2,700평 (전원주택지 가능)
옹도 실버타운, 모델하웃, 산장식당 강변도로적지
(1/3%D.C함 중계인불교 직접상담)
문의전화:0441)848-1766 최 /851-3866

사 찰 안 내

◇ 대지 : 85평
◇ 법당 : 17평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요사 : 27평
◇ 위치 : 안산시 인구 밀집지역
◇ 매가 : 1억 7천만원
(5천만원 전세도 가능)
◇ 특징 : 산밑 관음기도 영험도량. 시내와 근거리, 지하철 이용가능한 포교 최적지임.
사찰전문용역 금강기획
736-3579~9/011)789-2255

사찰(급)안내

◆위치 : 삼천포시 중심지
◆부지 : 약 1,700평
◆법당 : 27평
◆요사채 : 약 20평
◆주지실 :12평
◆버스진입도 가능한 주차장 약 200평
◆가격 :2억 5천만원
◆특징 : 수려한 산세와 계곡이 접한 기도도량으로 훈창한 송림과 매실나무속에서 자리잡고 있고, 삼천포 시내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뛰어난 경관과 버스정류장에서 도보로 5분거리로 전리한 교통과 사계절 일급수 물이 흐르는 계곡이 집하고 있는 청정한 기도도량.
017)557-9448(주지직접)

사 찰 안 내

◇위치 : 서울 시흥동 대한전선 건너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 옆산
◇부지 : 750평 ◇법당 : 30평
※주산포 목조 문화재급(시설은 A급)
◇요사채: 지상 20평(목조),지하: 50평, 산신각: 5평(돌벽),채공실: 17평,(조립식)
◇양도가액 : 15억
◇특징 : 산세 수려하고 울창고 남골당 근린 시설요지, 남서울 고속철도 터미널 공사중이며 서울시내 버스(124) 종점 5분거리, 주차장 완비(50대)
※ 운영하실 스님만 연락요망.
02)899-4281

사 찰 안 내

◆위치:중랑구 상봉2동 (상봉터미널 부근)
◆평수:50평
◆방3개,주방1.욕실1개,기름보일러, 에어콘 완비
◆삼존불,부처님개금,백팔불 불사되어 있음.
◆가격:보증금 5천만원(월세80만원) 시설비 3천만원
※ 입주시 바로 법회 볼수 있음. 주지스님 공석 관계로 사정상 내놓음.
011)775-7656/02)496-7656

사 찰 안 내

◆위치 : 서울 종로구 홍지동 상명대학교앞, 버스정류장 2분 뒷면 숲. 전면 트임. 조망 좋음.
◆대지 : 60평 및 건물
◆매매가격 : 약 2억원(절충가능)
◆기타 : 즉시 입주가능 (현재 비어있음)
011)221-1068
015)8521-1068

백운산 계곡(암자터)

◇ 경남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1016번지
◆ 함양(안의) → 서상→ 상부전 마을에서 2Km
◆ 현지 밭 실사용 평수 2,000평
◆ 등기 필 평수 465평
◆ 급매가격 : 2,000만원
053)767-5635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법당 : 50평 ◇ 요사 : 50평
◇ 부지 : 75평 ◇ 가격 : 3억
전국의 사찰, 포교당 다량 확보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경험으로 양도 운영하실 분에게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부지

◇ 위치 : 경남 진주시
◇ 부지 : 약 2,000평(평토작업완료)
◇ 요사 : 28평(임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가 격 : 2억 5천
◇ 특 징 : 계곡앞에 저수지, 양쪽 암반계곡, 기도처나 선원용도. 진주시내 15분, 마산 I.C. 20분, 부산 1시간 거리, 전화 · 전기 · 도로 있음.
016)589-0560
0591)758-3445

포교당 안내

◇위치 :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동(시내 중심지)
◇법당 약 45평, 방 2칸
◇시설일체
011)538-5159
허 응 스 님

사 찰 안 내

◇위치 : 진주시내 산옆
◇법당 약 45평, 방 4칸, 입식부엌, 욕실 및 화장실 2개, 기름보일러 금년도 신축
◇대지 : 300평(가격은 상담후절충)
0591)746-7350
017)552-7350
김 강 철

사찰(포교당) 안내

◇위치 : 대구시
◇규모 : 2층건물, 법당 28평
◇삼존불 · 동불 · 후불탱화 · 신중탱화 · 산신탱화, 법당시설 완비
◇1층 : 요사채 30평, 방3, 주방, 욕실, 종무소, 반지하 식당-13평
◇매가 : 1억 3천
053)656-6609
011)790-7162

포교당 안내

◇위치 : 서울 신림동 (신림 4거리 도보 10분거리)
◇삼존불, 약사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지장보살 및 명부시왕 10분, 지장탱화, 각종 최고급 만다라화 여러점.
◇가격 : 보증금 1천 5백 (월세 50만원)
◆시설비 및 일체 집기물품 포함-가격 6천만원▶급히양도함.
02)888-1642

포교원 안내

◆ 법당 15평
삼존불 및 모든시설 완비
◆ 요 사 : 3층 옥탑, 단독방 1.
◆ 3층 - 방 1, 주방 1, 욕실 1.
◆ 가 격 : 보증금 8백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500만원(조절가능)
02)461-6091
011)493-8936

포교당 안내

◇위치 : 충북 옥천군 군북면 (故 육영수여사 생가 뒷산)
◇대전에서 15분거리
◇대지 : 180평 ◇건물 : 30평씩2동
▶ 총면적 1천평
◇양도가 : 1억 3천 정도(절충가능)
042)283-0990
011)426-2534 강대업 합장
※ 특징 경허선사 주석도량으로 알려짐

포교원 안내

◇ 위 치 : 서울노원구상계동
◇ 평 수 : 50평 3층건물(3층 방2,주방(주차가능)
◇ 가 액: 보증금 3,500만원 (월25만원)
◇ 시설비 : 2,500만원
◆ 주번전철역, 교통편리, A.P.T 주택밀집지역, 포교에 최적지임.
02)939-3647
012)341-3647

사 찰 안 내

◇위치 : 충남 천안역에서 15분거리
◇부지 : 약 500평
법당-대웅전,약사전,산신각,칠성각, 용궁,입상 미륵석불 3미터,세쌍둥이 코끼리 삼층탑(법당내외시설일체)
요사채-큰방 3, 입식부엌 1(1동) 보통방 2(1동)
◆특징 : 조용하고 깨끗한 기도도량 마을에서 1Km 떨어진 야산속
◆가격 :1억 7천만(사정상 급히 양도)
011)686-9925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경산(대구 인접)시 옥산동 소재
◇대지 : 상가겸 126평 (도로 인접, 철도 굴다리옆)
◇법당 : 가건물 40평
요사 : 25평(※시설완비)
◇가격 : 1억 5천만원 (전세 4천만원, 월세가능)
◆특징 : 대구 인접지역, 대단위 아파트 단지밀집지역으로 포교당으로 적합
◆ 포교용도로 시설설비후 개인사정으로 급매함 (현 7천만원 농협 융자 포함)
011)308-4225
02)215-7978

포교원 안내

◆위치:강동구 길동 먹자골목 시장통
◆18년 역사 포교원
◆방 · 법당 · 부엌 · 화장실
◆가격:총 3천만원, 월 60만원 (가격절충가능)
◆스님의 개인사정으로 급매
017)282-1998
02)482-4550

사찰부지안내

(타용도 가능)
◇위치 : 경북 상주군 외서면
◇평수 : 45만평(분할판매 가능)
◇가격 : 평당 2,300원
051)625-6359
※ 감 · 밤 · 잣 · 표고버섯 등 유실수 있음

사 찰 안 내

◇위치 : 충북 청원군 남이면 외천리(토목완료)
◇면적 : 총 5,900m²(1,785평) - 준농림지역 (이중 400평은 건축 허가 완료 및 전용 부담금, 세금 납부 완료)
◇환경 : 전망 최고, 현지에 작은 계곡있고 3~5부 능선 (전원주택 및 별장도 적합)
◇교통 : 대전↔청주 국도(4차선)변 면사무소 소재지에서 2분 거리 청주에서 10분, 대전 광역시에서 25분청원 톨게이트에서 5분
◇도로 : 4차선에서부터 4~5M (대형차 진입 가능)
◇매매가 : 1,785평 × 11만(주변 시세보다 50% 저렴)
011)484-4555/012)453-4555/자택 0431)257-3573

추락하는 인륜…"도덕 재무장하자"

가정윤리 파괴범죄 잇달아…종교계 교화 앞장서야

미국의 경제가 극히 어렵던 49년에 발표된 아서 밀러의 〈세일즈 맨의 죽음〉은 세일즈맨이 가족을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스스로 교통사고를 당해 죽는 내용이라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하지만 비정한 한 아버지는 보험금 천만원을 위해 아들의 손가락을 잘랐다. 가족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사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를 모욕하는 사건이었다.

아버지를 살해한 고등학생, 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붓아버지, 짐승같은 남편을 살해했다는 30대 여인, 보험금이나 불륜을 덮기위해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요구르트에 농약을 넣어서 장애아인 아들을 숨지게 한 비정의 아버지도 있었다. 하나하나 끔찍한 이런 사건들이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어 땅에 떨어진 우리 사회 윤리의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아들의 손가락을 절단한 강종렬씨.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런 사건들은 가족공동체가 급격히 해체되면서 나타난 가족윤리의 붕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사회 전반에 넓게 퍼져있는 황금 만능주의와 IMF관리체제라는 현실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사회학자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대상,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회적인 병리현상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의 각종 부패현상이 우리 사회 전체 도덕성은 물론 가족윤리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의 기본단위이자 근간이 되는 가정의 붕괴는 '뿌리부터 썩어가는 나무'의 고사(枯死)를 예견하고 있어 사회적인 처방이 시급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도덕적 해이'의 폐해와 치유방안〉이란 보고서를 내놓고 사회전반의 '도덕적 해이'가 IMF관리체제를 불러온 원인이자 위기극복의 걸림돌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법·제도의 정비와 이에 따른 사회 정의 및 윤리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계속되는 경제사정 악화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기에 전 국민의 철저한 도덕적 각성운동과 이를 위한 꾸준한 실천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사회의 정신적 규범을 제공해 온 종교계는 아수라(阿修羅)장이 된 오늘의 '윤리 부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도덕 재무장의 선봉에 나서야 한다.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공동체 정신의 바른 뜻을 되새기고,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도덕과 윤리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정신회복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불교의 눈 오계 지키기로 가정화평

"어느 것이 어미요, 어느 것이 새끼인가? 풀을 주어 먹게 해 보아라. 어미는 반드시 풀을 밀어 새끼에게 줄 것이니라."〈잡보장경〉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식의 손가락을 자른 아비는 본능적인 부모의 도리를 잊은 비정한 아버지였다. 〈잡아함경〉의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 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는 것을 가족이라 한다"는 가르침을 왜 몰랐을까. "능히 신앙을 지켜 가정이 화평하고 편안하면 현세에 경사가 있어서 복이 저절로 좇아오게 마련"(아난문사불길흉경)인 것을. 이러한 때, 오계파지(五戒把持)운동의 확산은 더없이 절실한 도덕 재무장의 방편이다. "산 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삿된 음행과 거짓말을 하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라." 5계의 수지와 실천 및 확산운동은 가정과 국가·인류의 화평을 건설하는 시금석임에 틀림없다.

시론

인술의 방편


사재동
〈충남대 교수·국문학〉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최근의 일이다. 너무도 소설같은 이야기라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어느 대학교 교수가 40이 넘어서 결혼하여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다. 그가 갈망한 대로 아내는 열달만에 튼실한 아들까지 낳았다. 그 아내 역시 제왕절개 수술의 아픔도 잊은 채 기분이 상쾌하고 몸이 가벼워 다른 산모보다 회복과 퇴원이 빨랐다. 그 부부는 남모르는 행복의 꿈속에서 아들을 번갈아 보며 더욱 즐거울 뿐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입이 돌아갔던 것이다. 지껄이면 소리가 새어 점차 말을 잃었고, 웃으면 더욱 입그러져 웃음을 잃었다. 그 남편은 당황하다 못해 속으로 울었다. 말없이 눈물 흘리는 아내를 데리고 제일 큰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 방면에 권위있다는 담당의사는 이쪽의 이야기를 들고 대강 진단하더니 남의 일처럼 단언하는 것이었다. 전문적 의학용어를 써가며 증세가 아주 희귀한 사례로서 매우 심각하고 위험하다는 것이 그 요지였다. 그 의사는 그렇게 문제만을 제기하고는 위안과 희망의 말 한마디 없이, 치료의 책임조차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환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남편은 가뜩이나 놀라고 아픈 가슴을 날카로운 메스로 마구 찔린 듯 충격과 실망을 걷잡을 수 없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의사의 진단과 언행이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분노가 치밀었다. 의사의 진단조차 믿음이 가지 않았다. 그 진단이 제대로 짚은 것이라 해도 그러한 의사에게 치료를 맡길 수 없다는 불신같은 것이 생겼다.

그 남편은 종교적 신념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내의 손을 꼬옥 잡고 다른 병원으로 갔다.

거기 의사는 달랐다. 우선 친절하고 자상했다. 겸손한 어조로 이쪽의 증세를 자세히 묻고는 진지하게 이곳 저곳을 직접 진찰하고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자신있게 진단을 내렸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족처럼 환자를 위안시켰다. 산후 조리에 소홀하거나 무리하면 가끔 일어나는 증세라고 설명하며 넉넉잡아 20일 치료하면 족히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렇지…. 교수부부는 동시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우선 고맙고 믿음이 갔다. 꼭 나으리라는 희망과 신념이 생겼다. 그 후 의사의 지시대로 날마다 정성껏 침을 맞고 탕약을 먹었다. 정말이지 20일이 지나자 씻은 듯이 나았다. 이 시련을 통하여 그 부부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확고해졌고 자상한 가르침을 내린 그 의사에 대한 고마움과 인술(仁術)의 의미를 체득하게 되었다.

그렇다. 인술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자고로 인술의 방편이 거룩하게 운용되어 온다. 의술은 과학중에서도 첨단과학이어야 하므로 진단은 엄밀하고 냉철해야 된다. 그러나 그 치료 시술에 있어서는 대 방편을 써야 한다. 여기서 의사의 두 얼굴이 나타나게 된다. 완전히 의학만을 내세워 환자의 육신을 기계적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전문적 의술에 체득해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 심신의 질환을 정신적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있다. 이런 의사는 정신의학, 심리요법을 체득하고 종교적 구제방편까지 체득, 활용한다. 그러기에 아무리 절망적인 환자라도 안정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인술에 최선을 다하여 죽음의 길까지 밝혀주고 있다.

> "사회지도층은 엄격·냉엄하게 현 위기 진단 국민에 희망을"

오늘의 총체적 위기에서, 정치가·행정가, 교육자 등 사회 지도층은 모름지기 이 인술의 대방편을 베풀어야 한다. 먼저 국가의 위기, 국민의 고통을 과학적으로 엄격, 냉엄하게 진단하되, 기계적이고 물질적인 시책에 우선하여, 종교적이고 인문적인 시정으로 그 위안과 희망을 주어야 되겠기 때문이다.

'火葬서약' 폭넓게 확산

종교·사회단체대표 30여명 동참…범시민운동으로

꼭 흙속에 묻히는 것만 영면(永眠)일까. 4대(大)로 흩어질 육신을 화장(火葬)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김광욱 천도교 중앙총부 교령, 서영훈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상임공동대표 등 종교·사회단체 지도자 30여명은 화장을 유언으로 남기는 서약을 하고 이를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키로 했다.

종교·시민단체 지도자들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장묘문화 개선관련 시민단체대표 간담회'를 열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해 화장을 유언으로 남기기로 서약했다.

참석자들은 "매년 여의도만한 크기의 면적이 묘지로 늘어나고 있어 매장중심의 장묘문화가 더이상 지속돼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화장을 유언으로 남기는 서경운동을 벌이는등 범시민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건 서울시장도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먼저 실천하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 있어야 장묘문화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면서 "서울시가 이 시민운동을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장묘행정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는 부 전체가 화장참여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6일만에 김모임 복지부 장관을 비롯 전체 직원의 38.7%인 1백74명이 화장서약서를 썼다. 불교계에서는 생명나눔실천회와 우리는선우 백련상조회가 화장문화 확산을 위한 '화장서약' 캠페인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회색에서 녹색으로"

전국환경운동가 워크숍

불교환경교육원, 24~26일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공동대표 장원)가 주최하고 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스님)이 주관하는 98 전국 환경활동가 워크샵이 24~26일 경기도 장흥 세종수련원에서 '회색에서 녹색으로'란 주제로 열린다.

2백여명의 환경활동가가 참여하는 대화마당(한국사회의 위기와 환경운동의 철학)의 30여개 토론주제 중 관심을 끄는 것은 ▲국립공원의 현실과 보전전략(설악 녹색연합) ▲종교와 환경운동의 현황과 과제(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인간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LETS)' 운동(불교환경교육원) ▲금강산 개발의 원칙과 방향(녹색연합) ▲환경호르몬문제와 대응전략(환경운동연합) 등. (02)765-6324

김재경 기자

한국도 온실가스감축 분담

내주 교토의정서 서명…환경보호 공동보조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규모를 축소하라는 선진국들의 對개도국 압력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주 온실가스감축 분담의무를 규정한 '교토(京都)의정서'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5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공감한다는 취지에 따라 교토의정서에 서명키로 했다"고 말했다.

교토의정서는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 한국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동유럽 11개국 등 38개국이 온실가스를 2008년부터 1012년까지 90년의 배출량에 비해 평균 5.2% 줄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美 '아들-딸 선택' 인공수정술 개발

성비 파괴 가속 우려

미국에서 아들이나 딸을 원하는 대로 임신할 수 있는 새 인공수정기술이 개발돼 성비(性比)의 불균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국 뉴욕타임스지는 10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소재 '유전학 인공수정 연구소'의 에드워드 퍼거 박사팀이 XX염색체는 딸, XY염색체는 아들이라는 차이점에 근거해 정자중에서 아들을 낳게 하는 Y염색체 정자와 딸을 낳게 하는 X 염색체 정자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아들 딸을 선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숫타니파타〉에는 "세계는 業에 따라 존재하고, 사람 또한 업에 따라 존재한다"는 말씀이 있다. 지은 바 업은 因과 緣이 모여서 성숙하듯이, 사람의 성별 또한 인연에 따라 정해짐을 관조해야 할 것이다.

김재경 기자

金堂藝建
목조건축(신축 및 보수전문), 단청, 탱화
개금 불상, 시왕개채, 불사 문의 및 상담

문화재 관리국 등록
보수 357호 황규원 단청 352호 박정환
보수 502호 박정환 화공 1008호 심철호
(711-830)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97-7 화원빌딩 4층
사무실 : (053)639-0407 ~ 8
F A X : (053)639-0407

인재불사 공개권선 및 고불식 안내
1. 인재불사 안내
한국 사회의 지도층은 철저한 불교적 소양과 신행을 갖춘 능력있는 불자 인재들로 교체되어야 하며 그들의 모범적 행동은 불교가 사회속에서 현실화하고 인류구원의 유일한 희망이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으로, 이것은 모든 불자들의 당연한 사명입니다. 인재불사연구원은 고시생포교를 통한 불자 사회지도층 양성을 원력으로 90년 5월 모임을 결성한 이래 오늘날까지 묵묵히 포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정사찰이나 어떠한 단체와도 무관하며 관계되어있지 않고 자립적 범위안에서 역량만큼 고시생포교에 정진할 뿐입니다. 현재는 문서포교의 1단계를 진행중이며(97년 3월 첫발간)칠보사 강석주 큰스님께서 직접 참여하고 계시며 1C월부터는 제2단계 실질적인 내용의 인재불사가 추진될 것입니다.
2. 고불식 안내
일간지의 취재로 언론에 의해 타의적으로 공개된 저희 활동은 이후 타종교의 외부적인 방해와 내부적인 어려움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벗삼아 더욱 정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9월 27일 인재불사연구원은 교계 큰스님들을 모시고 고불식을 할 예정입니다.
3. 최초의 권선(공개)
인재불사를 위한 고시촌 포교에 뜻을 함께할 분들의 정성을 간절히 바랍니다. 시주의 공덕이 실질적임이 여실히 검증될 것입니다.
무염 김 성 산 합장
인 재 불 사 연 구 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877-2 광운빌딩 503호
■전화:888-3077,3078 ■팩스:888-3078
▶(국민은행) 812-01-0134-690 예금주 : 김 성 산
▶(상업은행) 167-08-046862 예금주 : 김 성 산

♣ 불/자/정/보(사찰) ♣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용인시 (대로변 산밑)
◆평수 : 대지 204평, 사용평수 280평
◆건물구조 : 연면적 160평, 지하1층, 지상 3층 (현대식 신축건물)
3층-법당 40평 , 2층-요사, 종무소 40평,
1층-전통찻집 40평, 지층-공양실 40평
(채광, 통풍양호)
◆매매가액 : 6억 5천만원
◆특징 :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포교 최적도량임
0331)263-0911/015)272-8895
전통 고찰 안내
◆위치 : 경기도 강원도 경계 지점 ◆부지 : 2만 7천평
◆건물 : 법당 25평(주3포) 목재단청, 대웅전, 선방, 용왕각, 무량수전, 지장전(40평 목재), 주지실, 공양칸 요사(40평), 건물 총 9동 /창건 1600년전 ◆부속물 : 석등, 석탑, 미륵석불, 관세음보살(석입불), 연지
◆매매가액 : 8억 5천만원
◆특징 : 수려한 산세와 청정 자연 계곡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천하명당 자리로 정법대로 운영하실 스님께 시세이하 가액으로 모십니다.
⊙ 본 사암은 공히 부처님 전법도량이므로 스님외 무속인, 일반인, 보살 및 투기성이 짙은 상거래는 절대 사양합니다.
⊙ 전국 사찰, 포교원, 사정상 양도하실 스님이나 인수받으실 스님은 부담갖지 마시고 즉시 연락바랍니다.
21세기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주)동국불사 담당 : 조법사업장
서울본사: 02)512-4447/011)736-4447
사 찰 (급) 안내
◇위치 : 경상남도 ◇대지 : 120평
◇가격 : 6천 5백만원
015)7903-8753/0597)964-1662
토굴·선방·암자터 안내
◆ 국립공원에서 제외된 지리산 깊숙한 명당
◆ 영원사, 실상사, 검대, 벽송암,백장암 사이에 있으며 천왕봉이 안산이 되는 숨겨진 성지명당.
◆ 부지 : 약 2천여평
호출 012)587-6233
사 찰 안 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재 운영중인 사찰을 양도하고져 합니다.
◇ 전세도 가능.
◆ 위치 : 전북 군산시 월명공원내
0654)461-4152/011)579-9865

어린이 프로 다시 보게 돼

불교TV 28일부터 가을개편

'토요기행…' 먹거리 · 교통정보와 함께 사찰소개

BTN초대석 각 종단 주요행사 · 교계소식 전달

불교TV(사장 정우스님)는 28일 가을철 프로그램 개편을 맞아 사찰·종단 소개, 교양, 어린이 포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신설과 기존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확대하는 등 활기를 불어넣는 개편으로 불자들의 채널을 고정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이 신설된 프로그램중 눈길을 끄는 것은 기행 프로그램인 '토요기행 절로 가는 길'(토요일 오전10시25분~오전11시15분). 이 프로는 시인 황청원씨의 진행으로 매주 2~3군데 사찰을 지정해 사찰의 역사는 물론 그 주변의 볼거리와 먹거리, 교통편 등을 다채롭게 소개해 준다.

사찰과 신행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불교유치원을 탐방하는 '모여라 부처님나라'(월요일 오후4시40분~오후5시5분)은 어린이 포교현장을 직접 찾아가 제각기 다른 색깔로 새싹 불자들을 포교하는 모습 등 화면에 담아 보여준다. 특히 이 프로는 지난 3월 막을 내린 '신나는 연꽃 동산' 이후 6개월만에 부활된 유일한 어린이 포교 프로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에 새롭게 가세한 'BTN 초대석'(오전9시10분~오전10시)은 각 종단의 주요행사 및 조계종 교구본사 소식 등 한주간에 일어난 교계 동정을 자세히 전달해 준다.

이밖에도 지나치기 쉬운 불교예법 등을 알려줌으로써 불자들의 신행활동에 도움을 줄 'BTN 신행문화 캠페인-참불자가 됩시다'(월요일~토요일 오전10시15분~오전10시25분)과 명사들의 가슴속에 각인돼 있는 감동적인 경구를 들려주는 '내 마음의 경구'(월요일~토요일 오전7시25분~오전7시30분) 등도 새롭게 선보인다.

주3회에서 4회로 늘어나면서 거사와 보살 중심에서 직장·어린이·청소년 등으로 범위를 넓힌 TV법회(월·수·금·일요일 오전9시10분~오전10시)와 불자기업 살리기 코너 등을 새롭게 마련하며 30분에서 50분으로 방송시간을 확대한 '날마다 좋은날'(월요일~금요일 오전10시25분~11시15분) 등은 편성시간과 함께 내용도 확대됐다.

이번 개편으로 불교TV의 본방송 제작 프로그램 편성은 15개에서 19개로 7% 늘어나 재방송 비율은 7% 감소해 70%가 됐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불교TV는 28일 사찰·종단소개와 어린이포교 등을 강화한 가을 프로 개편을 단행했다. 사진은 종단을 소개하는 '한국의 종단' 장면.





◇청년정토회 회원 10여명이 12일 명동 거리에서 '굶주리고 있는 북한어린이'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공연했다.

'통일염원' 거리 문화제 눈길

7개 청년단체 명동서…80만원 모금도

지난 12일 흰색 옷을 입은 청년들이 명동거리 한복판에서 과란 하늘로 통일의 몸짓을 보내고, 그들을 둘러싼 행인들에게 통일의 염원을 전해주는 청년문화제를 열었다.

'통일미래를 잇는 청년들'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청년정토회(회장 박남규),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이사장 법륜스님) 등 7개 청년단체들이 북한동포돕기와 통일운동의 실천과 연대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북한의 비참한 식량난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퍼포먼스와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대동풍물이 공연됐다. 또 북한의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를 주제로 한 음악회, 시낭송회, 사진전이 열렸고 거리 모금도 전개됐다. 이번 모금에서 총 80여만원이 모금됐다.

청년정토회 박남규회장은 "미사일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지만 통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다"며 "청년불자들이 앞장서 매주 토요일 통일 염원을 알리는 공연과 거리 모금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청년단체들은 9월중 '청년포럼'을 개최하고 아시아 각국의 청년단체들과 연대,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단 신

청소년 인성개발 강연

청교련 논산지회

청소년교화연합회 논산지회(회장 선공스님 · 석림사 주지)는 '청소년 인성개발'을 주제로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격주 토요일 순회 강연회를 마련한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과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마련된 이번 순회강연은 김형태교수(한남대 교육학과)와 강복한교수(공주교대 교육학과)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논산을 비롯해 연기(19일)·홍성(26일)·당진(10월17일)·금산군(10월31일) 등에서 개최된다. (0461)736-9003

대구 청소년 포교지 '무지개 걸린…' 창간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포교지 〈무지개 걸린 나무〉가 창간됐다. '부처님 닮으려는 사람들의 모임(대표 지거스님 · 동화사 포교국장)'에서 펴낸 〈무지개…〉는 대구지역 어린이·청소년에게 무료로 배포, 청소년 포교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지개…〉 창간호에는 대구의 명소나 유명인사들을 소개하는 '보현이의 대구 나들이' '10대들의 똥단지' 등이 실려 있으며 2천부 발간됐다. 32절 크기 16쪽 분량. (053)255-4873

건강 365일 〈33〉 대황



이만성 〈영재한의원 원장〉

간장열로 생기는 태음인 변비 치료

월경이상 · 퇴행성 관절염에도 효과

옛날 중국에 황씨(黃氏) 성을 가진 의원이 있었다. 그는 황련, 황기, 황정, 황금, 대황 등 다섯 가지 약재를 사용해 대부분의 병을 치료한다 하여 사람들은 오황선생이라 불렀다.

오황선생은 마준이란 제자를 하나 두었는데, 마준은 성질이 급하고 욕심이 많아 의술을 한가지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황선생이 출타해 집을 비운사이 허약한 임산부가 찾아왔다. 설사를 자주 한다며 처방을 해달라고 했다. 오황선생이 없자 마준은 평소에 자주 보아온 대황을 넣어 약을 조제해 주었다. 그 약을 복용한 임산부는 며칠 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죽은 환자의 가족들은 억울한 마음에 이 사실을 관가에 고발했다.

귀가길에 이 소식을 듣고 관가로 달려온 오황선생은 사또에게 무릎을 꿇고 마준에 대한 용서를 빌었다. 대황은 변비에 좋은 약인데 자신의 제자가 잘못 알고 처방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의술을 잘못 가르친 자신을 벌해 달라고 말했다. 제자를 대신해 사죄하는 스승의 모습에 감복한 사또는 마준의 죄를 경감시켜 주었다. 몇 달 후 죄값을 치르고 풀려난 마준은 오황선생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경솔했던 행동을 다시 한번 사과했다. 마준이 깊이 뉘우친 것을 안 오황선생은 그 뒤부터 차근차근 자신의 의술을 마준에게 전수했다.

마준에게 화근이 되었던 이 대황은 변비에 효과가 있는 약재로 한의학에선 잘 알려져 있다. 태음인 체질중에 간에 열이 있으면 변비가 생긴다. 배가 더부룩하고 불쾌감도 느껴진다. 또 대변 줄기가 가늘면서 시원치가 않다. 입에서 냄새가 나며 헛구역질을 자주하게 된다. 젊은 여자들이 간에 열이 많으면 월경이 줄거나 일찍 끊어지고 얼굴이 자주 화끈거린다. 또 나이가 들면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오며 40세 이전에 월경이 없어진다.

태음인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간에 열이 많아 위에서 열거한 증상이 나타날 때 대황은 성약(聖藥)이 된다. 일반적으로 대황 4g, 감초 4g을 달여 복용하며 변비가 심할 땐 대황 8g~10g, 감초 4g을 복용한다. (02)762-5510

주부신행담

깨달음을 주신 부처님①

나의 신앙 생활은 참으로 묘한 인연으로 시작되었다. 정말 기막힌 사연이라 생각하기도 싫지만 그게 어디 생각하고 싶다고 해서 생각이 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법이 있을까? 누구나 아픈 기억은 말하기 싫은 것이니까 말이다.

난 8년 동안 살을 부비고 사랑했던 딸 소희를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 지금까지 이렇게 버젓이 살고 있다. 94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잘되지 않아 계속 내리막길을 타고 있었다. 그러면서 딸 소희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나는 일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해놓고 첫 전철을 타야만 했다. 사고 당일도 늘 그렇듯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준비를 하고 일하러 나갔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95년 4월20일 오후 4시 운명의 시간은 다가왔다.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리는 것이었다. 그 때 순간적으로 불안한 마음에 얼른 수화기를 들었다. 소희의 사고 소식이 전해졌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 말도 떠올리지 못한 채 내 마음은 벌써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 들고 있었다. 멍하니 있는 나를 이웃가게 아저씨가 보다못해 얼른 차를 태워주었다. 차에 실려 의정부까지 배달된 내 몸, 정신은 혼미하고 하늘은 깜깜했다. 우리 아이는 내가 의정부로 향하고 있는 동안에도 의정부에 있는 병원을 다 들렸지만 가망없다는 말만을 뒤로 한 채 쌍문동 한일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림 · 문병성

중화상 입은 딸아이 입원소식에…

한일병원 응급실에서 아이를 보았을 때 그건 벌써 우리 소희의 모습이 아니었다. 몸의 85%가 2~3도 화상을 입었고 얼굴만 조금 괜찮았을 뿐이었다. 아이의 고통에 찬 울음소리, 나와 아이 아빠의 눈물, 말 그대로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처절한 모습 그대로였다. 정말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지….

응급실에서 1차 치료를 끝내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오늘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말이 내 가슴에 못을 박았다. 왜 의료진들은 그렇게도 딱딱맞고 매정한지. 우리 소희는 제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신음과 함께 고통스러워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말을 참 잘했다는 것이다. 하루하루가 그 어린 것에게는 눈물겨운 고통의 나날이었다. 소희는 살려는 의지도 굉장히 강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나도 울지만 말고 무엇이든지 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부처님께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비하신 부처님께 매달려 우리 소희를 내 품에서 빼앗기지 말자고 마음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생전 다니지도 않았던 조계사 앞에 가서 염주를 사들고 법당을 찾았다.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항상 아이의 침대 옆에는 염주를 걸어두고 성심성의껏 기도를 했다. 내가 아는 모든 방법은 다 해 보았다. 그리고 미친 여자처럼 뭔지도 모르는 것들을 입 속으로 중얼거리게 되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쯤 지났을까, 네 살짜리 사내 아이가 소희 옆 침대로 똑같은 화상을 입고 입원했다. 그 아이의 부모가 불자였는지 그날 저녁무렵 스님 한분이 그 아이 병문안을 오셨다. 난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다. 이은희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떠벌로 듣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성하출판 TEL : 273-4451~2 FAX : 273-4450

그대의 내면에 우주의 중심이 있다

당신도 깨달음을 얻고 성취를 맛볼 수 있는 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사람들은 비참함과 고뇌, 고통과 삶 자체를 피하려 애를 쓰고 있다.
주위 환경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피하는 것, 그것은 포기이며 결국 겁쟁이, 도피주의자로 남게 된다.
그대가 어디를 가든 그대의 마음을 떨쳐 버리고 자신을 단념하지 못한다.
시간과 공간은 중요하지 않다. 그대는 결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단순히 존재한다. 실제는 그대 내면에 감추어져 있다.
그대는 내면을 향해 가야 한다. 그대 안에 우주의 중심이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류원장 옮김 / 값 9,000원

이것! 이것!
THIS. THIS. A THOUSAND TIMES THIS.



禪

선은 신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선은 당신이 신이 되도록 한다.
선은 천국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여기, 다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달마의 벼락 같은 목소리가 있다!

송대 임제종의 원오스님이 운문계의 선사인 설두스님의 송고집에 평과 해설을 붙여 만든 〈벽암록〉은 종문제일서라 불리며 선서의 왕좌를 차지한다. 성철스님께서 "벽암록을 읽으면 모든 알음알이가 딱 끊어진다"고 격찬한 선서의 백미이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류원장 옮김 / 값 9,000원
살아 있는 선

말없는 자의 말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과 철학과 신을 바라본 인도의 명상가 오쇼 라즈니쉬의 생애 마지막 명상록. 인간, 종교, 철학 그리고 존재에 대한 색다른 깨달음의 글과 함께 그의 생애와 임종의 순간을 담고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황광우 옮김 / 값 4,500원

42장경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질 때, 인도의 스승들은 불교의 정수를 모아 42편의 시로 구성하였다. 오쇼 라즈니쉬는 특유의 페이소스 넘치는 우화를 곁들여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경옥 · 황광우 옮김 / 전2권 / 각권 값 7,500원

중국의 작은 부처 앙산
위산의 법제자로, 미조선사의 많은 선 지식을 두루 만나 법을 구하였고, 탐원을 만나 혜충국사의 원상법문을 전해 받았는데, 한 번 보고 단박에 깨쳐 그 자리에서 태워 버렸다. 스승 위산에게 머물면서 진리를 깨친 그는 중국의 소석가로 불릴 만큼 출중하였으며, 후에 스승과 더불어 중국 오가칠종(五家七宗)의 하나인 위앙종(爲仰宗)의 문을 열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김화영 옮김 / 값 6,500원

한국불교의 현황을 집대성한 1998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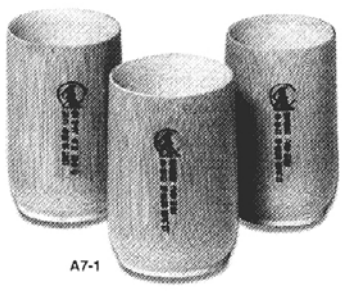


1) **한국불교의 현황** : 최근의 한국불교계 흐름을 약술.
2) **종단** : 불교종단 50여곳의 현황을 수록.
3) **법인** : 불교관련 법인 150여곳의 현황을 수록.
4) **불교단체 / 기관** : 불교 단체 및 기관 4,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5) **불교관련업체** : 불교관련 업체 1,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6) **사찰** : 국내외 사찰, 포교당 13,000여곳의 목록을 수록.
7) **인명** : 승가 및 재가불자 여명의 개인 인명자료를 수록.
8) **불교문화재** : 초판 이후 추가 지정된 200여건의 불교관련 문화재 목록을 수록.
9) **불교도서논문** : 초판 이후 추가 간행된 3,200여건의 불교관련 단행본 및 박사학위논문 목록을 수록.
10) **한국불교연표** : 초판 이후 한국불교 관련 사건을 수록.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 **가격 ₩ 120,000**

대나무 잔

완전 자연산 대나무로 가공한 제품. 대나무 한 마디를 가공 하므로 크기(지름)는 일정치 않으며 차와 대나무 향이 어우러진 차 맛이 일품 입니다.



크기 : 9(세로).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법성게 걸망



크기 : 500×460 (㎝)
색상 : 회색, 밤색, 진베이지색

가격 : ₩ 15,000

생광석 108염주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포 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와 밀착된 부위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필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가 훨씬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며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가격 : ₩ 35,000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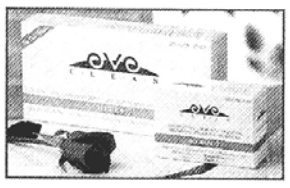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이 32가지 모습으로 나투시어 자비로 중생의 재난을 구제하고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신앙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이 널리 득송된데는 다음과 같은 까닭이 있는데, 이 경전을 외우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일곱 가지 모진 재난을 피하고, 탐, 진, 치의 삼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소원이 원만하게 이루어 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관세음보살은 32가지의 모습으로 화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색상 : 진녹, 검정 바탕색에 금색 인쇄
크기 : 55㎝(가로) 140㎝(세로)
재질 : 기모지
특징 : 색이 변하지 않음

가격 : ₩ 30,000 (족자걸이 포함)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 독특한 향+부드러운 촉감+미용과 면역기능
- 피부미용에서 미백효과는 물론 자연면역기능까지
- 한방 재료 추출물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99.9% 천연 소재 사용

■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칠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 **키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 **강원대학교 축산가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면비누는 미끌림수준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 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도자기 연꽃 향초

은은한 향기와 함께 세상을 밝히는 도자기 연꽃 향초! 가정의 장식용 소품으로도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도자기 안에 있는 초를 모두 사용 하신후 낱개 초를 넣어 계속 사용할수 있습니다.
- 향꽃이로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크기 : 가로 5.5㎝, 세로5.5㎝
가격 : 도자기 연꽃 향초(레몬향) ₩ 3,000
향초(라벤다향) 1set(10개) ₩ 5,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재질 : 100% 청동
종류 :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크기 : 40.5 ㎝

가격 : ₩ 350,000 (코팅형, 골동품형)
₩ 580,000 (개금))

묘법연화경 책자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수 있는 포켓용 경전 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경우 원하는 문구를 책 뒤에 넣어 드립니다



크기 : 4.5 (가로)㎝, 6.2 (세로)㎝ , 547쪽

가격 : ₩ 4,000

부다피아 쇼핑몰

http://mall.buddhapia.co.kr

부처님의 말씀과 향기를 느끼실 수 있는 기회를 부다피아 쇼핑몰에서 만나세요

주문방법 : 전화및 팩스로 주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L:02-732-1522 / 737-8881, FAX:02-737-0697)
배송 : 구매하신 제품은 입금 확인 후, 7일이내에 전국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50,000원 이상 구입시 무료 배송) ※ 다량 구입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기도 청자 세트

하나 하나 도공이 직접 구워낸 이천 기도 청자 세트
- 양,음각 세공을 도공의 손으로 직접 조각하였습니다.
- 제품 하나마다 도공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 제품마다 정성이 가득합니다.



응 도
- 추석 등 명절 선물용, 아외 기도, 가정 기도, 제사, 산소등 응도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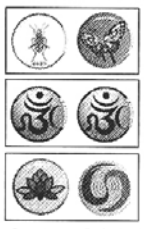
포장재질
- 천연 오동나무

규 격
- 청자향로(8㎝×5㎝) 1개
- 청자촛대(6㎝×4㎝) 2개
- 양초, 향 각 한질, 촛대 바람막이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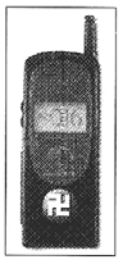
가 격 : 1세트 ₩ 25,000

신소재 전자파 방지장치

인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수 있는 전자파, 우리주변에서 항상 건강을 위협하는 수맥의 공포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 인체공학적 생체 리듬 보호, 휴대폰 수신 감도 증가
- 붙이기만 하면 되는 편이성



강력한 키틸리안(Kirilian)이 유해 전자파를 흡수, 옹해 합니다.



응 도 휴대폰, 진공청소기, 믹서, 컴퓨터, 전기면도기, TV등과 수맥방지가 필요한 모든 장소

규 격 2개 1세트 **가 격 : ₩ 9,000**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무비스님의 경전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바쁜일상 생활이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낼수 있다면 혼잡한 마음을 조용히 하고 꼭 들어 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감로수 같은 일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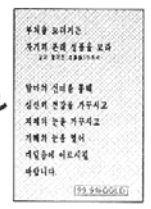
- **금강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 **지장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 **진심직설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화엄큰스님의 祖師西來意 달마도 보급

(순금 패스포트로 만들었습니다)

화엄큰스님 달마도를 항상 가까이 두고 공부한 덕으로 심신의 건강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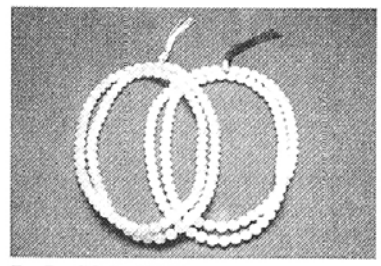


특 징 순금을 최대한 얇게 뽑아 주머니속, 지갑속에 넣어다닐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재 질 순금99.9%
크 기 5.2㎝ × 7㎝

가 격 : ₩ 20,000

건강 옥 염주

옥은 군자의 길에 비기며 회남자(淮南子)에는 천지의 정(精)이라고 하였다 옥을 지니고 있으면 여러 질병을 예방해 준다고 하였다. 이미 알려진 사실로서 몸에 지니면 기를 발산하여 고혈압,두통,소화불량,신경통 등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며 보석에 버금가는 대단한 아름다움을 겸비하고 있다



종 류 칭옥염주, 백옥염주
가 격 : ₩ 40,000 추석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앞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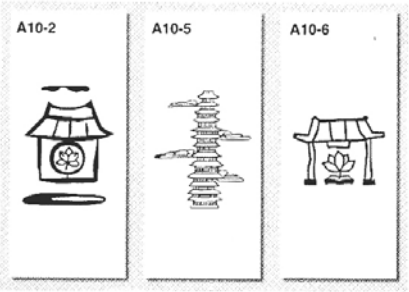
연꽃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제작한 생활 앞치마





색상 : 자주색
재질 : T/C (면 혼합)
가격 ₩ 5,000
(100장 이상 주문시 원하는 인쇄 가능)

기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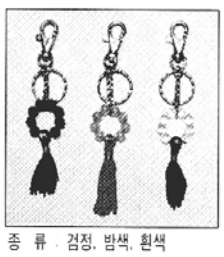
대(大)
기장 84㎝ 폭 39㎝
가격 ₩ 1,600



다포
기장 : 50㎝ 폭 39㎝
재질 : 면
가격 ₩ 800
※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단주 열쇠고리

다양한 칼라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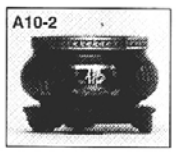
반야심경 종 차걸이

맑은 종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제품입니다.(종에 반야심경 인쇄)

가격 : 낱개 ₩ 9,000



종 류 검정, 밤색, 흰색
가 격 : 낱개 ₩ 3,000



반야심경 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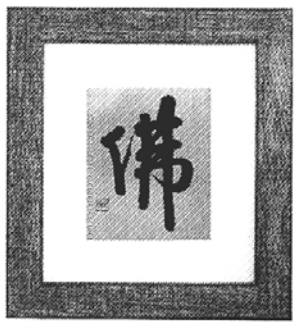
청동제품으로 향로 주위에 반야심경 경전 문구 인쇄

가격 : ₩ 25,000

※ 법보시 하실 경우 할인 가능합니다.

서옹 큰스님 불(佛)자 액자

서옹 큰스님의 불(佛)자를 공예작가 범오선생이 동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소장하시면 큰스님의 맑은 기운을 느낄실 수 있습니다



재질 : 동
특징 : 수공예 작품
규격 : 39㎝×43㎝

가격 : ₩ 50,000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 자신에 맞는 체질 처방으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얻는다.



제1부 나는 어떤 체질일까?
-체질이란 무엇인가?
-왜 체질을 알아야 하는가?
-일반인도 체질의학을 활용할 수 있는가?
-사상의학이란?
-체질 감별법
-자신의 외모,심성,병증으로 체질 진단
-체질병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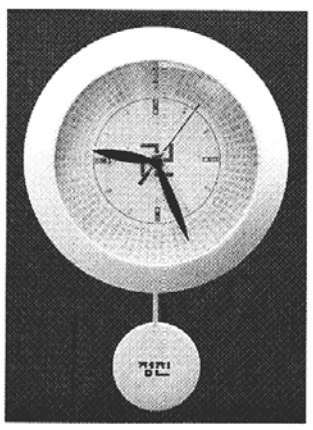
제2부 체질처방 건강 장수법
-체질에 맞는 섭생이란?
-체질에 맞는 보익과 운동은?
-체중조절에 도움이 되는 보익
-체중감량에 좋은 운동
-체질에 맞는 육류,곡류,채소,과일,해물,차 등
-건강 장수 비결

제3부 체질처방 다이어트
-살찌는 체질?
-체질과 비만의 관계
-조리법이 비만을 부른다
-체질에 맞는 다이어트 조리법
-다이어트 음식
-살빼는 민간처
-지압으로 빼는 군살
-비만의 원인부터 억제하는 씨앗요법
-살 빼는 심리요법

제4부 자연처방 식이요법
-비만은 종합 질병이다
-다이어트의 부작용
-선택이 중요하다
-절식요법이란?
-쉽게 할 수 있다는데
-혼자서 하는 올리오법 7가지
-기법고 상쾌한 기분으로
-생태학적 영양학의 식생활 실행조건
-멋지게 보내는 하루

저자
- 경희대 한방병원 원장 송일병 교수
- 경희대 올리오법과 신현대 교수
- 경희대 사상의학회 회장 고병희 교수
- 상지대 체질의학과 김달래 교수

가격 ₩ 70,000 (가방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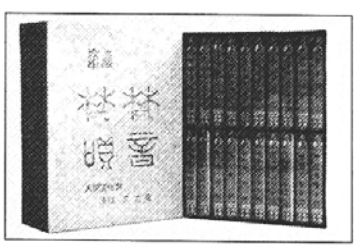
육바라밀 벽시계

항상 보는 시계에서
정진의 힘을 얻는다!

색상 : 백색원판에 4도칼라
크기 : 200×260×60㎜
원판내용 : 육바라밀, 보왕삼매론
가격 ₩ 15,000

※ 50개이상 주문시 원하는 경전문구 삽입 및 디자인 해드립니다.

문구암스님 범음 · 범패집



인간문화재 문구암 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카세트 테잎 1질
- 불공의식, 삼신이운, 영산작법, 대령, 관욕의식등 분야별로 녹음되었습니다.

가 격 : ₩ 50,000

1. 불공의식
2. 삼신이운
3. 신장청 · 신중권공
4. 상단청
5. 상단권공 · 거목
6. 대령 · 관욕의식 I
7. 대령 · 관욕의식 II
8. 대령 · 관욕의식 III
9. 영반 · 목청소리 · 대천수스리
10. 영산작법 I
11. 영산작법 II
12. 영산작법 III
13. 영산작법 IV · 지장청사 I
14. 지장청사 II · 지장권공 I
15. 지장권공 II
16. 전시식
17. 배송
18. 운심게
19. 법사이운 · 명전점안
20. 종성 · 천수작법 · 요잡

법회안내



보성스님(송광사 방장)25일 금요일 10시 30분 천안 천불사 큰스님 초청 대법회. (02)557-3223



보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23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 9월 다보법회. (02)703-0108



선일스님(인천 부루나포교원)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밤 8시 〈금강경 강의〉 법회. (032)576-9741



일관스님(보현사 주지) 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10시 가족법회, 매월 세째 금요일 오후 7시30분 부부법회, 매월 세째 금요일 오후 2시 구역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어린이법회. (02)952-8800



김태영법사(일산 문사수법회) 23일 오전 10시 30분 1백일 정진발원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일산 믄사수 정기법회, 매주 월, 화요일 새벽 5시 30분 경전법회. (0344)966-2545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9월24일 (목)

■**자원봉사시민대학 개강**=불교자원봉사자연합회는 강북구 불자연합 사무실에서 제8회 자원봉사 시민대학을 시작한다. (02)723-6258

■**불교방송 후원회 법회**=오후 3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불교방송 후원회에 적극 동참하자'는 후원법회가 봉행된다. (02)705-5295

9월25일 (금)

■**제2기 성철사상강좌 개강**=성철선사상연구원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성철스님의 〈선문정로〉를 중심으로 제2기 성철사상강좌를 연다. (02)265-5215

■**실직가정 자녀 및 결식아동 돕기 은행골 알뜰장**=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앞마당에서 실직가정 자녀와 결식아동을 돕기위한 은행골 알뜰장이 열린다. (02)806-1376

■**정토학회 세미나**=제1회 정토학회 세미나가 '현대사회와 정토신행'을 주제로 동국대 학림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02)581-3137

■**부산청년불자산악회 창립법회**=오후 7시 부산새마당 예식장에서 부산청년불자산악회 창립법회가 봉행된다. (051)

■**월산스님 1주기 추모법회**=오전 10시 불국사에서 '월산스님 1주기 추모법회'가 봉행된다. (0561)746-9912

9월26일 (토)

■**대구 세심선원 청화스님 초청대법회**=오전 10시30분 대구 세심선원에서 '청화대선사 초청 천도재 및 구병시식'을 봉행한다. (053)768-5900

■**길상사 주말수련회**=27일까지 1박2일간 제11차 주말수련회가 열린다. 예불과 참선, 운력, 108배 등을 수련하며 직장인과 일반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02)3672-7010



◇국민회의 연등회는 창립 2주년을 맞아 회원간의 결속을 다지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사진은 국민회의 연등회의 법회모습.

■**부처님 진신사리친견법회**=태고종 부산 백룡사는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한다. (051)754-8809

■**도갑사, 월출사 순례**=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은 27일까지 월출산 도갑사-장천리 선사유적-청해진 법화사터-무위사를 순례한다. 역사탐방연구회 염상균씨가 안내한다. (02)725-1284

■**한일은행 불자막 법회**=오후 4시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의 합병으로 인한 한일은행불자회 마지막법회가 한일은행 대강당에서 열린다. (02)777-9711 전동관

■**국민회의 연등회 창립 2주년 법회**=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국민회의 연등회 창립 2주년 기념법회가 봉행된다. (02)788-2013

9월27일 (일)

■**간월암 수덕사 참배**=용진항공여행사는 오전 6시 30분 서산 간월암 사시마지 및 덕숭산 수덕사 참배를 떠난다. (02)279-1191

■**진안 마이산 탑사**=국토문화연구회 옛돌은 오전 7시 말의 두 귀를 닮은 마이봉과 돌탑으로 유명한 전북 진안의 마이산 탑사 일대를 답사한다. (02)275-4333

9월28일 (월)

■**길음복지관 추석맞이 송편만들기**=길음복지관에서는 추석을 맞아 지역내 무의탁 노인과 소년소녀가장,장애인들에게 나눠줄 송편을 만든다. (02)985-0161

9월29일 (화)

■**타태아천도 사경법회**=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제3회 타태아천도 사경법회 입재식을 봉행한다. 10월 19일까지 계속된다. (02)723-6258

■**청평 반야사 청화스님 초청법회**=오전 10시 경기도 청평 반야사에서 청화스님 초청법회가 봉행된다. (0356)85-0531

9월30일 (수)

■**부산 삼광사 명부전 상량식**=천태종 부산 삼광사는 30일 오전 11시 명부전 상량식을 봉행한다. 지상 2층, 연건평 2백60평 콘크리트구조로 건축되는 명부전을 내년초 준공될 예정. (051)808-7111

■**내장사 백양사 참배**=용진항공여행사는 오전 6시 30분 내장산 내장사와 백양사로 참배를 떠난다. (02)279-1191

종단소식

조계종

반룡사 심검당 낙성



조계종 제12교구 말사 고령 반룡사(주지 일경)는 지난 12일 심검당 낙성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해인사 기획실장 무관스님, 주진우 국회의원, 이태근 고령군수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선방으로 사용될 심검당은 지난 97년 10월 착공해 올해 6월 완공됐으며 건평 30평의 단층 한식목구조물로 되어 있다.

태고종

교임협회장 박대각화씨



전국교임협의회는 13일 선암사 적묵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제3대 신임회장에 박대각화(사진), 부회장에 김종순씨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 박 신임회장은 각 부 임원을 지명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조직강화 및 수행풍토 조성, 포교역량 강화 등의 운영방침을 밝혔다.

진신사리 입국법회



일광정사(원장 정태진)는 12일 김포국제공항 제2청사 귀빈실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및 목련·수보리존자·오백나한 사리 입국법회를 가졌다. 조계종 원로 석주스님, 태고종 총무부장 지성스님, 동국대 목정배교수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법회에서는 미얀마 다따웅 사찰에서 들여온 54과의 사리가 선보였다.

진각종

진각복지회 새이사 영입

진각복지회(상임이사 회정)는 1일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7명의 새 이사를 영입했다. 이번에 새롭게 영입된 이사는 국민회의 배종무의원, 자민련 박철언 의원, 한나라당 김영일의원과 양택근 손덕호 박종태 손성섭씨 등이다.

승급위한 심학교육 실시

통리원(원장 성초)은 23~24일 양일간 총인원에서 행계 승급을 위한 심학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10주심론, 종조법어 및 진각법문 강설, 교화체험 법문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진각대학 교화예비자 교육

진각대학(학장 석봉)은 15~18일 교화예비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밑교개론, 종교개론, 불교의학, 불교사, 교전연구, 유식사상, 금강경 등에 대한 강연으로 진행됐다. 교화예비자 교육은 4년간 매달 월초불공 후 1주일 동안 실시된다.

총지종

원정대정사 1주 멸도절

통리원(원장 총지화)은 9일 총본산 총지사에서 종조인 원정대정사 제 1주기 멸도절을 맞아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녹정종령, 총지화 통리원장, 효강 법장원장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조동종

조동산행회 집행부 회의

조동산행회(회장 덕운)는 충북 음성 정도사에서 집행부 회의를 열고 회원 배가 및 조직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종도사 일대를 돌며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미타종

승려증 마그네틱카드 갱신

총무원(원장 권승우)은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재적승 승려증을 마그네틱카드로 일제히 갱신한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 시 판

♣ 알림

△**장애인 생산품 전시 및 바자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25일~30일 부산 시청 2층 전시실에서 장애인 일거리 마련을 위한 장애인 생산품 전시 및 바자회를 연다. 공예품과 생필품 등을 염가판매한다. (051)248-6111

△**장학금 마련 재활용품 모집**=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실직가정 자녀들의 장학금 마련을 위해 재활용품을 모집한다. 신문지, 박스 등 종이류와 빈병 등을 복지관 2층으로 가져오면 된다. (02)852-0525

△**산간도우피 파견**=신도림복지관은 산간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교육받은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02)631-9792

△**심리검사**=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예약을 통해 매주 화요일 다면적 인성검사, 성격지능검사, 발달검사 등을 실시한다. (02)817-8052

♣ 강좌

△**한글강좌**=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매주 월, 수, 금 오후 6시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불자들을 위한 한글강좌를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실시한다 (02)723-6258

△**취미메이크업**=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기초화장, 피부관리 등 취미메이크업 강좌를 실시한다. 교육비는 4만원. (02)282-1100

△**무료 〈증도가〉 강의**=박민수 참선교실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무료 〈증도가〉 강의를 실시한다. 251-2733

△**불광바라밀과정 교육**=불광 제27기 바라밀과정 교육이 10월 13일부터 12월 9일까지 매주 화·수·목요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02)413-6060

△**성인사회교육프로그램**=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컴퓨터, 가정미용, 퀼트,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성인사회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02)806-1376

△**창업을 위한 캐드 그래픽 전문반**=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창업을 위한 캐드 그래픽 전문반을 운영한다. (02)817-8052

♣ 모집

△**결식 청소년 도시락 후원자**=증리종합사회복지관은 결식 청소년들의 도시락을 지원해줄 후원자를 모집한다. (0551)231-8017

△**노인주간보호센터 자원봉사자**=청담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낮시간 동안 노인과 함께 정을 나눌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806-1375

△**유급자원봉사자**=연꽃마을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30세~50세 주부로써 거동 불편한 노인을 수발하고 말벗이 돼줄 유급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03-3677

△**의류 및 생활소품 후원**=개금사회복지관은 31일까지 의류 및 생활소품 후원을 받는다. (051)893-5034

△**반찬서비스 도시락 후원자**=두송사회복지관은 반찬서비스와 사랑의 도시락 후원자를 모집한다. (051)265-9471

△**이동목욕 자원봉사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주 1회 구로구 일대의 노인과 장애인들의 목욕봉사에 동참할 자원봉사자를 찾는다. (02)852-0525

♣ 화촉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 윤청광씨의 장녀 주영양**이 26일 토요일 오후 1시30분 신사동 남서울웨딩홀에서 김동진씨와 화촉을 밝힌다. (02)543-9500

♣ 부음

△**고자화 前 불교병원장(대한생활불교회장)**이 15일 오전 9시 대전 성심병원에서 별세했다. (042)526-4273

20년 경험
불자 건축
·무·료·상·담·
귀의 삼보하옵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의 토목, 건축공사에도 상담을 원하시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공사
요사채, 사찰건물, 불자건물
● 토목공사
진입로 확장 · 신설. 산립제거
● 하자보수공사
누수, 구조적 결함
● 계획 및 설계
소규모라도 수시 무료 상담
● 시공 협의
완벽한 공법제시
대종건설 노광운 합장
연락처: 011)405-0703
042)863-0756

버섯 좋은것 다아시죠!
(암 및 당뇨, 성인병 예방 특효)
동충하초
누에동충하초:중량100g
값:150,000(1개월분)
상황버섯
상황:중량340g(170g×2개)
값:135,000원(40일분)
아가리쿠스
중량150g
값:105,000원(1개월분)
"영험한 수리산하에서 재배한 버섯"
(주)동해농·축·수산 건강사업부
(건영백화점내)
■주문전화(배달 및 통신판매중)
서울 02)926-6981
철원 0353)458-4534
제주 064)752-1611
휴대폰 011)262-6981

장가안가길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
「장가 안가길 잘했네」
전 2권 각권 6,500원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6~7
신 간
☞ 구름을 바라보는 물
정가 6,500원 이봉재 소설
☞ 삼천배 삼천부처님
정가 10,000원 우학스님 편저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
정가 2,000원 우학스님 편저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코스모스
바람결 흔들리는
코스모스
고운자태
홀로 아픈 가슴 묶고
소슬한 바람이
남기고 간 자리에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외로움으로 떠오르는
헝겨운 얼굴
빈 가슴으로
채워질 때
어느새
가슴 한 구석
가만히 새겨지는
그리움 하나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본명)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부처님말씀 이젠 귀로 읽어요"

삼장법회 시각장애인에 경전 테이프 보시
'불교성전' 5백질 녹음…50여곳서 주문

는이 안보이는 시각장애인들도 경전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다.

등국역경원후원회 삼장법회(회장 김정호) 회원 50여명이 〈불교성전〉을 직접 녹음, 시각장애인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것. 동국역경원후원회 회원 1천5백여명 중 서울 근교에 거주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삼장법회는 지난 96년 처음 결성됐다. 이번 〈불교성전〉 테이프 제작은 지난 5월, 김정호 회장이 처음 의견을 제안하고 회원들이 적극 동참하므로써 완성됐다. 김회장은 "삼장법회 결성후 지금까지 월 1회 정기법회와 년 2회 산행법회를 봉행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신행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뜻있는 일을 해보자'는 회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좀더 보람있는 일을 찾던 중 경전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불교성전〉을 녹음해 전달하기로 했다.

테이프 제작에는 총 4개월이 소요됐다. 〈불교성전〉을 모두 녹음할 수가 없어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만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별, 모두 12개를 한 질로 묶어냈다.

특히 이번 테이프 제작에는 전문 성우가 아닌 삼장법회 회원 9명이 자원봉사로 나서 직접 녹음에 참여했다. 녹음장소도 전문 스튜디오가 아닌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 경비 절감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사찰에서 녹음한다면 경전 한 구절 구절마다 그 법향이 배여있는 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다.

방음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곳에서의 녹음 작업은 쉽지 않았다. 김회장을 비롯 녹음 봉사자들은 경내가 조용한 아침·저녁시간을 이용, 틈틈히 녹음을 했다. 녹음 제작에 참여한 김보은심 보살은 "녹음에 차질을 가져올까 말도 적게해 목소리를 아끼며, 하루 하루를 수행하는 마음으로 녹음에 몰두하느라 지난 여름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겠다"며 보람을 토로했다.

삼장법회는 총 5백질의 〈불교성전〉 테이프를 제작, 22일 동국대 문화관 대각전에서 고불식을 갖고 배포를 시작했다. 김회장은 "벌써 맹아연합회 등 50여곳에서 테이프를 받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며 "전국 어디라도 테이프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발송해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02)507-1977

김정은 기자(jekim@buddhapia.com)

우리절 불사 가평 '명지사'



◇200여년 동안 군포교에 전념해 온 무공스님(원내)의 원력으로 가평 명지산에 군법사들을 위한 명지사가 건립되고 있다.

군포교 전진기지 조성

무공스님 원력
1천원 십시일반 불사
IMF로 공사 중단

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둔리에 위치한 명지산 명지사. 20여년 동안 강원도·경기도일대 군부대를 돌며 군포교에 전력해 왔던 74세의 무공스님이 군법사들의 포교 전진기지 도량 건립의 원을 세우고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스님은 작년 3월 삼짓날, 전기불도 없는 명지산 골짜기에 혼자 올라와 기공식을 단행하고 1년 만에 대형 문수보살 석불 상을 세우고, 샷시로 만든 임시 법당을 마련했다. 그러나 스님은 IMF 경제한파가 일자 명지사를 찾는 몇 안되는 불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불사를 중단했다. 다만 3백여일이 넘게 계속해 온 '불사 원만 회향기도'로 불사를 대신하고 있을 뿐이다. 군장병에게 줄 초코파이와 요루르트를 사기 위해 주머니 돈을 털기 일수였던 스님에게는 더 이상 불사를 진행한다는게 무리였던 것이다.

"그 나이에 무슨 불사냐는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는 스님은 "불사를 이루겠다는 기도가 간절하다면 언젠가는 회향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군법사들을 위해 도량을 마련해야겠다는 원을 세우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닌 지 3년만에 문수보살의 선몽으로 명지산에 또아리를 틀었다. 가진 돈으로는 쉬 엄두를 낼 수 있었던 처지가 아니었기에 스님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알짜배기 1천여평을 얻을 수 있게 된 모든 것이 간절한 기도 덕분이라고 믿고 있다.

신도들에게 부담되는 불사는 하지 않는다니만 못하다며 '1천원 불사'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스님은 신도들에게 뭉치 돈보다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 언제쯤 제대로된 법당과 승당, 강당, 종각이 완공될 지 기약도 없이 전기불도 없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촛불을 켜 놓고 밤새 책 읽기를 멈추지 않는 스님은 명지사를 작금의 어려운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혜의 문수도량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동국의료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증축되는 경주병원은 연건평 1만2천여평 규모에 6백여 병상을 갖춘 매머드 병원으로 거듭난다.

동국대 경주병원 7층병동등 증축

29일 준공기념식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의료원장 조재호)은 29일 의료원 개원 10주년 및 경주병원 증축준공 기념식을 거행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을 비롯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황명수 총동창회장, 이의근 경북도지사, 이원식 경주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동국학원은 지난 96년 4월부터 98년 6월까지 1백50억원을 들여 지상 7층의 병원동 1개, 지상 3층의 복지동 1개 및 96평의 휴게동 1개를 증축했다. 이로써 경주병원은 연건평 1만2천여평 규모에 내과외 21개 진료과와 6백여 병상을 갖춘 매머드 병원으로 거듭나게 됐다.

특히 초고속의료정보통신망(OCS)을 구축하고 1인1실의 교수 연구실을 마련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교계도 손가락 절단 강군돕기 나서

지현스님등 6명 생활·교육비 지원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소속 스님들이 보험금 때문에 아버지에 의해 손가락이 잘린 강정우군을 돕기에 발벗고 나섰다.

불국토 상임이사 혜총스님은 불국토 이사스님 6명이 모은 3백만원을 15일 국제신문사엔 기탁했다. 언론을 통해 정우군의 소식을 접한 불국토 이사장 정관스님, 정년스님(내원정사 주지), 지현스님(관음사 주지), 정여스님(보현선원 주지), 범산스님(영주암 주지) 등이 정우군 생활비와 치료비,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

특히 지현스님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복지법인 늘기쁜마을 장학회를 통해 정우군이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매월 1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년스님은 사회복지법인 내원장학회를 통해 중, 고등학교 학비를 전액 부담키로 했다. 이밖에도 불국토 소속 스님들은 정우군 가족이 하루빨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보광사 장기수 묘역 조성

종교계 최초…27일 금재성씨 유골 안장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근본도량 파주 보광사(주지 효림)가 장기수 영면도량으로 가꿔진다. 보광사는 27일 장기수 故 금재성씨의 묘역을 조성하는 것을 계기로 장기수와 양심수들을 종교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남북통일 및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새롭게 자리잡을 전망이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근본도량이기도 한 보광사는 교계 4개 단체가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교장기수후원회와 출소 장기수들의 요청으로 일주문 안 초입(初入)에 장기수 영면(永眠)장소를 마련한다. 종교계 최초의 장기수 영면지라는 상징성을 갖게 될 보광사는 20일 터를 닦고, 27일 故 금재성씨의 유골을 49재를 지낸 금선사에서 옮겨올 계획이다.

조직사건으로 18년동안 옥고를 치른 장기수 권낙기씨(52)는 "매장이 아니라 불교식으로 화장을 할 경우 통일 후에 유골으로나마 불자들의 도움으로 고향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돼 보광사에 간곡하게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권씨는 "보광사는 위치적으로 북쪽에 근접해 있고 통일전망대와 휴전선 등에 가까워 장기수들이 오고가며 들를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 장기수들의 영면지로는 적지(適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보광사는 장기적으로 납골당 또는 영탑 건립계획을 세우고 장기수들의 영서(永逝)뿐만 아니라 양심수와 통일일꾼들의 묘역도 보광사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광사 주지 효림스님은 "장기수 선생들의 영면지 조성을 계기로 남북통일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선언적 실천불교·생활불교에서 탈피해 전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광사는 장기수 영면지 조성을 매개로 민족통일을 대비하고, 종교적 관점 속에서 사회운동체로서의 불교운동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10월11일 불교·천주교 인사와 출소 장기수들은 보광사를 방문, 故금재성씨를 합동 참배할 예정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일산 장안사 납골당 증설

7백60평에 3만5천기 유골 봉안

경기 일산시에 위치한 장안사(주지 병진스님)는 지난 8일 납골당 '장안 낙원' 증축 기공식을 봉행했다.

지난 88년 고양시로부터 납골당 허가를 받아 10여년간 납골사업을 추진해 온 장안사는 총 7백60평 규모의 납골당에 1평당 50기씩 총 3만5천기의 유골을 봉안할 수 있는 납골당을 내년 5월까지 1차로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장안사 납골당에는 유골 8백50여기가 봉안돼 있다.

장례종합서비스를 실시해 일반 장례비용의 30%선으로 비용을 줄여나가겠다는 '장안 낙원'은 중앙제어장치 등 첨단장비를 설치하고 납골당내 제단에서 영정을 화상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했다. 납골당 '장안 낙원' 관련 사업은 (주)다조산(대표이사 박이두)에서 맡아 진행한다. (02)701-8777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경회 청화스님 초청법회

대한불교사경회(회장 이양배)는 13일 부산 KBS 홀에서 청화스님 초청법회를 가졌다.

범어사 주지 성오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천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식전행사로 다도시연과 혜원정사의 찬불가 공연으로 법회 분위기를 더했다.

식전행사에 이어 가진 법회에서 청화스님은 "승가 재가를 구분치 않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행해야 하며 어떠한 처소에 있더라도 주변의 모든 이들을 부처님 모시듯 하자"고 법문했다. 천미희 기자

실직자에 무료급식
통도사부산포교원

통도사부산포교원(원장 심산)은 15일 영광도서 앞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이날 통도사부산포교원은 트럭을 개조해 만든 이동급식 차량으로 즉석에서 음식을 만들어 2백여명에게 점심을 제공했다. 통도사부산포교원은 21일부터 성지곡수원지로 자리를 옮겨 무료급식을 실시, 실직자를 비롯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한다.

심산스님은 "사회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게 부처님의 진정한 자비정신이죠. 다만 많은 불자들이 보시한 쌀을 이웃들에게 회향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동 급식차량을 이용, 어려운 이들이 많은 곳에서 신선한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료급식은 포교원 신도들이 자원봉사로 이뤄진다.

천미희 기자

부산 청년불자 산악회
25일 창립…훼불 예방

부산청년불자산악회(회장 김정관)가 설립된다. 부산불교신도회 직할 청년회인 부산청년불자산악회는 25일 오후7시 새마당예식장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현재 70명의 회원이 가입한 부산청년불자산악회는 매월 둘째 일요일에 정기산행을 갖고 앞으로 전국불교산악회와의 연계를 통해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회원 가입문의 (051)464-2020

천미희 기자

불교미술연구소
所長 孫 連 七
0 2·285·5963
019·285·5963

無比스님 경전강의 테잎



무비스님의 경전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바쁜일상 생활이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낼수 있다면
혼잡한 마음을 조용히 하고
꼭 들어 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감로수 같은 일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강경·지장경·진심직설 - 무비스님 직접강의

● 금 강 경 강의 : 테잎20개 ₩45,000
● 지 장 경 강의 : 테잎20개 ₩45,000
● 진심직설 강의 : 테잎20개 ₩45,000

● 구입문의 : 02)732-1522 ●

문구암스님
범음·범패집



▶ TAPE 목록
①불공의식 ②삼신이운 ③신장청·신중권공
④상단청 ⑤상단권공·거목 ⑥대령·관욕의식 I
⑦대령·관욕의식 II ⑧대령·관욕의식 III
⑨영반·복청소리·대천수소리 ⑩영산작법 I
⑪영산작법 II ⑫영산작법 III ⑬영산작법 IV·지장청사 I
⑭지장청사 II·지장권공 I ⑮지장권공 II ⑯전시식
⑰배 송 ⑱운심게 ⑲법사이운·명전점안
⑳종성·천수작법·요잡

큰스승 문구암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카세트테잎 1질 (가격 : ₩50,000)

불공의식, 삼신이운, 영산작법,
대령, 관욕의식등 분야별로 녹음

● 구입문의 : 02)732-1522 ●

'이웃과 함께하는 한가위' 교계 후원손길 분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교계 복지관을 중심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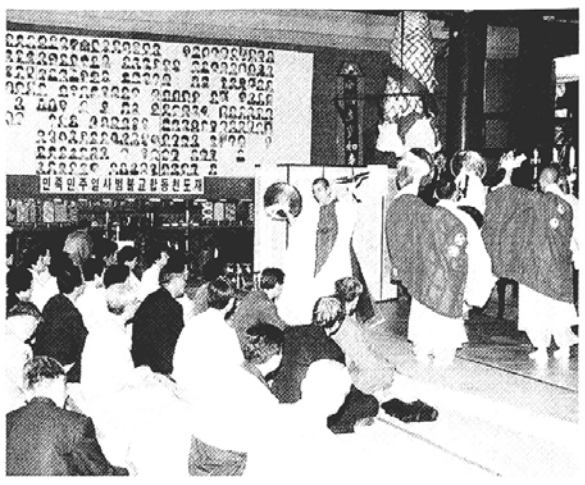
길음복지관은 28일 자원봉사자들과 송편과 밑반찬만들기를 행사를 펼친다. 그동안 무의탁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등에게 실시해 온 밑반찬 나눠주기와 함께 직접 만든 송편을 전달할 계획이다. 구로복지관도 추석맞이 송편 나눠 드리기 후원자를 모집중이다. 10월 1~2일 복지관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만든 송편을 나눠주게 된다.

옥수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는 24일과 29~30일 지역내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추석선물을 전달한다. 두송복지관은 추석맞이 기쁨의 쌀 나누기 행사를 10월 1일 지역의 1백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30일 지역 노인 60명을 초청해 청도 용암온천으로 경로관광을 떠난다. 공창복지관은 10월 1일 자비의 쌀 나누기를 갖고, 10월 2일에는 한가위 송편빚기대회를 열어 영세가정과 독거노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 공창복지관은 각종 제수용품도 후원받아 영세가정에 나눠줄 계획이다.

소쩍새마을은 오는 10월중 노인 및 독거노인을 초청해 소쩍새마을 대운동장에서 98한가위 경로대잔치를 준비중이다. 대구자비의 전화는 22일 한복입기, 지방쓰는 법, 공수법, 절하는 법 등 '차례지내기 무료공개강좌'를 실시하기도 했다. 매년 명절때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쌀과 지원금 등을 후원해 오고 있는 범어사도 추석을 맞아 이웃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처럼 한가위를 앞두고 교계 복지관과 사찰을 중심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 나누기 행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민족민주열사 범불교천도재

민족민주열사를 위한 범불교 합동천도재(준비위원장 설정)가 1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설정스님, 청화스님을 비롯해 전국연합 이창복 의장, 민족정기수호협회 이수갑 대표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천도의식은 태고종 전통불교시연단의 집전과 시연에 의해 명종,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불공, 시식, 봉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진=고영배 기자〉

TV·신문 불교왜곡 잇달아

SBS-일간스포츠 등…대중매체 모니터활동 절실

TV와 신문에서 불교를 폄하 또는 왜곡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불교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활발한 모니터 활동을 통해 왜곡을 바로잡는 한편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전달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SBS가 13일 저녁 8시뉴스에 보험금을 노려 아버지가 아들의 손가락을 절단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용의자인 아버지가 불교인임을 인식케해주는 장면을 내보내 불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SBS는 이날 뉴스에서 용의자의 방문 앞에 붙어있는 불교 만(卍)자를 화면에 가득 차도록 클로즈업하여 내보냈다.

이에 대해 보리방송모니터회는 "사건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임에도 불교 만(卍)자를 천천히 크게 클로즈업한 것은 불교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기 위한 행위"라며 SBS에 항의했다.

SBS는 이에 앞서 3일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수상작품인 '건칠지불' 보도와 관련해 "불상은 생활에 쓰이는 공예품으로 볼 수 없어 80년대 중반부터 공예대전의 출품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기도 했다. 불상의 출품이 제한된 것은 82년 한차례 있었으나, 그후로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불자들의 항의에 대해 SBS 8시 뉴스팀의 한 관계자는 "종교적 편견으로 보도화면을 구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 '일간스포츠'는 '도시유혼'이란 연재만화에 무당이 짚으로 만든 인형을 바늘로 찌르며 옴마니반메훔 진언을 외우자 한 남자가 죽는 모습을 14~16일치 신문에 실었다. 조계종총무원과 진각종통리원이 이에 항의하자 사과문 게재를 약속해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대중매체에 의한 불교왜곡·폄하 사례가 빈번하므로 범종단 차원의 매체모니터팀의 구성 또는 기존 모니터모임의 지원을 통해 상시적으로 잘못을 바로잡는 체제가 필요하다.

보리방송모니터회 김재일회장은 "매체종사자의 불교에 대한 이해부족이 의도하지 않는 실수를 가져온다"며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한 각종 연수의 확대, 책자 보급을 활발히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장애아동요양시설 상락원 착공

중앙승가대학교 기원학사가 장애아동요양시설인 상락원으로 거듭난다.

중앙승가대 부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지하스님)은 학교로부터 기원학사의 재건축 보수공사 허가를 받아 19일 오전 11시 착공식을 거행했다.

장애아동 56명의 보금자리가 될 상락원은 단순한 복지시설 증설 차원이 아닌 강원도 횡성에 건립되는 승가원 종합복지타운 계획의 일환으로서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시의 대규모 예산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락원은 대지 2천2백15평, 연건평 1천2백40평의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모두 6억여원의 건물 개보수비가 소요될 예정. 지하1층에는 식당 세탁실 목욕실이, 지상1층에는 장애아동주간보호시설과 의료센터 상락원이 들어서며, 지상2층에는 사회복지정보센터와 자원봉사원실 등이 들어선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노인요양원 '반야원' 개원

신흥사 속초시에 … 50명 수용 무료치료

신체적·정신적 요양이 필요한 불우노인들을 무료로 입소시켜 숙식은 물론 치료와 안식을 제공하는 노인요양원 '반야원'이 문을 연다. 신흥사복지원(대표이사 도후스님)은 26일 오후3시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산568번지에 '반야 노인요양원'(원장 홍구스님)을 개원한다.

속초 양양 고성 간성 지역 거주 무의탁노인 50명을 수용할 반야노인요양원은 1천 77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3백18평 규모로 건축됐다.

반야원은 물리치료실과 오락실 목욕실 보호실 생활실 등 50명 수용규모의 시설과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생활보조원 세탁부 등 노인요양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고 있다. (0392)635-9445 김재경 기자

교계단체 실무자교육 조계종, 10월14일부터

깨달음의 사회화운동 연구기획단은 10월14일부터 11월4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7~9시 육화관에서 불교단체 실무자들의 능력향상과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무교육강좌를 마련한다.

이번 강좌는 기금모금방법론, 기금확보를 위한 프로그램기획, 회원확대 및 회원관리, 자원봉사자 관리의 실제, IMF 체제 속에서 시민운동, 정보분석과 프로그램 기획, 언론매체 활용과 효과적인 이벤트 기획 등에 대한 이론과 토론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도필선 기자

중국교포 2명 무료시술 감로심장회

대한불교감로심장회(회장 보운스님)는 26일경 중국교포 심장병 환자 2명을 초청, 수술해 줄 계획이다.

감로심장회는 지난해 중국 요령성 최월향(여, 9)양 무료시술 주선에 이어 중국 길림성 용정시 동성용향에 사는 윤동범(남, 11) 허금실(여, 14) 어린이를 초청해 도움을 줄 예정. 김재경 기자

포교대상 추천자 접수

조계종, 11월 5일까지

조계종포교원은 제 10회 포교대상 추천자를 다음 달 7일부터 11월 5일까지 접수한다. 추천분야는 일반포교(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일반신도), 특수포교(군, 경찰, 공무원, 교정교화, 장애인, 국제, 방송언론, 문화예술, 출판), 기타 포교분야이며, 본사 주지스님 또는 신도단체 대표자의 추천서, 포교활동 공적서, 후보자 이력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상식은 12월 5일. 정성운 기자

26일 나옹백일장

신륵사-여주교육청

제1회 나옹백일장이 26일 오전 10시부터 여주 신륵사 주최로 경기도 여주 교육청에서 열린다.

이번 백일장은 신륵사(주지 세영)가 경기도 여주 교육청과 공동으로 과거 나옹화상과 목은 이색 등 문인들의 교유 중심지였던 지역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백일장은 여주군 내 초·중·고등학생 4백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시 산문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도필선 기자

목탁소리

실업자 울리는 사기

김 원 우 〈취재1부 기자〉

'1백만 실업자 구제'를 내세우며 7월 5일 '남북통일 및 실업자 대책위원회'를 결성한 광주 옴니선원장 무선(임채초, 35세), 12일 공무집행방해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광주·전남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무선은 전남도지사 광주시장 국회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각계각층 인사 2백여명에게 접근하여 실업자 구제 성금을 받았다.

심지어 승복을 입고 분신기도와 협박등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돌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무선은 10일 광주시 최고급 호텔인 무등파크관광호텔에서 내외인사 2백50여명을 초청하여 호화만찬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사에 참가한 모씨는 "허무맹랑한 실업자 1백만명 구제론을 발표한뒤 자신의 활동상황을 담은 비디오를 보여주는 등 거의 '원맨쇼'에 가까워 초청받은 스님들이 행사중간에 거의 가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희대의 사기극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내용을 들여다보면 승려들의 행(行)을 단속하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 발견된다. 전과 8범으로 지난해 12월 교구본사인 B사에서 산문출송과 5년 공권정지처분을 받은뒤 다른 문중으로 옮기는 편법을 이용하여 같은지역에서 이같은 일을 저질러 왔다.

이미 징계를 받아 승려로서 모든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버젓이 스님행세를 해온 것은 종단의 호법기능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일단 징계를 받았거나 문제있는 승려에 대한 집중감시체계가 강구되지 않는한 제2, 제3의 무선은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지역 불교계에 망신살이 뻗친것은 그만두더라도 실업자들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대의 피해자가 됐다.

신음하는 중생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주름살만 늘렸으니 이 업은 누가 지고 갈 것인가?

(wwkim@buddhapia.com)

뉴스 & 뉴스

포교사연수 1천명 참가

98년도 하반기 조계종 포교사 연수교육이 12, 13일과 19, 20일 서울을 비롯 전국 6개 지역에서 1천여명의 포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연수교육은 '포교사의 사명' '불교와 환경' '21세기 신문명과 불교' 등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정성운 기자

평불협 발전 전체회의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는 14일 동보성에서 평불협 발전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4월 출범이후 1천7백96명에 달하는 금강국수공장 후원회원 가입현황과 9천60여만원의 모금액을 공개했다. 또 평불협은 (주)애머랜스정보통신과 연계해 평불협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북한불교와 남북불교교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필선 기자

한성포교원 후불탱화 점안

한성포교원(주지 법농)은 12일 오전 포교당 이전을 기념해 '후불탱화 점안식 및 일승법음신종타종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前 조계종 총무원장 탄성스님, 동국대불교대학원 동림동문회장 자용스님, 중랑구사암연합회장 경천스님, 수효사 주지 무구스님, 보문사 주지 정진스님, 국민회의 이상수 국회의원, 수국사 합창단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이은자 기자

23일 마·창 시민대법회

마산창원불교연합회(회장 경호스님)는 23일 오후 2시 KBS창원홀에서 경제난 극복 기원 시민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철웅스님(파계사 성전암 조실)이 IMF를 극복하는 지혜의 법문을 설할 예정이며 창원시립무용단의 공연, 실직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1천만원이 전달된다. 이은자 기자

타태아기령 천도사경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29일 한강 광나루 수상법당에서 제3회 '타태아기령 천도사경 연합법회' 21재 입재식을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신흥사, 정토사, 길동 관음의집, 방생선원, 사천왕사, 한강 광나루수상법당 연합으로 마련됐다. (02)723-6258 김재경 기자

"정치수배자를 가족품에"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불교대책위원회(회장 진관스님)는 13일 조계사 마당에서 '정치수배자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념 법요식, 희망새·꽃다지 노래공연,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자 오창규의 어머니 편지글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또 '젊은 아들, 딸들이 다가오는 한가위를 가족의 품에서 보내게 해 주십시오'라는 제하의 발원문 낭독과 정치수배자 수배해제 기원 조계사 경내 촛불행진이 있었다. 도필선 기자

"조상의 산소자리가 좋으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흥함의 축복이 있는데 반하여, 나쁘면 질환과 패망을 가져오고야 만다는 음택(산소)풍수사상!"

"지금 조상님의 산소가 발복이 일어나는 명당산소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 사업에 망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어려웠던 일들이 풀어지고, 간절하게 원했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병환이 깊은 사람들이 완쾌되는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전해오고 있음에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 부처님께서 베푸시는 크나큰 가피력일 것이라는 생각뿐입니다.

방 법 산소 좌,우와 앞쪽에 봉분은 건드리지 않고 佛法(불법)을 묻어드리는 방식입니다.



1. 황동판 팔괘만다라
2. 황동판 금강경신탑다라니
3. 황동판 묘법연화경탑다라니
4. 공단천위에 100% 경면주사로 조성한 금강경신탑다라니
5. 공단천위에 100% 경면주사로 조성한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 1,2,3번은 황동판위에 세겨진 만다라와 탑다라니가 산소를 바라보도록 세워서 묻습니다.

◆ 4,5번 공단천안에는 위패를 써서 행하는 사람의 이름과 함께 안치시킨후 묻어드립니다.

〈이때 행하는 사람으로서 이름을 써서 넣은 분들에게만 주로 발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부이름과 자녀들 이름을 같이 써넣는 것이 좋습니다.〉

명당이란? 땅의 생기(生氣)가 있는 땅을 찾고자 함이며, 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산세를 보고 물길을 보며, 방향을 따지고, 흙의 색깔을 보는 것입니다.

본 산소처방을 해드리면, 산소자리의 토질이 생기가 가득한 땅으로 변하면서, 수맥과 수분이 차단되고 그 자리가 바로 명당이라고 하는 토질로 변해지는 신비스러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세나 지형을 볼 필요도 없고 자리의 조건이나 돌출부와 물을 구별하지 않아도 되고 이장할 필요도 없고 명당자리를 구하고자 애쓸것도 없이 본 산소처방을 해드려 보시면 토질에 따라서 2~6개월 사이에 모든 분들이 불가사의하고도 신비스러운 현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신비한 사례

1. 풍수가 박도원씨의 경우
조부산소를 이장하면서 산세와 지형 방향을 보고 명당자리라 생각되어 터를 잡고 막상 땅을 파니 사토(死土)에 가까웠다. 그래서 본 산소처방을 해드렸으며, 8개월 후에 조모가 돌아가셔서 합장을 해드리기 위해 산소를 다시파니 산소의 토질이 빛이나는 생토(生土)로 바뀌어져 있었다.
2. 금년 장마에 주위의 산소가 모두 형체가 없이 훼손되었지만 본 산소처방을 한 산소는 그대로 보존되었다고 전해온 분이 다섯분이나 되었다.

산소 1基(기) 처방비용 : ₩400,000
(합장이나 쌍봉은 1基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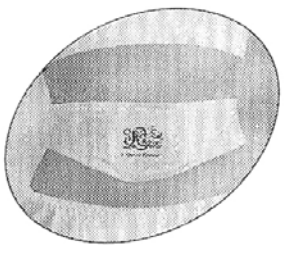
상담문의 성지관음회(회장: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부산 : 보문포교원 ☎(051)864-3740

"모든 풍수지리가 미신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할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본 산소처방으로 믿지 않을 수 없는 사실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기에 일단은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떠한 경우이든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자신의 직계조상님 한분 산소만이라도 해드려보시고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요!"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입 문

문답속에 흐르는 법리 감로수



■전등록4/문재현 옮김

스승과 제자의 문답 사이에서 드러나는 명철한 법리. 그러나 선문답이 어찌 문답에 그칠 것인가. 법을 구하는 자의 갈증을 풀어주고, 삿된 견해를 짚어 정도로 이끌어주며, 범상치 않은 문답 속에서 제자를 한 걸음 한 걸음 끌어 올려주니, 이야말로 진정한 감로수라 할 것이다. 전등록이 전등록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전등록은 전5권짜리 '바로보인 전등록'의 네 번째 권. 법리의 측면에서 깊이 살펴 기존에 번역 출간된 것보다 원문의 취지에 더욱 근접해 있다. 조사의 참뜻을 제대로 옮기는 일은 쉽지 않은 일. 이런 점에서 법리에 밝은 문재현 법사가 번역해 낸 이 책은 선불교가 가지는 특성의 맥을 잡고 갖가지 표현에 대한 진의를 바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읽어볼 만 하다.

바로보인 18,000원 (02)597-2460

경전의 근원-화엄경 풀어쓰기



■화엄경현담/징관스님 지음

〈화엄경〉은 뭇 경전의 근원이 되고 만가지 덕성이 바다로 일려 음으로, 뭇 경전을 거두어들여 귀속으로 삼는다. '현담(玄談)'이란 경의 본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그 경전의 요지를 정리하여 놓은 것으로, 옛날 스님들 대부분이 경전을 강의하기에 앞서 현담을 설하였으니, 자금의 해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징관의 〈화엄경현담〉이 그 양이나 질로 보아 다른 여러 경전의 현담들 압도하지 '현담'이라 말하면 으레히 〈화엄경현담〉을 생각하게 된다.

〈화엄경현담〉은 옛부터 매우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중앙승가대 불전국역연구원에서 사부대중이 모여 주경야독하면서 연구한 것을 묶었기에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려고 노력했다.

중앙승가대학교 출판부 6,000원 (02)929-9991

에 세 이

풀친구와 만나는 아이들



■풀꽃과 친구가 되었어요/이상권 지음

"오빠 풀이 참 예쁘다. 오빠는 무슨 풀인지 알아?" "음, 그것은 말야, 노랑 국화야." "정말 노랑 국화꽃이야?" "그렇다니까. 작년에 학교에서 봤어. 내가 꺾어 줄까?" 손을 쭉 뻗어 풀을 꺾으려고 하는 순간 "앗, 따가워" 보고 있던 아빠가 "허허허, 노랑 국화? 그것도 그럴 듯하다만, 이 풀은 애기똥풀이란다."

이상권 아저씨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를 아이들에게 소개한다. 도시에서 사는 아이들은 그런 친구를 만나지 못한다. 바로 풀이라는 친구를. 애기똥풀을 비롯해 익모초 질장군, 괭이밥 등 아이들에게 낯선 풀들을 이처럼 친근하고 재미있게 소개했다. 장수영 아저씨의 그림도 재미있다.

창작과비평사 6,000원 (02)718-0543

법화경의 설명, 이해하기



■양약을 먹지 않는 지구 촌놈들/혜성스님 지음

사람은 아프면 약을 먹는다. 저자는 나라가 어지럽고 사람들이 갖가지 고통을 받고 괴로워 할 때도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약은 다름아닌 〈묘법연화경〉. 묘법의 양약을 먹으면 낫지 않는 병이 없고, 소멸되지 않는 업장이 없고, 오지 않는 복이 없으며, 쌓이지 않는 공덕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법화경은 읽어 지니기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 책은 그런 법화경을 쉽게 설명한 책. 법화경의 구조와 묘법연화경의 대의를 간단히 설명하고 저자가 나름대로 법화경을 수행해 오면서 얻은 이해와 법의 기피력을 담았다. 재미있는 글귀가 많다.

위음왕 12,000원 (051)625-9065

詩心으로 승화된 구도적 자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엮음

'님이가 가는 곳은 어디나 고향인 것을 그 몇 사람 역수 속에 같이 갇혔니/한마디 버려 질러 삼천세계 뒤흔드니/눈 속에 점점이 복사꽃 붉게 지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오도송이다. 스님의 시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스님보다는 시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유. 그것은 스님의 지조있는 사상과 부처님을 향한 구도적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이리라.

님의 침묵에 수록된 88편 외에 잡 알려져 있지 않은 18편의 시와 시조 32편, 동시 3편, 한문으로 된 선시 138편을 한 권에 담았다. 만해시의 결정판.

장승 10,000원 (02)730-2500

기 타

신승(紳僧) 의문 풀기



■기도와 영험 이야기/심종선 엮음

중국에서 편찬한 〈불교대장경〉은 신승(神僧)을 "신이 되어 만가지 변화를 일으키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신통력을 가진 스님들이라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신승은 있는 것인가.

현 지장불교 문화대학 학장인 저자는 '신승이 있다면 보통스님과는 달리 어떤 행동을 하며,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었을까'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부산 법연사의 조연스님이 어떤 신승의 법주에 들어가는 이적들을 베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 사실에 깊은 신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원만대장경에 있는 신승전, 바구니전, 전등록, 선문염송과 일본의 본조고승전 및 각 사찰의 사지(寺誌) 등에서 신승들에 관한 기록들을 모았다. 방광하는 이야기, 영가 현도 이야기, 병자 치료 및 소원성취 이야기 등 불자들이 직접 겪은 수기들 안에 묶었다.

법연 8,000원 (051)517-2080

본 지면은 출판사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간도서의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독자들에게는 정리된 책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게 하여 꼭 필요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획기사형 광고면입니다.

■참여문의 : 현대불교신문 영업부 ☎ 02)732-1522(직)

금주의 명저순례

깨달음으로 가는 진솔한 과정



■그냥 갈 수 없는 길/이도원 지음

"버릇처럼 절간을 찾아 복을 비는 아내를 보고 불교를 알고 싶었다.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의 신앙생활을 심판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불교를 접한 나는 진리 앞에 합장하게 되었고, 경전과 여러 선지식을 통해 자연과 인생을 배울 수 있었다."

저자와 불교가 이미 한 몸체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교를 만나면서부터 깨달음을 얻기 까지의 과정을 마치 그림 그리듯이 글쳐 보이고 있는 자전적 구도기. 불교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불교의 진리를 알아나가는 과정을 꾸밈없이 진솔하게 써내려 갔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마지막 고백.

불광출판부 7,500원 (02)420-3200

선지식의 일침은 용기와 희망



■산승의 향기/이학종 지음

청정한 삶,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오직 한 길로 정진하는 고집스런 삶,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무한한 애정 등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신적 가치들이다.

〈산승의 향기〉는 서옹스님을 비롯해 월하·월산·승찬·원담스님 등 25인 큰스님들의 삶에서 바로 그런 가치들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출가와 수행과정, 후학들과 대중들에게 주는 격려와 채찍, 그리고 사회문제에 대한 일침은 스님들의 사람과 사회에 대한 애정을 듬뿍 느끼게 한다.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책. 법보신문 이학종 기자가 3년여간 큰스님들을 일일히 찾아다니며 취재해 신문에 연재했던 것을 묶었다.

운주사 7,000원 (02)720-9372

지혜의 실천 '반야경'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반야경/혜탈스님 지음

반야경이란 단 한 개의 경전이 아니라 동일한 계통에 속하는 수많은 경전들의 총칭이다. 이들 수많은 대부(大部)의 반야경들 중에서 가장 일찍 성립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팔천송 반야경〉.

이 책은 〈팔천송 반야경〉의 한글 번역이라는 점 외에도 독창적 해석을 시도한 것이 특징. 특히 〈팔천송 반야경〉의 정수로 꼽히는 제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만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총원 지혜의 실천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보살·마하살·대승·공의 의미 등에 접근했다. 또 불생(不生)의 의미, 반야바라밀의 무한성 등에 관한 문제까지 탐구하고, 반야바라밀이 차지하는 중요한 의미에 관해 설파되어 있다.

출판시대 6,500원 (02)3443-4307

맑고 청빈한 얘기 '한폭 수채화'



■산에는 꽃이 피네/법정 스님 지음

공생을 청빈한 삶을 실천해 온 법정스님(맑고 향기롭게 회주)의 법문이 때로는 거센 물줄기처럼, 때로는 결허히 내리는 싸라눈처럼 녹아 내린다. 그리고 기만히 귀를 기울이노라면 단순하면서도 가난하되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닌 스님의 삶은 우리가 갇혀있는 '풍요로운 감옥'에서 벗어나라는 깨우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깨우침을 류시화 시인이 법정스님의 말과 법문을 책으로 옮기면서 고구마를 캐는 듯한 풋풋한 흙내로 담아냈다. 명동성당 축성 1백주년 기념강연과 작은 모임에서의 법문, 서너 사람이 모인 사석에서 들려준 얘기 등 아주 다양한 내용이 마치 시어처럼 맑고 간간하게 흐른다.

동쪽나라 7,000원 (02)263-1941

슈리푼다의 '참나' 찾기



■무엇이 깨달음인가/슈리 푼자 지음

그대는 불타고 있는 나무 위에 앉아 있다. 하지만 어째서 그대는 불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그대는 잠자고 있다. 그러므로 깨어나라"

인도의 수행자 슈리 푼다는 〈무엇이 깨달음인가〉에서 참나로 돌아 올 때, 이것이 깨달음이요, 해방이요, 자유임을 말한다. 그리고 깨달음은 곧 마음의 고요이며, 마음의 고요는 실재와 실재 아닌 것을 구분하는 탐구와 집중, 명상 등 여타의 수행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질문과 대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본문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를 풀이해 부록으로 달아 놓아 이해를 도왔다. 김병채 교수(창원대 심리학)가 옮겼다.

하남출판사 8,500원 (02)720-0311

금주의 추천도서

불교교리의 체계적 이해



■불교입문/다까사끼 지끼도 지음

여래장사상 연구에 뛰어난 업적을 쌓은 저자가 30여 년간 불교학을 연구하면서 출적한 해박한 지식을총동원해 불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시켜 주고 있는 역작.

대승불교권의 불교인들에게 익숙한 구사(俱舍)·유식(唯識)을 바탕으로 쓰여졌으며, 전통불교학의 맹점인 비역사적 태도를 지양하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성을 드러내 보이는 데 모든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출간된 많은 입문서·개설서들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종파주의적 해석에서 치우쳤던 약점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은 이 책이 갖는 최대의 장점.

홍사성 편역,
우리출판사 4,500원 (02)313-5047

불교사전의 금자탑! 불교대사전 출간!

佛教大辭典

THE ENCYCLOPEDIA OF BUDDHISM



最多語彙 · 最新譯解 · 最善編輯

① 제작기간 10년, 기존의 불교사전과 전혀 다른, 고대에서 현대까지 불교의 **핵심적인 용어 6만3천여개**를 선정하여 문장을 간결하고 평이하게 현대적 어휘로 표현하였다.

② 가능한한 각 용어 마다 범어·팔리어·티벳트어 등 **원어를 찾아내어 표시**하였다.

③ 한글 세대를 위하여 한문은 괄호안에 넣었다.
또한 불교의 세계화를 도모하고자 영국 옥스포드판 **「漢英佛學大辭典」**을 부록으로 실었다.

최고급양장/크라운판 上·下 3,600면/정가220,000원

도서출판 홍법원 · 서울 종로구 견지동 55-2 TEL(02)734-7614, 739-8745, 팩스735-2344